

2023

정책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진주시의회의 역할과 역량 강화 방안



진주시의회

제 출 문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자치발전연구회 귀하

최민국, 강진철, 윤성관, 백승흥, 김형석, 정용학, 박재식, 오경훈

이 보고서를

「**진주시의회의 역할과 역량 강화 방안**」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1.

- 연구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 책임연구원 : 민병익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 2. 연구내용 | 2 |
| II. 연구의 분석 결과 | 5 |
| 1. 표본의 특성 | 5 |
| 2. 진주시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분석 | 6 |
| 1)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관심도 | 6 |
| (1) 진주시의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관심도 | 8 |
| (2) 진주시의회 및 홈페이지 방문 정도 | 9 |
| (3) 진주시의회 공보물 등에 대한 관심도 | 11 |
| 2)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인지도 | 12 |
| (1)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지도 | 14 |
| (2) 조례 처리에 대한 인지도 | 15 |
| (3) 의회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인지도 | 17 |
| 3)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도 | 18 |
| 4)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만족도 | 20 |
| 2. 진주시의원의 역량과 의정활동 | 22 |
| 1) 진주시의원의 역량 | 22 |
| (1) 소신과 품격을 갖춘 정치인 | 22 |
| ① 확고한 정치적 소신 | 24 |
| ② 미래 비전 제시 능력 | 25 |
| ③ 사회적 공감대 형성 능력 | 26 |
| ④ 솔선수범하는 능력 | 28 |
| (2) 집행의 공정한 감시자 | 30 |

| | |
|-------------------------------|----|
| ① 핵심 쟁점 파악 능력 | 32 |
| ② 정책 대안 제시 능력 | 33 |
| ③ 정당성 피력 능력 | 35 |
| (3)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 | 36 |
| ① 지역구 동향, 고충, 이슈 명료화 능력 | 38 |
| ② 지역구 내 이해관계 조정 및 통합 능력 | 39 |
| ③ 좋은 평판 유지 능력 | 41 |
| 2) 진주시의원의 의정활동 수행도 | 42 |
| (1) 선거 공약 이행 정도 | 44 |
| (2)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정도 | 46 |
| (3) 의정활동 설명 및 보고의 충실도 | 47 |
| (4)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정도 | 48 |
| 3. 진주시의회 의역량 및 역할 | 50 |
| 1) 진주시의회 의역량 | 50 |
| (1) 정책 개발 및 제안 역량 | 52 |
| (2) 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개성 | 53 |
| (3) 시의회 및 시의원의 윤리성 | 54 |
| (4) 시의회 및 시의원의 전문성 | 56 |
| 2) 진주시의회 의역할 수행도 | 57 |
| (1)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59 |
| (2)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 | 61 |
|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62 |
| (4) 시정질의 | 63 |
| (5)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대변 | 64 |
| (6) 지역의 갈등 중재 및 조정 | 65 |
| 3) 진주시의회 의정책 기여도 | 66 |
| (1) 경제정책에 대한 기여도 | 68 |

| | |
|--------------------------------------|-----|
| (2) 주민 복지 정책에 대한 기여도 | 69 |
| (3) 도시 공간 정책에 대한 기여도 | 71 |
| (4) 도로 교통 통신망 등 인프라 정책에 대한 기여도 | 72 |
| (5) 문화 정책에 대한 기여도 | 73 |
| (6) 안전 방법 방재 정책에 대한 기여도 | 75 |
| (7)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기여도 | 76 |
| 4. 진주시의회의 역량 및 역할 강화 방안 | 77 |
| 1) 진주시의회 역량 및 역할 강화의 장애 요인 | 77 |
| (1) 의회 역량 강화 장애 요인(1 순위) | 79 |
| (2) 의회 역량 강화 장애 요인(2 순위) | 80 |
| 2) 진주시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의 중요도 | 81 |
| (1) 시의원의 도덕성 강화 | 83 |
| (2) 시의원의 전문성 강화 | 85 |
| (3) 집행부 견제 및 비판 | 86 |
| (4) 독자적 정책대안의 제시와 실현 | 87 |
| (5) 타지역 지방의회와의 교류 강화 | 89 |
| (6) 중앙정부 협조 끌어내기 | 90 |
| (7) 주민참여 확대 노력 | 91 |
| (8) 지방의원 간 토의심화 노력 | 92 |
| (9) 주민 소통 확대 | 93 |
|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96 |
| 진주시 의회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설문지 | 102 |
| 참고문헌 | 106 |

〈표 차례〉

| | |
|--|----|
| <표 1> 표본의 특성 | 6 |
| <표 2>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 관심도 | 7 |
| <표 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관심도 | 7 |
| <표 4> 진주시의회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도 | 9 |
| <표 5> 진주시의회 및 홈페이지 방문 경험 | 10 |
| <표 6> 진주시의회 공보물 등에 대한 관심도 | 11 |
| <표 7>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인지도 | 13 |
| <표 8>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회에 대한 인지도 | 13 |
| <표 9>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지도 | 14 |
| <표 10> 조례 처리에 대한 인지도 | 16 |
| <표 11> 의회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인지도 | 17 |
| <표 12> 진주시의회에 대한 신뢰도 | 19 |
| <표 13>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만족도 | 21 |
| <표 14> 소신과 품격을 갖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 22 |
| <표 15>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원의 소신과 품격을 갖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인식 .. | 23 |
| <표 16> 진주시의원의 확고한 정치적 소신 정도 | 24 |
| <표 17> 진주시의원의 미래비전 제시 능력 | 26 |
| <표 18> 진주시의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능력 | 27 |
| <표 19> 진주시의원의 솔선수범하는 능력 | 29 |
| <표 20> 집행의 공정한 감시자로서 진주시의원의 역량 | 30 |
| <표 2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원의 집행의 공정한 감시자로서의 역량 | 31 |
| <표 22> 핵심 쟁점 파악 능력 | 32 |
| <표 23> 정책 대안 제시 능력 | 34 |
| <표 24> 정당성 피력 능력 | 35 |
| <표 25>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으로서 진주시의원의 역량 | 37 |

| | |
|---|----|
| <표 26>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원의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으로서의 역량 | 37 |
| <표 27> 지역구 동향, 고충, 이슈 명료화 능력 | 40 |
| <표 28> 지역구 내 이해관계 조정 및 통합 능력 | 40 |
| <표 29> 좋은 평판 유지 능력 | 41 |
| <표 30> 의정활동 수행도 | 43 |
| <표 3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원의 의정활동 수행도 | 43 |
| <표 32> 선거 공약 이행 정도 | 45 |
| <표 33>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정도 | 46 |
| <표 34> 의정활동 설명 및 보고의 충실도 | 48 |
| <표 35>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정도 | 49 |
| <표 36> 진주시의회 의원 역량 | 51 |
| <표 37>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회 의원 역량 | 51 |
| <표 38> 정책 개발 및 제안 역량 | 52 |
| <표 39> 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개성 | 53 |
| <표 40> 시의회 및 시의원의 윤리성 | 55 |
| <표 41> 시의회 및 시의원의 전문성 | 56 |
| <표 42> 진주시의회 의원 역할 수행도 | 58 |
| <표 4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회 의원 역할 수행정도 | 58 |
| <표 44>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60 |
| <표 45>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 | 61 |
| <표 4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62 |
| <표 47> 시정질의 | 63 |
| <표 48>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대변 | 64 |
| <표 49> 지역의 갈등 중재 및 조정 | 66 |
| <표 50> 진주시의회 정책기여도 | 68 |
| <표 51> 경제정책에 대한 기여도 | 69 |
| <표 52> 주민복지 정책에 대한 기여도 | 70 |

| | |
|--|----|
| <표 53> 도시 공간 정책에 대한 기여도 | 71 |
| <표 54> 도시 교통 통신망 등 인프라 정책에 대한 기여도 | 72 |
| <표 55> 문화정책에 대한 기여도 | 74 |
| <표 56> 안전방범방재 정책에 대한 기여도 | 75 |
| <표 57>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기여도 | 76 |
| <표 58> 진주시의회 역량 및 역할 강화의 장애 요인 | 78 |
| <표 59> 진주시의회 역량·역할 강화의 장애 요인(1 순위) | 79 |
| <표 60> 의회 역량 강화 장애 요인(2 순위) | 80 |
| <표 61> 진주시의회 역량 강화 방안의 중요도 | 83 |
| <표 62> 시의원의 도덕성 강화의 중요도 | 84 |
| <표 63> 시의원 전문성 강화의 중요도 | 85 |
| <표 64> 집행부 견제 및 비판의 중요도 | 87 |
| <표 65> 독자적 정책대안의 제시와 실현의 중요도 | 88 |
| <표 66> 타지역 지방의회와 교류 강화의 중요도 | 89 |
| <표 67> 중앙정부 협조 끌어내기의 중요도 | 90 |
| <표 68> 주민참여 확대 노력의 중요도 | 91 |
| <표 69> 지방의원간 토의심화 노력의 중요도 | 93 |
| <표 70> 주민소통 확대의 중요도 | 94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지방의회는 지방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합의제 정책결정기구로서 지방자치의 핵심기관임. 지방의회는 단순한 집행기관의 견제기구로서 이해하기보다 민주주의 체제라는 보다 폭 넓은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함.
-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고유사무의 영역보다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의 범위가 폭넓은 단체자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관구성에 있어 집행기관보다 그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음. 그러나 지방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그 역할 수행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음.
-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부터 그 효력이 발휘되고 있는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라 불리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시대가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음.
-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량과 역할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우리의 지방자치는 기존의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가 가진 명확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생활 자치로 나아가 갈 것임을 전제로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책임 하에 일하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길종백·하정봉, 2023).
-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지방의회 제발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10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스스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서 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이러한 법률 개정은 ‘강시장-약의회’ 형태로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 임.
-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제반 활동 및 역할 수행에 관한 선행연구와 언론 등의 보도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많은 것은 엄연한 사실임.
- 그로 인해 많은 시민은 지방의회의 무용론과 함께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회의론과 불신마저 팽배해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한 축으로서 그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 가장 대표적으로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례제정, 예산 심의 및 의결, 결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 되었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민주주의 구현에 있어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에 있어 핵심 동인인 지방의회의 역량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둬.
-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 등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통계적 자료에 기반한 검증을 통해 분석하고자 진주시의회의 활동 전반과 진주시의원의 개별 역량 및 진주시의회의 전체 역량을 주민들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진주시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첫째,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통해 진주시의회의 실태와 위상 등을 살펴보았음. 각종 미디어를 포함하여 지방의회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주민들은 진주시의회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진주시의회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진주시의회의 활동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그리고 진주시의회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음. 즉,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관심도,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인지도,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신뢰도,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만족도의 측정을 통해 진주시의회의 실태를 점검하였음.

- 둘째, 진주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진주시의원의 역량과 의정활동을 살펴보았음. 지방의원의 일탈 행위와 역량 부족에 대한 각종 언론보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지방자치의 무용론으로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체제론적인 측면에서의 변수 설정과 함께 행태론적인 관심에서 지방의원 개별 요소를 주요한 독립변수로 삼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의원의 역량을 소신과 품격을 갖춘 정치인, 집행의 공정한 감시자,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그리고 의정활동 수행도는 선거공약의 이행 정도, 주민의견 수렴 정도, 의정활동 설명 및 보고 정도, 지역 현안의 적극적 추진 정도로 구성하였음.

- 셋째, 전체론적 시각에서 진주시의회의 전반적인 역량을 살펴보고자 진주시의회의 역량, 역할 수행도, 정책기여도를 분석하였음. 진주시의회의 역량은 정책 개발 및 제안,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윤리성, 전문성을 통해 살펴보았음. 진주시의회의 역할 수행도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자치입법권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 집행부 견제와 관련된 예산안 심의 및 결산, 행정감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리고 시정질의,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대응하기 위한 의제형성 기능에 해당하는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지역의 갈등 중재와 조정을 통해 진주시의회의 역할 수행도를 측정하였음. 진주시의회의 정책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정책을 경제정책, 주민복지정책, 도시공간정책, 도시 인프라 정책, 문화정책, 안전 및 방재 정책,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여도를 분석하였음.

- 넷째, 진주시의회에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진주시의원의 개별적 역량을 살펴보고, 진주시의회에 전체적인 역량과 역할 수행정도를 측정 한 후 진주시의회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을 모색하였음. 이를 위해 진주시의회에 역량 및 역할 강화의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다양한 시의회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주민들은 그 중요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방안 중 시의원의 도덕성 강화, 시의원의 전문성 강화, 집행부의 견제 및 비판, 정책대안의 제시와 실현, 타지역 지방의회와의 교류 강화, 중앙정부의 협조 끌어내기, 주민참여 확대 노력, 시의원간 토의심화 노력, 주민 소통의 확대를 진주시의회에 역할 강화방안으로 삼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진주시민의 인식 연구를 통해 진주시의회 역할과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사회조사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진주시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시의원의 역량 및 진주시의회 전체의 역량과 역할 수행 정도를 측정 한 후 진주시의회에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기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t-test, 분산분석 등을 적용하였음.

Ⅱ. 연구의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진주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개별적인 역량과 진주시의회의 전체적인 역량을 분석한 후 그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5일간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설문조사는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부실한 응답 13부를 제외한 287부를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음.
-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이 146명(50.9%), 남성이 141명(49.1%)으로 각각 50%내외로 구성하였음.
- 연령별 표본 분포에서는 모든 세대가 대체로 50명 내외로 고르게 구성되었음. 20대 이하의 표본이 59명(20.9%), 30대의 표본이 51명(19.1%), 40대의 표본이 53명(18.8%), 50대의 표본이 56명(19.9%), 60대 이상이 60명(21.3%)으로 표본을 형성하였음.
- 거주지별 표본 특성에서는 동지역 거주자는 228명(79.7%), 읍면지역 거주자는 58명(20.3%)으로 동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다소 높음.
- 학력별 분포에서는 '전문대 및 대학 재학 및 졸업자'가 199명(69.6%)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표본이 50명(17.5%), '대학원 졸업 및 졸업자'가 37명(12.9%) 임.
- 거주기간에서는 20-30년간 거주한 표본이 76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10-20년간 거주자가 66명(23.0%), 30년 이상의 거주자는 65명(22.6%)으로서 대체적으로 진주시 장기 거주자의 비율이 높음. 그리고 '5년 이하'의 거주자는 26명(9.1%), '5-10년' 거주자는 54명(18.8%)으로 표본을 구성하고 있음.

<표 1> 표본의 특성

| 구분 | | 빈도(명) | 비율(%) |
|-------|-------------------|-------|-------|
| 성별 | 여자 | 146 | 50.9 |
| | 남자 | 141 | 49.1 |
| 연령 | 20대 이하 | 59 | 20.9 |
| | 30대 | 54 | 19.1 |
| | 40대 | 53 | 18.8 |
| | 50대 | 56 | 19.9 |
| | 60대 이상 | 60 | 21.3 |
| 거주지 | 동지역 | 228 | 79.7 |
| | 읍면지역 | 58 | 20.3 |
| 학력 | 고등학교 이하 | 50 | 17.5 |
| | 전문대·대학 재학 및 졸업 | 199 | 69.6 |
| | 대학원 재학 및 졸업 | 37 | 12.9 |
| 거주 기간 | 5년 이하 | 26 | 9.1 |
| | 5-10년 | 54 | 18.8 |
| | 10-20년 | 66 | 23.0 |
| | 20-30년 | 76 | 26.5 |
| | 30년 이상 | 65 | 22.6 |

2. 진주시의회의 전반적인 실태 분석

1)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관심도

- 진주시민들이 진주시의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뉴스 등 미디어를 통한 인지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지도, 의회 공보물을 통한 인지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진주시 의회 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심히 듣는다’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6.6%로서 부정적인 응답자 16.0%에 비해 높았음.

- 진주시 홈페이지의 방문 경험에 대한 응답에서는 ‘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2.5%로서 ‘방문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의 24.0%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진주시의회에서 발행되는 공보물 등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39.3%, 부정적인 응답자가 24.4%로서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음.

<표 2>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 관심도

단위: 명(%)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
| 진주시 의회 관련 뉴스 시 청 및 청취 정도 | 7 (2.4) | 39 (13.6) | 136 (47.4) | 92 (32.1) | 13 (4.5) | 287 (100.0) |
| 진주시 의회나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 경험 | 25 (8.7) | 44 (15.3) | 96 (33.4) | 110 (38.3) | 12 (4.2) | 287 (100.0) |
| 진주시의회 발행 공보물이나 인쇄물 접촉도 | 13 (4.5) | 57 (19.9) | 104 (36.2) | 100 (34.8) | 13 (4.5) | 287 (100.0) |

- 전체적으로 진주시의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부정적인 응답자보다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17로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음. 또한 이러한 관심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운데 ‘60대 이상’이 3.42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3.30), 50대(3.12) 순이었으며, ‘20대 이하’와 40대가 가장 시의회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음.
- 그러므로 진주시의회는 의회 활동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 가운데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접촉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홈페이지의 구성과 활용에 있어 시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관심도

| 구분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 성 별 | 여성 | 146 | 3.148 | 0.790 | -0.530 | 0.596 |
| | 남성 | 141 | 3.196 | 0.734 | | |
| | 전체 | 287 | 3.171 | 0.762 | | |

| 구분 |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연령 | 20대이하 | 59 | 2.994 | 0.824 | 3.839 | 0.005 |
| | 30대 | 54 | 3.302 | 0.664 | | |
| | 40대 | 53 | 2.981 | 0.651 | | |
| | 50대 | 56 | 3.119 | 0.812 | | |
| | 60대이상 | 60 | 3.422 | 0.761 | | |
| | 전체 | 282 | 3.166 | 0.764 | | |
| 거주지 | 동지역 | 228 | 3.157 | 0.760 | -0.538 | 0.591 |
| | 읍지역 | 58 | 3.218 | 0.778 | | |
| | 전체 | 286 | 3.170 | 0.763 | | |
| 학력 | 고졸이하 | 50 | 3.120 | 0.775 | 0.426 | 0.653 |
| | 대졸 | 199 | 3.165 | 0.753 | | |
| | 대학원 졸 | 37 | 3.270 | 0.815 | | |
| | 전체 | 286 | 3.171 | 0.764 |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80 | 3.179 | 0.790 | 0.285 | 0.836 |
| | 10-20년 | 66 | 3.237 | 0.732 | | |
| | 20-30년 | 76 | 3.153 | 0.702 | | |
| | 30년 이상 | 65 | 3.117 | 0.836 | | |
| | 전체 | 287 | 3.171 | 0.762 | | |

(1) 진주시의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관심도

-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드러난 진주시의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대체로 높은 가운데 시민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모든 인구사회적 변수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시민 관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그러므로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거주기간에 상관 없이 진주시민들은 진주시의회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대체로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 진주시의회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도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5 3.4% | 18 12.3% | 70 47.9% | 46 31.5% | 7 4.8% | 146 100.0% | $\chi^2=1.624$ df=4 p=.804 |
| | 남성 | 2 1.4% | 21 14.9% | 66 46.8% | 46 32.6% | 6 4.3% | 141 100.0% | |
| | 전체 | 7 2.4% | 39 13.6% | 136 47.4% | 92 32.1% | 13 4.5%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3 5.1% | 12 20.3% | 26 44.1% | 16 27.1% | 2 3.4% | 59 100.0% | $\chi^2=19.913$ df=16 p=.224 |
| | 30대 | 0 0.0% | 6 11.1% | 31 57.4% | 15 27.8% | 2 3.7% | 54 100.0% | |
| | 40대 | 1 1.9% | 8 15.1% | 30 56.6% | 14 26.4% | 0 0.0% | 53 100.0% | |
| | 50대 | 1 1.8% | 6 10.7% | 24 42.9% | 20 35.7% | 5 8.9% | 56 100.0% | |
| | 60대이상 | 2 3.3% | 6 10.0% | 22 36.7% | 26 43.3% | 4 6.7% | 60 100.0% | |
| | 전체 | 7 2.5% | 38 13.5% | 133 47.2% | 91 32.3% | 13 4.6% | 282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6 2.6% | 31 13.6% | 105 46.1% | 76 33.3% | 10 4.4% | 228 100.0% | $\chi^2=1.563$ df=4 p=.815 |
| | 읍지역 | 1 1.7% | 8 13.8% | 31 53.4% | 15 25.9% | 3 5.2% | 58 100.0% | |
| | 전체 | 7 2.4% | 39 13.6% | 136 47.6% | 91 31.8% | 13 4.5% | 286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2 4.0% | 5 10.0% | 26 52.0% | 16 32.0% | 1 2.0% | 50 100.0% | $\chi^2=12.904$ df=8 p=.115 |
| | 대졸 | 4 2.0% | 29 14.6% | 99 49.7% | 56 28.1% | 11 5.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1 2.7% | 5 13.5% | 10 27.0% | 20 54.1% | 1 2.7% | 37 100.0% | |
| | 전체 | 7 2.4% | 39 13.6% | 135 47.2% | 92 32.2% | 13 4.5% | 286 100.0%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3 3.8% | 10 12.5% | 40 50.0% | 23 28.8% | 4 5.0% | 80 100.0% | $\chi^2= 8.190$ df=12 p=.770 |
| | 10-20년 | 1 1.5% | 8 12.1% | 34 51.5% | 20 30.3% | 3 4.5% | 66 100.0% | |
| | 20-30년 | 0 0.0% | 14 18.4% | 33 43.4% | 27 35.5% | 2 2.6% | 76 100.0% | |
| | 30년 이상 | 3 4.6% | 7 10.8% | 29 44.6% | 22 33.8% | 4 6.2% | 65 100.0% | |
| | 전체 | 7 2.4% | 39 13.6% | 136 47.4% | 92 32.1% | 13 4.5% | 287 100.0% | |

(2) 진주시의회 및 홈페이지 방문 정도

- 진주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한 경험을 묻는 응답에서 대체적으로 ‘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방문 경험의 차이에서는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그러므로 진주시민들은 성, 연령, 학력, 거주지, 거주기간 등과 관련 없이 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 진주시의회 및 홈페이지 방문 경험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5 10.3% | 21 14.4% | 53 36.3% | 50 34.2% | 7 4.8% | 146 100.0% | $\chi^2= 3.289$ df=4 p=.511 |
| | 남성 | 10 7.1% | 23 16.3% | 43 30.5% | 60 42.6% | 5 3.5% | 141 100.0% | |
| | 전체 | 25 8.7% | 44 15.3% | 96 33.4% | 110 38.3% | 12 4.2%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7 11.9% | 11 18.6% | 16 27.1% | 22 37.3% | 3 5.1% | 59 100.0% | $\chi^2=23.348$ df=16 p=.105 |
| | 30대 | 2 3.7% | 6 11.1% | 19 35.2% | 24 44.4% | 3 5.6% | 54 100.0% | |
| | 40대 | 4 7.5% | 11 20.8% | 26 49.1% | 12 22.6% | 0 0.0% | 53 100.0% | |
| | 50대 | 7 12.5% | 11 19.6% | 16 28.6% | 21 37.5% | 1 1.8% | 56 100.0% | |
| | 60대이상 | 5 8.3% | 5 8.3% | 18 30.0% | 27 45.0% | 5 8.3% | 60 100.0% | |
| | 전체 | 25 8.9% | 44 15.6% | 95 33.7% | 106 37.6% | 12 4.3% | 282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22 9.6% | 37 16.2% | 77 33.8% | 81 35.5% | 11 4.8% | 228 100.0% | $\chi^2=4.626$ df=4 p=.328 |
| | 읍지역 | 3 5.2% | 7 12.1% | 19 32.8% | 28 48.3% | 1 1.7% | 58 100.0% | |
| | 전체 | 25 8.7% | 44 15.4% | 96 33.6% | 109 38.1% | 12 4.2% | 286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8 16.0% | 7 14.0% | 16 32.0% | 17 34.0% | 2 4.0% | 50 100.0% | $\chi^2=5.613$ df=8 p=.690 |
| | 대졸 | 15 7.5% | 33 16.6% | 68 34.2% | 75 37.7% | 8 4.0%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2 5.4% | 4 10.8% | 12 32.4% | 17 45.9% | 2 5.4% | 37 100.0% | |
| | 전체 | 25 8.7% | 44 15.4% | 96 33.6% | 109 38.1% | 12 4.2% | 286 100.0%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5 6.3% | 15 18.8% | 23 28.8% | 33 41.3% | 4 5.0% | 80 100.0% | $\chi^2=1.310$ df=12 p=.347 |
| | 10-20년 | 5 7.6% | 11 16.7% | 17 25.8% | 29 43.9% | 4 6.1% | 66 100.0% | |
| | 20-30년 | 5 6.6% | 11 14.5% | 32 42.1% | 27 35.5% | 1 1.3% | 76 100.0% | |
| | 30년 이상 | 10 15.4% | 7 10.8% | 24 36.9% | 21 32.3% | 3 4.6% | 65 100.0% | |
| | 전체 | 25 8.7% | 44 15.3% | 96 33.4% | 110 38.3% | 12 4.2% | 287 100.0% | |

(3) 진주시의회 공보물 등에 대한 관심도

- 진주시의회 공보물의 접촉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접촉도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그러므로 진주시민들은 인구사회적 특성과 관련 없이 진주시 의회에서 발행하는 공보물 등에 대해 대체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6> 진주시의회 공보물 등에 대한 관심도

단위: 명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8 5.5% | 27 18.5% | 55 37.7% | 49 33.6% | 7 4.8% | 146 100.0% | $\chi^2=1.227$ df=4 p=.874 |
| | 남성 | 5 3.5% | 30 21.3% | 49 34.8% | 51 36.2% | 6 4.3% | 141 100.0% | |
| | 전체 | 13 4.5% | 57 19.9% | 104 36.2% | 100 34.8% | 13 4.5%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5 8.5% | 16 27.1% | 19 32.2% | 18 30.5% | 1 1.7% | 59 100.0% | $\chi^2=24.530$ df=16 p=.079 |
| | 30대 | 3 5.6% | 7 13.0% | 18 33.3% | 23 42.6% | 3 5.6% | 54 100.0% | |
| | 40대 | 1 1.9% | 14 26.4% | 23 43.4% | 14 26.4% | 1 1.9% | 53 100.0% | |
| | 50대 | 4 7.1% | 14 25.0% | 18 32.1% | 18 32.1%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0 0.0% | 5 8.3% | 25 41.7% | 25 41.7% | 5 8.3% | 60 100.0% | |
| | 전체 | 13 4.6% | 56 19.9% | 103 36.5% | 98 34.8% | 12 4.3% | 282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10 4.4% | 48 21.1% | 77 33.8% | 85 37.3% | 8 3.5% | 228 100.0% | $\chi^2=6.725$ df=4 p=.151 |
| | 읍지역 | 3 5.2% | 9 15.5% | 26 44.8% | 15 25.9% | 5 8.6% | 58 100.0% | |
| | 전체 | 13 4.5% | 57 19.9% | 103 36.0% | 100 35.0% | 13 4.5% | 286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2 4.0% | 9 18.0% | 19 38.0% | 16 32.0% | 4 8.0% | 50 100.0% | $\chi^2= 8.570$ df=8 p=.380 |
| | 대졸 | 7 3.5% | 44 22.1% | 68 34.2% | 72 36.2% | 8 4.0%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4 10.8% | 4 10.8% | 16 43.2% | 12 32.4% | 1 2.7% | 37 100.0% | |
| | 전체 | 13 4.5% | 57 19.9% | 103 36.0% | 100 35.0% | 13 4.5% | 286 100.0% | |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6 7.5% | 12 15.0% | 29 36.3% | 30 37.5% | 3 3.8% | 80 100.0% | $\chi^2=5.960$ df=12 p=.918 |
| | 10-20년 | 1 1.5% | 14 21.2% | 24 36.4% | 23 34.8% | 4 6.1% | 66 100.0% | |
| | 20-30년 | 3 3.9% | 15 19.7% | 30 39.5% | 25 32.9% | 3 3.9% | 76 100.0% | |
| | 30년 이상 | 3 4.6% | 16 24.6% | 21 32.3% | 22 33.8% | 3 4.6% | 65 100.0% | |
| | 전체 | 13 4.5% | 57 19.9% | 104 36.2% | 100 34.8% | 13 4.5% | 287 100.0% | |

2)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인지도

- 진주시민들이 진주시 의회의 기능과 활동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지도, 조례에 대한 인지도, 의회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인지도로 구분하였음.
- 진주시의회는 일상적이면서 주요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해당 활동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9.9%로서 ‘잘 모른다’는 응답자의 29.2%보다 다소 높았으나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그러므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 정도는 그렇게 높지 않음.
- 진주시의회는 입법 활동인 조례안 처리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인지도에서는 인지 정도가 높은 응답자가 23.1%, 인지도가 낮은 응답자가 32.0%로서 진주시 의회에서 처리되는 조례에 대해 대체적으로 이해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즉,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내용을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이는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생활과 크게 관련이 없거나 혹은 의회의 홍보 기능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의회의 조직, 기능, 역할 등 의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32.9%, 부정적인 응답자가 31.4%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35.7%로서 진주시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주민 인지도는 높지 않은 수준임.

<표 7>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인지도

명(%)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
|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지도 | 32 (11.1) | 52 (18.1) | 117 (40.8) | 73 (25.4) | 13 (4.5) | 287 (100.0) |
|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에 대한 인지도 | 34 (11.8) | 58 (20.2) | 126 (43.9) | 57 (19.9) | 12 (4.2) | 287 (100.0) |
| 의회의 조직,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인지도 | 31 (10.8) | 59 (20.6) | 102 (35.7) | 74 (25.9) | 20 (7.0) | 286 (100.0) |

○ 한편, 전체적인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인지도를 살펴보면, 평균 2.92로서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주민인지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민인지도가 높음. 특히 남성의 경우 2.77로서 의회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가장 인지도가 높은 가운데 '20대 이하'의 인지도가 매우 낮음. 그러므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주시의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표 8>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회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성 별 | 여성 | 146 | 3.057 | 0.966 | 2.506 | 0.013 |
| | 남성 | 140 | 2.773 | 0.943 | | |
| | 전체 | 286 | 2.918 | 0.964 | | |
| 연 령 | 20대이하 | 59 | 2.627 | 0.914 | 2.905 | 0.022 |
| | 30대 | 54 | 3.018 | 1.082 | | |
| | 40대 | 52 | 3.006 | 0.929 | | |
| | 50대 | 56 | 2.744 | 0.990 | | |
| | 60대이상 | 60 | 3.138 | 0.835 | | |
| | 전체 | 281 | 2.905 | 0.964 | | |
| 거 주 지 | 동지역 | 227 | 2.879 | 0.977 | -1.254 | 0.211 |
| | 읍지역 | 58 | 3.057 | 0.907 | | |
| | 전체 | 285 | 2.915 | 0.964 | | |

| 구분 |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학 력 | 고졸이하 | 50 | 2.866 | 1.108 | 0.090 | 0.914 |
| | 대졸 | 198 | 2.924 | 0.947 | | |
| | 대학원 졸 | 37 | 2.945 | 0.876 | | |
| | 전체 | 285 | 2.917 | 0.965 |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80 | 2.733 | 0.972 | 1.528 | 0.207 |
| | 10-20년 | 66 | 3.020 | 0.967 | | |
| | 20-30년 | 76 | 3.021 | 0.888 | | |
| | 30년 이상 | 64 | 2.921 | 1.023 | | |
| | 전체 | 286 | 2.918 | 0.964 | | |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진주시의회의 활동 등에 대한 주민인지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진주시의회에서 처리되는 조례에 대한 주민 인지도는 특히 낮음. 그러므로 향후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진주시의회를 소개하는 등 시민들이 진주시의회의 활동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지도

○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정도는 주민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거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이는 진주시민들의 특성과 관련 없이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시의회의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의미함

<표 9>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5 10.3% | 22 15.1% | 63 43.2% | 39 26.7% | 7 4.8% | 146 100.0% | $\chi^2=2.381$ df=4 p=.666 |
| | 남성 | 17 12.1% | 30 21.3% | 54 38.3% | 34 24.1% | 6 4.3% | 141 100.0% | |
| | 전체 | 32 11.1% | 52 18.1% | 117 40.8% | 73 25.4% | 13 4.5% | 287 100.0% | |

| | | | | | | | | |
|------|--------|-------------|-------------|--------------|-------------|------------|---------------|------------------------------------|
| 연령 | 20대이하 | 9 15.3% | 15 25.4% | 24 40.7% | 9 15.3% | 2 3.4% | 59 100.0% | $\chi^2=21.981$ df=16 p=.144 |
| | 30대 | 8 14.8% | 9 16.7% | 18 33.3% | 17 31.5% | 2 3.7% | 54 100.0% | |
| | 40대 | 4 7.5% | 11 20.8% | 24 45.3% | 12 22.6% | 2 3.8% | 53 100.0% | |
| | 50대 | 9 16.1% | 12 21.4% | 19 33.9% | 14 25.0%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2 3.3% | 4 6.7% | 30 50.0% | 20 33.3% | 4 6.7% | 60 100.0% | |
| | 전체 | 32 11.3% | 51 18.1% | 115 40.8% | 72 25.5% | 12 4.3%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28 12.3% | 42 18.4% | 93 40.8% | 55 24.1% | 10 4.4% | 228 100.0% | $\chi^2=2.176$ df=4 p=.703 |
| | 읍지역 | 4 6.9% | 10 17.2% | 23 39.7% | 18 31.0% | 3 5.2% | 58 100.0% | |
| | 전체 | 32 11.2% | 52 18.2% | 116 40.6% | 73 25.5% | 13 4.5%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9 18.0% | 6 12.0% | 16 32.0% | 16 32.0% | 3 6.0% | 50 100.0% | $\chi^2=6.818$ df=8 p=.556 |
| | 대졸 | 20 10.1% | 39 19.6% | 84 42.2% | 47 23.6% | 9 4.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3 8.1% | 7 18.9% | 17 45.9% | 9 24.3% | 1 2.7% | 37 100.0% | |
| | 전체 | 32 11.2% | 52 18.2% | 117 40.9% | 72 25.2% | 13 4.5%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11 13.8% | 17 21.3% | 31 38.8% | 20 25.0% | 1 1.3% | 80 100.0% | $\chi^2=11.028$ df=12 p=.527 |
| | 10-20년 | 8 12.1% | 8 12.1% | 29 43.9% | 18 27.3% | 3 4.5% | 66 100.0% | |
| | 20-30년 | 4 5.3% | 16 21.1% | 35 46.1% | 16 21.1% | 5 6.6% | 76 100.0% | |
| | 30년 이상 | 9 13.8% | 11 16.9% | 22 33.8% | 19 29.2% | 4 6.2% | 65 100.0% | |
| | 전체 | 32 11.1% | 52 18.1% | 117 40.8% | 73 25.4% | 13 4.5% | 287 100.0% | |

(2) 조례 처리에 대한 인지도

○ 진주시의회에서 처리되는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인지 정도를 주민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의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그러므로 진주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진주시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조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됨.

○ 이는 주민들이 조례안의 내용과 처리에 대해 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에서 처리되는 일반적인 조례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표 10> 조례 처리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15 10.3% | 24 16.4% | 62 42.5% | 37 25.3% | 8 5.5% | 146 100.0% | $\chi^2=8.545$ df=4 p=.074 |
| | 남성 | 19 13.5% | 34 24.1% | 64 45.4% | 20 14.2% | 4 2.8% | 141 100.0% | |
| | 전체 | 34 11.8% | 58 20.2% | 126 43.9% | 57 19.9% | 12 4.2% | 287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9 15.3% | 18 30.5% | 26 44.1% | 5 8.5% | 1 1.7% | 59 100.0% | $\chi^2=28.692$ df=16 p=.026 |
| | 30대 | 7 13.0% | 11 20.4% | 15 27.8% | 18 33.3% | 3 5.6% | 54 100.0% | |
| | 40대 | 4 7.5% | 10 18.9% | 24 45.3% | 14 26.4% | 1 1.9% | 53 100.0% | |
| | 50대 | 9 16.1% | 11 19.6% | 29 51.8% | 5 8.9%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5 8.3% | 8 13.3% | 31 51.7% | 12 20.0% | 4 6.7% | 60 100.0% | |
| | 전체 | 34 12.1% | 58 20.6% | 125 44.3% | 54 19.1% | 11 3.9%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29 12.7% | 47 20.6% | 99 43.4% | 44 19.3% | 9 3.9% | 228 100.0% | $\chi^2=1.029$ df=4 p=.905 |
| | 읍지역 | 5 8.6% | 11 19.0% | 27 46.6% | 12 20.7% | 3 5.2% | 58 100.0% | |
| | 전체 | 34 11.9% | 58 20.3% | 126 44.1% | 56 19.6% | 12 4.2%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11 22.0% | 6 12.0% | 19 38.0% | 12 24.0% | 2 4.0% | 50 100.0% | $\chi^2=8.831$ df=8 p=.357 |
| | 대졸 | 19 9.5% | 44 22.1% | 88 44.2% | 39 19.6% | 9 4.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4 10.8% | 8 21.6% | 18 48.6% | 6 16.2% | 1 2.7% | 37 100.0% | |
| | 전체 | 34 11.9% | 58 20.3% | 125 43.7% | 57 19.9% | 12 4.2%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14 17.5% | 17 21.3% | 36 45.0% | 11 13.8% | 2 2.5% | 80 100.0% | $\chi^2=10.652$ df=12 p=.559 |
| | 10-20년 | 7 10.6% | 11 16.7% | 30 45.5% | 14 21.2% | 4 6.1% | 66 100.0% | |
| | 20-30년 | 5 6.6% | 15 19.7% | 37 48.7% | 15 19.7% | 4 5.3% | 76 100.0% | |
| | 30년 이상 | 8 12.3% | 15 23.1% | 23 35.4% | 17 26.2% | 2 3.1% | 65 100.0% | |
| | 전체 | 34 11.8% | 58 20.2% | 126 43.9% | 57 19.9% | 12 4.2% | 287 100.0% | |

(3) 의회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인지도

- 진주시의회는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주민의 이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음. 그리고 이 같은 이해도는 주민의 인구사회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였음.
- 성별에 따른 의회의 조직, 기능, 역할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여성의 경우 이해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39.5%였으나 남성 표본에서는 25.0%에 그쳤음.

<표 11> 의회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2 8.2% | 26 17.8% | 49 33.6% | 43 29.5% | 16 11.0% | 146 100.0% | $\chi^2=11.593$ df=4 p=.021 |
| | 남성 | 19 13.6% | 33 23.6% | 53 37.9% | 31 22.1% | 4 2.9% | 140 100.0% | |
| | 전체 | 31 10.8% | 59 20.6% | 102 35.7% | 74 25.9% | 20 7.0% | 286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8 13.6% | 17 28.8% | 19 32.2% | 14 23.7% | 1 1.7% | 59 100.0% | $\chi^2=22.962$ df=16 p=.115 |
| | 30대 | 6 11.1% | 11 20.4% | 13 24.1% | 17 31.5% | 7 13.0% | 54 100.0% | |
| | 40대 | 4 7.7% | 12 23.1% | 15 28.8% | 15 28.8% | 6 11.5% | 52 100.0% | |
| | 50대 | 9 16.1% | 8 14.3% | 27 48.2% | 9 16.1% | 3 5.4% | 56 100.0% | |
| | 60대이상 | 4 6.7% | 11 18.3% | 26 43.3% | 16 26.7% | 3 5.0% | 60 100.0% | |
| | 전체 | 31 11.0% | 59 21.0% | 100 35.6% | 71 25.3% | 20 7.1% | 281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29 12.8% | 45 19.8% | 80 35.2% | 58 25.6% | 15 6.6% | 227 100.0% | $\chi^2=.472$ df=4 p=.346 |
| | 읍지역 | 2 3.4% | 14 24.1% | 22 37.9% | 15 25.9% | 5 8.6% | 58 100.0% | |
| | 전체 | 31 10.9% | 59 20.7% | 102 35.8% | 73 25.6% | 20 7.0% | 285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10 20.0% | 6 12.0% | 17 34.0% | 14 28.0% | 3 6.0% | 50 100.0% | $\chi^2= 10.692$ df=8 p=.220 |
| | 대졸 | 19 9.6% | 46 23.2% | 67 33.8% | 53 26.8% | 13 6.6% | 198 100.0% | |
| | 대학원 졸 | 2 5.4% | 7 18.9% | 17 45.9% | 7 18.9% | 4 10.8% | 37 100.0% | |
| | 전체 | 31 10.9% | 59 20.7% | 101 35.4% | 74 26.0% | 20 7.0% | 285 100.0% | |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11 13.8% | 21 26.3% | 26 32.5% | 18 22.5% | 4 5.0% | 80 100.0% | $\chi^2=13.590$ df=12 p=.328 |
| | 10-20년 | 7 10.6% | 10 15.2% | 25 37.9% | 17 25.8% | 7 10.6% | 66 100.0% | |
| | 20-30년 | 4 5.3% | 18 23.7% | 30 39.5% | 17 22.4% | 7 9.2% | 76 100.0% | |
| | 30년 이상 | 9 14.1% | 10 15.6% | 21 32.8% | 22 34.4% | 2 3.1% | 64 100.0% | |
| | 전체 | 31 10.8% | 59 20.6% | 102 35.7% | 74 25.9% | 20 7.0% | 286 100.0% | |

3)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도

- 진주시의회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문항의 응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25.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2.8%로서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도는 다소 낮은 편임. 주민들이 유효하게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낮은 주민신뢰도는 일정한 위협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진주시의회의 신뢰도 제고 노력은 지방자치 강화의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임.
- 이 같은 진주시의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주민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거주기간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성별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20.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8%으로 신뢰도가 매우 낮았음. 그러나 남성 응답자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29.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1.2%로서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러므로 성별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
- 연령별 진주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22.0%, 부정적인 응답이 25.4%로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음. 30대에서는 신뢰한다는 반응이 16.7%,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42.6%로서 진주시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음. 40대에서는 신뢰도를 높이 평가한 응답자가 17.0%, 신뢰도를 낮게 평가한 응답자가 39.6%로서 의회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낮았음.

50대의 연령에서는 진주시의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16.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9.3%로서 신뢰의 수준이 낮았음. 그러나 60대 이상의 응답에서는 진주시의회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53.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0.0%로서 신뢰도가 수준이 상당한 높았음. 그러므로 진주시의회에 대해 30-50대의 연령층은 신뢰도가 낮았으나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대체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

- 진주시 거주기간에 따른 시의회에 대한 신뢰도 차이를 살펴보면, ‘10년 미만’의 단기간 거주자들은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27.6%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16.3%보다 다소 높았음. 10-20년 거주자들의 응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27.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3.3%로서 신뢰도가 낮은 주민 비율이 다소 높음. 20-30년의 거주자 층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응답자가 25.0%, 신뢰도가 낮은 응답자가 40.8%로서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3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신뢰도가 높은 응답자가 20.0%, 신뢰도가 낮은 응답자가 43.1%로서 진주시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긴 주민일수록 진주시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12> 진주시의회에 대한 신뢰도

| 구분 | | 전혀 신뢰치 않는다 | 신뢰하지 않는다 | 보통 | 신뢰한다 | 매우 신뢰한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13 8.9% | 51 34.9% | 52 35.6% | 21 14.4% | 9 6.2% | 146 100.0% | $\chi^2=18.064$ df=4 p=.001 |
| | 남성 | 3 2.1% | 27 19.1% | 69 48.9% | 31 22.0% | 11 7.8% | 141 100.0% | |
| | 전체 | 16 5.6% | 78 27.2% | 121 42.2% | 52 18.1% | 20 7.0% | 287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1 1.7% | 14 23.7% | 31 52.5% | 12 20.3% | 1 1.7% | 59 100.0% | $\chi^2=61.684$ df=16 p=.000 |
| | 30대 | 4 7.4% | 19 35.2% | 22 40.7% | 9 16.7% | 0 0.0% | 54 100.0% | |
| | 40대 | 2 3.8% | 19 35.8% | 23 43.4% | 8 15.1% | 1 1.9% | 53 100.0% | |
| | 50대 | 6 10.7% | 16 28.6% | 25 44.6% | 7 12.5%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3 5.0% | 9 15.0% | 16 26.7% | 16 26.7% | 16 26.7% | 60 100.0% | |
| | 전체 | 16 5.7% | 77 27.3% | 117 41.5% | 52 18.4% | 20 7.1% | 282 100.0% | |

| 구분 | | 전혀 신뢰치 않는다 | 신뢰 하지 않는다 | 보통 | 신뢰 한다 | 매우 신뢰 한다 | 전체 | χ^2 , df, p |
|------|--------|------------------|-----------------|--------------|-------------|----------------|---------------|------------------------------------|
| 거주지 | 동지역 | 14 6.1% | 69 30.3% | 92 40.4% | 40 17.5% | 13 5.7% | 228 100.0% | $\chi^2=8.036$ df=4 p=.090 |
| | 읍지역 | 2 3.4% | 9 15.5% | 29 50.0% | 11 19.0% | 7 12.1% | 58 100.0% | |
| | 전체 | 16 5.6% | 78 27.3% | 121 42.3% | 51 17.8% | 20 7.0%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5 10.0% | 15 30.0% | 18 36.0% | 7 14.0% | 5 10.0% | 50 100.0% | $\chi^2=7.344$ df=8 p=.500 |
| | 대졸 | 10 5.0% | 55 27.6% | 84 42.2% | 39 19.6% | 11 5.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1 2.7% | 8 21.6% | 19 51.4% | 5 13.5% | 4 10.8% | 37 100.0% | |
| | 전체 | 16 5.6% | 78 27.3% | 121 42.3% | 51 17.8% | 20 7.0%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1 1.3% | 12 15.0% | 45 56.3% | 15 18.8% | 7 8.8% | 80 100.0% | $\chi^2=42.287$ df=12 p=.000 |
| | 10-20년 | 2 3.0% | 20 30.3% | 26 39.4% | 15 22.7% | 3 4.5% | 66 100.0% | |
| | 20-30년 | 1 1.3% | 30 39.5% | 26 34.2% | 13 17.1% | 6 7.9% | 76 100.0% | |
| | 30년 이상 | 12 18.5% | 16 24.6% | 24 36.9% | 9 13.8% | 4 6.2% | 65 100.0% | |
| | 전체 | 16 5.6% | 78 27.2% | 121 42.2% | 52 18.1% | 20 7.0% | 287 100.0% | |

4)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만족도

- 진주시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25.4%,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28.3%, ‘보통’을 표시한 응답자가 46.3%로서 주민 만족도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음.
- 주민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시의회에 대한 만족도 차이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거주기간의 경우 대체적으로 진주시에 장기간 거주한 주민일수록 만족도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남. 예를 들어, 10년미만의 단기 거주자의 경우 응답자의 38.8%가 진주시 의회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30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의 응답에서는 15.3%의 응답자만이 이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음.

<표 13>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만족도

| 구분 | | 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보통 | 비교적 만족 | 매우 만족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3 8.9% | 38 26.0% | 64 43.8% | 30 20.5% | 1 0.7% | 146 100.0% | $\chi^2=8.103$ df=4 p=.088 |
| | 남성 | 5 3.5% | 25 17.7% | 69 48.9% | 40 28.4% | 2 1.4% | 141 100.0% | |
| | 전체 | 18 6.3% | 63 22.0% | 133 46.3% | 70 24.4% | 3 1.0%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4 6.8% | 9 15.3% | 30 50.8% | 15 25.4% | 1 1.7% | 59 100.0% | $\chi^2=24.871$ df=16 p=.072 |
| | 30대 | 2 3.7% | 19 35.2% | 22 40.7% | 11 20.4% | 0 0.0% | 54 100.0% | |
| | 40대 | 3 5.7% | 15 28.3% | 22 41.5% | 13 24.5% | 0 0.0% | 53 100.0% | |
| | 50대 | 6 10.7% | 15 26.8% | 27 48.2% | 7 12.5% | 1 1.8% | 56 100.0% | |
| | 60대이상 | 2 3.3% | 5 8.3% | 31 51.7% | 21 35.0% | 1 1.7% | 60 100.0% | |
| | 전체 | 17 6.0% | 63 22.3% | 132 46.8% | 67 23.8% | 3 1.1% | 282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15 6.6% | 55 24.1% | 106 46.5% | 50 21.9% | 2 0.9% | 228 100.0% | $\chi^2=4.949$ df=4 p=.293 |
| | 읍지역 | 3 5.2% | 8 13.8% | 27 46.6% | 19 32.8% | 1 1.7% | 58 100.0% | |
| | 전체 | 18 6.3% | 63 22.0% | 133 46.5% | 69 24.1% | 3 1.0% | 286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6 12.0% | 12 24.0% | 18 36.0% | 13 26.0% | 1 2.0% | 50 100.0% | $\chi^2=8.760$ df=8 p=.363 |
| | 대졸 | 11 5.5% | 43 21.6% | 94 47.2% | 50 25.1% | 1 0.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1 2.7% | 8 21.6% | 21 56.8% | 6 16.2% | 1 2.7% | 37 100.0% | |
| | 전체 | 18 6.3% | 63 22.0% | 133 46.5% | 69 24.1% | 3 1.0% | 286 100.0%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3 3.8% | 10 12.5% | 36 45.0% | 30 37.5% | 1 1.3% | 80 100.0% | $\chi^2=25.464$ df=12 p=.013 |
| | 10-20년 | 3 4.5% | 13 19.7% | 35 53.0% | 15 22.7% | 0 0.0% | 66 100.0% | |
| | 20-30년 | 3 3.9% | 24 31.6% | 32 42.1% | 16 21.1% | 1 1.3% | 76 100.0% | |
| | 30년 이상 | 9 13.8% | 16 24.6% | 30 46.2% | 9 13.8% | 1 1.5% | 65 100.0% | |
| | 전체 | 18 6.3% | 63 22.0% | 133 46.3% | 70 24.4% | 3 1.0% | 287 100.0% | |

2. 진주시의원의 역량과 의정활동

1) 진주시의원의 역량

(1) 소신과 품격을 갖춘 정치인

- 진주시의원의 역량 중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는가를 분석하였음. 먼저, 정치적 소신의 정도에서는 ‘소신이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25.5%로서 부정적인 응답의 23.7%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또한 전체 응답중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50.7%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므로 진주시의원이 확고한 정치적 소신을 갖추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주민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시의원의 미래 비전제시 능력에 대한 주민 응답 결과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29.6%, 부정적인 응답이 24.4%로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46.0%를 차지함. 그러므로 미래 비전제시 능력에 대한 주민 인식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표 14> 소신과 품격을 갖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명(%)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
| 확고한 정치적 소신 | 23 (8.0) | 45 (15.7) | 145 (50.7) | 64 (22.4) | 9 (3.1) | 286 (100.0) |
| 진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능력 | 17 (5.9) | 53 (18.5) | 132 (46.0) | 79 (27.5) | 6 (2.1) | 287 (100.0) |
|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 16 (5.6) | 48 (16.8) | 123 (43.2) | 88 (30.9) | 10 (3.5) | 285 (100.0) |
| 품성과 인격 면에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으며 솔선수범하는 능력 | 16 (5.6) | 48 (16.8) | 123 (43.2) | 88 (30.9) | 10 (3.5) | 285 (100.0) |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능력에 대한 응답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34.4%,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22.4%로서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높음. 이는 시의원들은 다양한 개별 역량 중 지역사회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소 친화적 소양을 갖춘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타인을 존중하고 솔선수범하는 능력에 대한 응답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능력과 동일한 응답 결과를 보였음.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34.4%, 부정적인 응답이 22.4%로서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솔선수범의 자세에 대한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높음. 즉, 주민들은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전체적인 진주시의원의 소신과 품격을 갖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살펴보면, 평균 3.03으로서 보통의 수준을 보였음.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를 더욱 우수하게 평가 하였고,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에서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음.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동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비해 높았고, 거주기간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시의원의 정치적 역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

<표 15>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원의 소신과 품격을 갖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인식

| 구분 |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성 별 | 여성 | 146 | 2.945 | 0.866 | -1.973 | 0.049 |
| | 남성 | 138 | 3.128 | 0.694 | | |
| | 전체 | 284 | 3.034 | 0.791 | | |
| 연 령 | 20대이하 | 59 | 3.114 | 0.593 | 4.135 | 0.003 |
| | 30대 | 54 | 2.902 | 0.876 | | |
| | 40대 | 52 | 3.014 | 0.748 | | |
| | 50대 | 54 | 2.763 | 0.865 | | |
| | 60대이상 | 60 | 3.316 | 0.795 | | |
| | 전체 | 279 | 3.030 | 0.797 | | |
| 거 주 지 | 동지역 | 227 | 2.944 | 0.790 | -4.167 | 0.000 |
| | 읍지역 | 56 | 3.392 | 0.702 | | |
| | 전체 | 283 | 3.033 | 0.792 | | |
| 학 력 | 고졸이하 | 48 | 3.057 | 0.827 | 0.393 | 0.676 |
| | 대졸 | 199 | 3.046 | 0.802 | | |
| | 대학원 졸 | 36 | 2.923 | 0.696 | | |
| | 전체 | 283 | 3.032 | 0.792 | | |

| 구분 |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80 | 3.212 | 0.671 | 9.609 | 0.000 |
| | 10-20년 | 66 | 3.227 | 0.712 | | |
| | 20-30년 | 74 | 3.037 | 0.806 | | |
| | 30년 이상 | 64 | 2.609 | 0.842 | | |
| | 전체 | 284 | 3.034 | 0.791 | | |

① 확고한 정치적 소신

-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중 확고한 정치적 소신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에 대한 응답을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음. 그 결과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운데 대체적으로 ‘30년 이상’ 진주시에서 거주한 주민들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고, ‘10-20년’간 거주한 주민들이 가장 긍정적임.
-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16.9%인데 비해 부정적인 응답은 38.5%를 차지하였으나 10-20년 거주한 주민의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4.8%로서 부정적인 응답 18.2%보다 월등히 높음. 그러므로 장기 거주 주민들은 시의원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16> 진주시의원의 확고한 정치적 소신 정도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15 10.3% | 25 17.1% | 65 44.5% | 35 24.0% | 6 4.1% | 146 100.0% | $\chi^2=5.677$ df=4 p=.225 |
| | 남성 | 8 5.7% | 20 14.3% | 80 57.1% | 29 20.7% | 3 2.1% | 140 100.0% | |
| | 전체 | 23 8.0% | 45 15.7% | 145 50.7% | 64 22.4% | 9 3.1% | 286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4 6.8% | 7 11.9% | 27 45.8% | 18 30.5% | 3 5.1% | 59 100.0% | $\chi^2=20.119$ df=16 p=.215 |
| | 30대 | 6 11.1% | 10 18.5% | 30 55.6% | 5 9.3% | 3 5.6% | 54 100.0% | |
| | 40대 | 3 5.7% | 10 18.9% | 30 56.6% | 10 18.9% | 0 0.0% | 53 100.0% | |
| | 50대 | 6 10.9% | 13 23.6% | 22 40.0% | 13 23.6% | 1 1.8% | 55 100.0% | |
| | 60대이상 | 4 6.7% | 5 8.3% | 32 53.3% | 17 28.3% | 2 3.3% | 60 100.0% | |
| | 전체 | 23 8.2% | 45 16.0% | 141 50.2% | 63 22.4% | 9 3.2% | 281 100.0% | |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거주지 | 동지역 | 21 9.2% | 41 18.0% | 111 48.7% | 48 21.1% | 7 3.1% | 228 100.0% | $\chi^2=7.103$ df=4 p=.131 |
| | 읍지역 | 2 3.5% | 4 7.0% | 33 57.9% | 16 28.1% | 2 3.5% | 57 100.0% | |
| | 전체 | 23 8.1% | 45 15.8% | 144 50.5% | 64 22.5% | 9 3.2% | 285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5 10.0% | 5 10.0% | 25 50.0% | 14 28.0% | 1 2.0% | 50 100.0% | $\chi^2=8.059$ df=8 p=.428 |
| | 대졸 | 16 8.0% | 32 16.1% | 97 48.7% | 46 23.1% | 8 4.0%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2 5.6% | 8 22.2% | 22 61.1% | 4 11.1% | 0 0.0% | 36 100.0% | |
| | 전체 | 23 8.1% | 45 15.8% | 144 50.5% | 64 22.5% | 9 3.2% | 285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6 7.5% | 4 5.0% | 50 62.5% | 17 21.3% | 3 3.8% | 80 100.0% | $\chi^2=22.695$ df=12 p=.030 |
| | 10-20년 | 5 7.6% | 7 10.6% | 31 47.0% | 20 30.3% | 3 4.5% | 66 100.0% | |
| | 20-30년 | 5 6.7% | 16 21.3% | 35 46.7% | 17 22.7% | 2 2.7% | 75 100.0% | |
| | 30년 이상 | 7 10.8% | 18 27.7% | 29 44.6% | 10 15.4% | 1 1.5% | 65 100.0% | |
| | 전체 | 23 8.0% | 45 15.7% | 145 50.7% | 64 22.4% | 9 3.1% | 286 100.0% | |

② 미래 비전 제시 능력

- 시의원들의 역량 중 미래 비전 제시 능력에 대한 응답에서는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에 따라 인식 차이를 보였음. 연령의 경우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더욱 부정적이었음.
- 거주지에 따른 차이에서는 동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응답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응답보다 부정적이었음. 동지역 주민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자가 27.3%였으나 읍·면지역 주민의 응답에서는 41.3%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 됨.
-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긴 주민들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 특히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경우 응답자의 49.2%가 시의원의 미래비전 제시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표 17> 진주시의원의 미래비전 제시 능력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0 6.8% | 33 22.6% | 60 41.1% | 40 27.4% | 3 2.1% | 146 100.0% | $\chi^2=4.736$ df=4 p=.315 |
| | 남성 | 7 5.0% | 20 14.2% | 72 51.1% | 39 27.7% | 3 2.1% | 141 100.0% | |
| | 전체 | 17 5.9% | 53 18.5% | 132 46.0% | 79 27.5% | 6 2.1%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2 3.4% | 3 5.1% | 34 57.6% | 20 33.9% | 0 0.0% | 59 100.0% | $\chi^2=36.503$ df=16 p=.002 |
| | 30대 | 3 5.6% | 14 25.9% | 22 40.7% | 13 24.1% | 2 3.7% | 54 100.0% | |
| | 40대 | 3 5.7% | 10 18.9% | 30 56.6% | 9 17.0% | 1 1.9% | 53 100.0% | |
| | 50대 | 6 10.7% | 20 35.7% | 18 32.1% | 11 19.6% | 1 1.8% | 56 100.0% | |
| | 60대이상 | 3 5.0% | 6 10.0% | 26 43.3% | 23 38.3% | 2 3.3% | 60 100.0% | |
| | 전체 | 17 6.0% | 53 18.8% | 130 46.1% | 76 27.0% | 6 2.1% | 282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14 6.1% | 50 21.9% | 103 45.2% | 57 25.0% | 4 1.8% | 228 100.0% | $\chi^2=10.608$ df=4 p=.031 |
| | 읍지역 | 3 5.2% | 3 5.2% | 28 48.3% | 22 37.9% | 2 3.4% | 58 100.0% | |
| | 전체 | 17 5.9% | 53 18.5% | 131 45.8% | 79 27.6% | 6 2.1% | 286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4 8.0% | 10 20.0% | 21 42.0% | 15 30.0% | 0 0.0% | 50 100.0% | $\chi^2=4.538$ df=8 p=.806 |
| | 대졸 | 11 5.5% | 34 17.1% | 95 47.7% | 53 26.6% | 6 3.0%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2 5.4% | 9 24.3% | 16 43.2% | 10 27.0% | 0 0.0% | 37 100.0% | |
| | 전체 | 17 5.9% | 53 18.5% | 132 46.2% | 78 27.3% | 6 2.1% | 286 100.0%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5 6.3% | 2 2.5% | 42 52.5% | 30 37.5% | 1 1.3% | 80 100.0% | $\chi^2=41.650$ df=12 p=.000 |
| | 10-20년 | 2 3.0% | 9 13.6% | 34 51.5% | 19 28.8% | 2 3.0% | 66 100.0% | |
| | 20-30년 | 4 5.3% | 16 21.1% | 33 43.4% | 21 27.6% | 2 2.6% | 76 100.0% | |
| | 30년 이상 | 6 9.2% | 26 40.0% | 23 35.4% | 9 13.8% | 1 1.5% | 65 100.0% | |
| | 전체 | 17 5.9% | 53 18.5% | 132 46.0% | 79 27.5% | 6 2.1% | 287 100.0% | |

③ 사회적 공감대 형성 능력

- 시의원의 역량 중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가운데 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였음.

-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정적이었음. 여성 응답자의 30.8%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남성의 경우는 38.2%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능력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음.
- 연령별 차이에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50.0%를 차지하는 등 해당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한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이를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기간 별 차이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은 주민들이 시의원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능력을 우수하게 평가하였음. 그러나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응답에서는 46.9%가 부정적으로 답하였음.

<표 18> 진주시의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능력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4 9.6% | 28 19.2% | 59 40.4% | 38 26.0% | 7 4.8% | 146 100.0% | $\chi^2=13.609$ df=4 p=.009 |
| | 남성 | 2 1.4% | 20 14.4% | 64 46.0% | 50 36.0% | 3 2.2% | 139 100.0% | |
| | 전체 | 16 5.6% | 48 16.8% | 123 43.2% | 88 30.9% | 10 3.5% | 285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1 1.7% | 11 18.6% | 32 54.2% | 15 25.4% | 0 0.0% | 59 100.0% | $\chi^2=34.666$ df=16 p=.004 |
| | 30대 | 6 11.1% | 10 18.5% | 18 33.3% | 18 33.3% | 2 3.7% | 54 100.0% | |
| | 40대 | 4 7.7% | 5 9.6% | 25 48.1% | 15 28.8% | 3 5.8% | 52 100.0% | |
| | 50대 | 2 3.6% | 17 30.9% | 23 41.8% | 13 23.6% | 0 0.0% | 55 100.0% | |
| | 60대이상 | 3 5.0% | 3 5.0% | 24 40.0% | 25 41.7% | 5 8.3% | 60 100.0% | |
| | 전체 | 16 5.7% | 46 16.4% | 122 43.6% | 86 30.7% | 10 3.6% | 280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14 6.2% | 45 19.8% | 98 43.2% | 63 27.8% | 7 3.1% | 227 100.0% | $\chi^2=10.728$ df=4 p=.030 |
| | 읍지역 | 2 3.5% | 3 5.3% | 24 42.1% | 25 43.9% | 3 5.3% | 57 100.0% | |
| | 전체 | 16 5.6% | 48 16.9% | 122 43.0% | 88 31.0% | 10 3.5% | 284 100.0% | |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학 력 | 고졸이하 | 5 10.4% | 5 10.4% | 19 39.6% | 18 37.5% | 1 2.1% | 48 100.0% | $\chi^2=8.833$ df=8 p=.357 |
| | 대졸 | 10 5.0% | 34 17.1% | 86 43.2% | 60 30.2% | 9 4.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1 2.7% | 9 24.3% | 18 48.6% | 9 24.3% | 0 0.0% | 37 100.0% | |
| | 전체 | 16 5.6% | 48 16.9% | 123 43.3% | 87 30.6% | 10 3.5% | 284 100.0%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3 3.8% | 8 10.0% | 38 47.5% | 30 37.5% | 1 1.3% | 80 100.0% | $\chi^2=41.342$ df=12 p=.000 |
| | 10-20년 | 2 3.0% | 3 4.5% | 33 50.0% | 24 36.4% | 4 6.1% | 66 100.0% | |
| | 20-30년 | 3 4.0% | 15 20.0% | 30 40.0% | 22 29.3% | 5 6.7% | 75 100.0% | |
| | 30년 이상 | 8 12.5% | 22 34.4% | 22 34.4% | 12 18.8% | 0 0.0% | 64 100.0% | |
| | 전체 | 16 5.6% | 48 16.8% | 123 43.2% | 88 30.9% | 10 3.5% | 285 100.0% | |

④ 솔선수범하는 능력

- 시의원들이 품성과 인격면에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으며 솔선수범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은 가운데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였음.
-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해당 능력을 더욱 우수하게 인식하였음. 남성의 경우 36.9%의 응답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이었음.
-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솔선수범하는 능력을 우수하게 평가하였음.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53.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22.0%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음.
- 거주지에 있어서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응답이 동지역 거주자의 응답보다 긍정적이었음.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55.2%가 해당 역량을 우수하게 평가하였음.
- 거주기간에 따른 인식차이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은 주민일수록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10년 미만' 거주 주민의 응답에서는 37.6%가 긍정적인 답

변인대 비해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응답에서는 21.6%가 해당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음.

<표 19> 진주시의원의 출선수범하는 능력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14 9.6% | 37 25.3% | 50 34.2% | 38 26.0% | 7 4.8% | 146 100.0% | $\chi^2=13.471$ df=4 p=.009 |
| | 남성 | 10 7.1% | 14 9.9% | 65 46.1% | 43 30.5% | 9 6.4% | 141 100.0% | |
| | 전체 | 24 8.4% | 51 17.8% | 115 40.1% | 81 28.2% | 16 5.6% | 287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2 3.4% | 8 13.6% | 36 61.0% | 11 18.6% | 2 3.4% | 59 100.0% | $\chi^2=40.205$ df=16 p=.001 |
| | 30대 | 5 9.3% | 14 25.9% | 20 37.0% | 13 24.1% | 2 3.7% | 54 100.0% | |
| | 40대 | 3 5.7% | 12 22.6% | 20 37.7% | 15 28.3% | 3 5.7% | 53 100.0% | |
| | 50대 | 9 16.1% | 14 25.0% | 15 26.8% | 17 30.4% | 1 1.8% | 56 100.0% | |
| | 60대이상 | 5 8.3% | 3 5.0% | 20 33.3% | 24 40.0% | 8 13.3% | 60 100.0% | |
| | 전체 | 24 8.5% | 51 18.1% | 111 39.4% | 80 28.4% | 16 5.7%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21 9.2% | 48 21.1% | 95 41.7% | 56 24.6% | 8 3.5% | 228 100.0% | $\chi^2=21.448$ df=4 p=.000 |
| | 읍지역 | 3 5.2% | 3 5.2% | 20 34.5% | 24 41.4% | 8 13.8% | 58 100.0% | |
| | 전체 | 24 8.4% | 51 17.8% | 115 40.2% | 80 28.0% | 16 5.6%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5 10.0% | 7 14.0% | 17 34.0% | 18 36.0% | 3 6.0% | 50 100.0% | $\chi^2=12.113$ df=8 p=.146 |
| | 대졸 | 17 8.5% | 34 17.1% | 87 43.7% | 48 24.1% | 13 6.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2 5.4% | 10 27.0% | 10 27.0% | 15 40.5% | 0 0.0% | 37 100.0% | |
| | 전체 | 24 8.4% | 51 17.8% | 114 39.9% | 81 28.3% | 16 5.6%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4 5.0% | 4 5.0% | 42 52.5% | 25 31.3% | 5 6.3% | 80 100.0% | $\chi^2=38.936$ df=12 p=.000 |
| | 10-20년 | 5 7.6% | 5 7.6% | 29 43.9% | 23 34.8% | 4 6.1% | 66 100.0% | |
| | 20-30년 | 6 7.9% | 19 25.0% | 25 32.9% | 21 27.6% | 5 6.6% | 76 100.0% | |
| | 30년 이상 | 9 13.8% | 23 35.4% | 19 29.2% | 12 18.5% | 2 3.1% | 65 100.0% | |
| | 전체 | 24 8.4% | 51 17.8% | 115 40.1% | 81 28.2% | 16 5.6% | 287 100.0% | |

(2) 집행의 공정한 감시자

-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정책분석 및 대안 제시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시의원의 역량 중 집행의 공정한 감시자로서의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를 설문조사 하였음. 먼저, 사실과 정보의 논리적 분석을 통해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31.7%로서 부정적인 응답자 22.6%보다 많았음.
-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34.5%,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23.3%로서도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음.
-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32.1%,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23.1%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다소 많았음. 그러나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44.8%인 점은 해당 역량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표 20> 집행의 공정한 감시자로서 진주시의원의 역량

명(%)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
| 사실과 정보의 논리적 분석을 통해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 | 15 (5.2) | 50 (17.4) | 131 (45.6) | 76 (26.5) | 15 (5.2) | 287 (100.0) |
|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 13 (4.5) | 54 (18.8) | 121 (42.2) | 83 (28.9) | 16 (5.6) | 287 (100.0) |
|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는 능력 | 16 (5.6) | 50 (17.5) | 128 (44.8) | 73 (25.5) | 19 (6.6) | 286 (100.0) |

- 전반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공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주민인식은 평균 3.11로서 거의 보통 수준으로 분석됨.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에서는 연령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3.43으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2.85로 이를 다소 낮게 평가하였음. 거주지에 따른 인식 차이에서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인식이 3.39로서 동지역 거주자의 인식 3.03 보다 높음. 거주기간에 따른 응답에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해당 역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특히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경우 평균이 2.79에 불과하였음.

<표 2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원의 집행의 공정한 감시자로서의 역량

| 구분 |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성 별 | 여성 | 146 | 3.098 | 0.887 | -0.166 | 0.868 |
| | 남성 | 140 | 3.114 | 0.749 | | |
| | 전체 | 286 | 3.106 | 0.821 | | |
| 연 령 | 20대이하 | 59 | 3.096 | 0.760 | 4.116 | 0.003 |
| | 30대 | 54 | 2.993 | 0.731 | | |
| | 40대 | 53 | 3.088 | 0.779 | | |
| | 50대 | 55 | 2.848 | 0.920 | | |
| | 60대이상 | 60 | 3.433 | 0.835 | | |
| | 전체 | 281 | 3.098 | 0.826 | | |
| 거 주 지 | 동지역 | 227 | 3.030 | 0.810 | -3.017 | 0.003 |
| | 읍지역 | 58 | 3.390 | 0.812 | | |
| | 전체 | 285 | 3.104 | 0.822 | | |
| 학 력 | 고졸이하 | 50 | 3.060 | 0.840 | 0.248 | 0.780 |
| | 대졸 | 198 | 3.127 | 0.809 | | |
| | 대학원 졸 | 37 | 3.045 | 0.885 | | |
| | 전체 | 285 | 3.105 | 0.823 |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80 | 3.191 | 0.711 | 5.387 | 0.001 |
| | 10-20년 | 65 | 3.338 | 0.673 | | |
| | 20-30년 | 76 | 3.083 | 0.857 | | |
| | 30년 이상 | 65 | 2.794 | 0.951 | | |
| | 전체 | 286 | 3.106 | 0.821 | | |

① 핵심 쟁점 파악 능력

- 시의원이 정책대안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분석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거주지와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임.
- 거주지의 경우 읍·면 지역 주민들은 긍정적인 응답이 46.5%인데 비해 동지역 주민들은 긍정적인 응답이 26.6%였음. 그러므로 읍·면지역 주민들이 동지역 주민들 보다 해당 역량을 더욱 우수하게 평가하였음.
- 거주기간에 따른 인식차이에서는 ‘10-20년’ 거주한 주민들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응답이 가장 부정적이었음. ‘10-20년’ 거주한 주민의 경우 43.9%가 긍정적인 응답자였으나 ‘30년 이상’ 거주 주민의 응답에서 25.9%만이 이를 우수하게 평가하였음.

<표 22> 핵심 쟁점 파악 능력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7 4.8% | 28 19.2% | 61 41.8% | 42 28.8% | 8 5.5% | 146 100.0% | $\chi^2=2.227$ df=4 p=.694 |
| | 남성 | 8 5.7% | 22 15.6% | 70 49.6% | 34 24.1% | 7 5.0% | 141 100.0% | |
| | 전체 | 15 5.2% | 50 17.4% | 131 45.6% | 76 26.5% | 15 5.2%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1 1.7% | 10 16.9% | 30 50.8% | 16 27.1% | 2 3.4% | 59 100.0% | $\chi^2=24.116$ df=16 p=.087 |
| | 30대 | 3 5.6% | 9 16.7% | 29 53.7% | 12 22.2% | 1 1.9% | 54 100.0% | |
| | 40대 | 2 3.8% | 9 17.0% | 26 49.1% | 13 24.5% | 3 5.7% | 53 100.0% | |
| | 50대 | 7 12.5% | 15 26.8% | 18 32.1% | 14 25.0%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2 3.3% | 6 10.0% | 25 41.7% | 20 33.3% | 7 11.7% | 60 100.0% | |
| | 전체 | 15 5.3% | 49 17.4% | 128 45.4% | 75 26.6% | 15 5.3% | 282 100.0% | |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거주지 | 동지역 | 13 5.7% | 46 20.2% | 106 46.5% | 54 23.7% | 9 3.9% | 228 100.0% | $\chi^2=11.600$ df=4 p=.021 |
| | 읍지역 | 2 3.4% | 4 6.9% | 25 43.1% | 21 36.2% | 6 10.3% | 58 100.0% | |
| | 전체 | 15 5.2% | 50 17.5% | 131 45.8% | 75 26.2% | 15 5.2%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4 8.0% | 8 16.0% | 25 50.0% | 10 20.0% | 3 6.0% | 50 100.0% | $\chi^2=4.167$ df=8 p=.842 |
| | 대졸 | 8 4.0% | 37 18.6% | 89 44.7% | 54 27.1% | 11 5.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3 8.1% | 5 13.5% | 17 45.9% | 11 29.7% | 1 2.7% | 37 100.0% | |
| | 전체 | 15 5.2% | 50 17.5% | 131 45.8% | 75 26.2% | 15 5.2%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3 3.8% | 7 8.8% | 45 56.3% | 22 27.5% | 3 3.8% | 80 100.0% | $\chi^2=35.642$ df=12 p=.000 |
| | 10-20년 | 1 1.5% | 6 9.1% | 30 45.5% | 26 39.4% | 3 4.5% | 66 100.0% | |
| | 20-30년 | 3 3.9% | 17 22.4% | 36 47.4% | 14 18.4% | 6 7.9% | 76 100.0% | |
| | 30년 이상 | 8 12.3% | 20 30.8% | 20 30.8% | 14 21.5% | 3 4.6% | 65 100.0% | |
| | 전체 | 15 5.2% | 50 17.4% | 131 45.6% | 76 26.5% | 15 5.2% | 287 100.0% | |

② 정책 대안 제시 능력

- 진주시의원들의 정책대안 제시 역량에 대한 시민들의 응답을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음. 그 결과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 연령의 경우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음, 그리고 30대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24.1%로 가장 낮았고, 40대에서는 24.5%, 50대에서도 30.4%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거주지에 따른 인식차이에서는 읍·면 지역 주민들은 51.7%가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동지역 주민들은 29.9%만이 해당 역량을 우수하게 평가하여 읍면지역 주민들이 시의원의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높이 인식하고 있음.
- 거주기간에 따른 인식차이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은 주민들의 반응이 더

욱 긍정적이었음. '10년 미만' 거주한 주민들은 35.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은 24.7%만이 해당 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였음.

<표 23> 정책 대안 제시 능력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9 6.2% | 28 19.2% | 58 39.7% | 42 28.8% | 9 6.2% | 146 100.0% | $\chi^2=2.379$ df=4 p=.666 |
| | 남성 | 4 2.8% | 26 18.4% | 63 44.7% | 41 29.1% | 7 5.0% | 141 100.0% | |
| | 전체 | 13 4.5% | 54 18.8% | 121 42.2% | 83 28.9% | 16 5.6% | 287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3 5.1% | 10 16.9% | 24 40.7% | 19 32.2% | 3 5.1% | 59 100.0% | $\chi^2=26.298$ df=16 p=.050 |
| | 30대 | 2 3.7% | 10 18.5% | 29 53.7% | 11 20.4% | 2 3.7% | 54 100.0% | |
| | 40대 | 2 3.8% | 11 20.8% | 27 50.9% | 12 22.6% | 1 1.9% | 53 100.0% | |
| | 50대 | 4 7.1% | 18 32.1% | 17 30.4% | 15 26.8%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2 3.3% | 5 8.3% | 22 36.7% | 24 40.0% | 7 11.7% | 60 100.0% | |
| | 전체 | 13 4.6% | 54 19.1% | 119 42.2% | 81 28.7% | 15 5.3%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10 4.4% | 49 21.5% | 101 44.3% | 56 24.6% | 12 5.3% | 228 100.0% | $\chi^2=12.017$ df=4 p=.017 |
| | 읍지역 | 3 5.2% | 5 8.6% | 20 34.5% | 26 44.8% | 4 6.9% | 58 100.0% | |
| | 전체 | 13 4.5% | 54 18.9% | 121 42.3% | 82 28.7% | 16 5.6%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3 6.0% | 7 14.0% | 22 44.0% | 14 28.0% | 4 8.0% | 50 100.0% | $\chi^2=3.365$ df=8 p=.909 |
| | 대졸 | 8 4.0% | 38 19.1% | 85 42.7% | 57 28.6% | 11 5.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2 5.4% | 9 24.3% | 13 35.1% | 12 32.4% | 1 2.7% | 37 100.0% | |
| | 전체 | 13 4.5% | 54 18.9% | 120 42.0% | 83 29.0% | 16 5.6%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5 6.3% | 6 7.5% | 41 51.3% | 26 32.5% | 2 2.5% | 80 100.0% | $\chi^2=27.808$ df=12 p=.006 |
| | 10-20년 | 1 1.5% | 9 13.6% | 25 37.9% | 26 39.4% | 5 7.6% | 66 100.0% | |
| | 20-30년 | 2 2.6% | 18 23.7% | 32 42.1% | 19 25.0% | 5 6.6% | 76 100.0% | |
| | 30년 이상 | 5 7.7% | 21 32.3% | 23 35.4% | 12 18.5% | 4 6.2% | 65 100.0% | |
| | 전체 | 13 4.5% | 54 18.8% | 121 42.2% | 83 28.9% | 16 5.6% | 287 100.0% | |

③ 정당성 피력 능력

-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의 역량 중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피력하는 능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거주기간에 따른 응답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은 주민들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인 가운데 부정적인 응답의 경우 ‘10년 미만’ 거주자에서는 12.5%에 불과하였으나 ‘30년 이상’ 거주자의 반응에서는 43%의 응답자가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

<표 24> 정당성 피력 능력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2 8.2% | 25 17.1% | 59 40.4% | 38 26.0% | 12 8.2% | 146 100.0% | $\chi^2=6.097$ df=4 p=.192 |
| | 남성 | 4 2.9% | 25 17.9% | 69 49.3% | 35 25.0% | 7 5.0% | 140 100.0% | |
| | 전체 | 16 5.6% | 50 17.5% | 128 44.8% | 73 25.5% | 19 6.6% | 286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3 5.1% | 13 22.0% | 25 42.4% | 17 28.8% | 1 1.7% | 59 100.0% | $\chi^2=23.209$ df=16 p=.108 |
| | 30대 | 3 5.6% | 9 16.7% | 30 55.6% | 10 18.5% | 2 3.7% | 54 100.0% | |
| | 40대 | 2 3.8% | 9 17.0% | 24 45.3% | 14 26.4% | 4 7.5% | 53 100.0% | |
| | 50대 | 5 9.1% | 13 23.6% | 23 41.8% | 13 23.6% | 1 1.8% | 55 100.0% | |
| | 60대이상 | 3 5.0% | 6 10.0% | 24 40.0% | 17 28.3% | 10 16.7% | 60 100.0% | |
| | 전체 | 16 5.7% | 50 17.8% | 126 44.8% | 71 25.3% | 18 6.4% | 281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13 5.7% | 44 19.4% | 104 45.8% | 53 23.3% | 13 5.7% | 227 100.0% | $\chi^2=6.284$ df=4 p=.179 |
| | 읍지역 | 3 5.2% | 6 10.3% | 23 39.7% | 20 34.5% | 6 10.3% | 58 100.0% | |
| | 전체 | 16 5.6% | 50 17.5% | 127 44.6% | 73 25.6% | 19 6.7% | 285 100.0% | |

| | | | | | | | | |
|---------|--------|------------|-------------|--------------|-------------|------------|---------------|------------------------------------|
| 학 력 | 고졸이하 | 5 10.0% | 8 16.0% | 23 46.0% | 10 20.0% | 4 8.0% | 50 100.0% | $\chi^2=4.157$ df=8 p=.843 |
| | 대졸 | 8 4.0% | 36 18.2% | 88 44.4% | 53 26.8% | 13 6.6% | 198 100.0% | |
| | 대학원 졸 | 3 8.1% | 6 16.2% | 16 43.2% | 10 27.0% | 2 5.4% | 37 100.0% | |
| | 전체 | 16 5.6% | 50 17.5% | 127 44.6% | 73 25.6% | 19 6.7% | 285 100.0%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4 5.0% | 6 7.5% | 43 53.8% | 23 28.8% | 4 5.0% | 80 100.0% | $\chi^2=29.547$ df=12 p=.003 |
| | 10-20년 | 1 1.5% | 8 12.3% | 33 50.8% | 20 30.8% | 3 4.6% | 65 100.0% | |
| | 20-30년 | 5 6.6% | 14 18.4% | 30 39.5% | 21 27.6% | 6 7.9% | 76 100.0% | |
| | 30년 이상 | 6 9.2% | 22 33.8% | 22 33.8% | 9 13.8% | 6 9.2% | 65 100.0% | |
| | 전체 | 16 5.6% | 50 17.5% | 128 44.8% | 73 25.5% | 19 6.6% | 286 100.0% | |

(3)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

-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 이 같은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음.
- 지역구와 관련된 동향, 고충, 이슈를 명료화 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33.1%로서 부정적인 응답자 18.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그러나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48.1%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시의원이 지역구 내의 문제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에 대한 인식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37.7%로서 부정적인 응답자의 19.2%보다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그러므로 진주시의원들의 역량 중 문제의 조정 능력에 대한 주민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진주시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능력에 대한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37.3%, 부정적인 응답자가 17.1%로서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5>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으로서 진주시의원의 역량

명(%)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
| 지역구와 관련한 동향, 고 충, 이슈를 명료화하는 능력 | 7 (2.4) | 47 (16.4) | 138 (48.1) | 79 (27.5) | 16 (5.6) | 287 (100.0) |
| 지역구 내 이해관계에 얽 힌 문제를 조정하고 통합 하는 능력 | 7 (2.4) | 48 (16.8) | 123 (43.0) | 97 (33.9) | 11 (3.8) | 286 (100.0) |
|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능력 | 10 (3.5) | 39 (13.6) | 131 (45.6) | 82 (28.6) | 25 (8.7) | 287 (100.0) |

-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으로서 진주시의원의 역량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평균 3.21로서 개별 역량 가운데는 가장 높았으나 그 수준은 보통의 수준으로 판단됨.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연령의 경우는 '60대 이상'의 응답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50대의 응답이 가장 부정적이었음. 거주지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이 이를 동지역 주민들에 비해 더욱 높이 평가하였음. 거주기간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진주시의원의 시민 대변인으로서의 역량을 낮게 인식하였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주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45%내외를 차지한 가운데 응답자의 전반적인 인식은 약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표 26>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원의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으로서의 역량

| 구분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성 별 | 여성 | 146 | 3.184 | -0.511 | 0.610 |
| | 남성 | 140 | 3.228 | | |
| | 전체 | 286 | 3.206 | | |
| 연 령 | 20대이하 | 59 | 3.254 | 3.184 | 0.014 |
| | 30대 | 54 | 3.104 | | |
| | 40대 | 53 | 3.157 | | |
| | 50대 | 56 | 3.011 | | |
| | 60대이상 | 59 | 3.452 | | |
| | 전체 | 281 | 3.200 | | |

| 구분 |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거주지 | 동지역 | 227 | 3.126 | 0.715 | -3.691 | 0.000 |
| | 읍지역 | 58 | 3.511 | 0.684 | | |
| | 전체 | 285 | 3.204 | 0.725 | | |
| 학력 | 고졸이하 | 50 | 3.306 | 0.854 | 0.609 | 0.545 |
| | 대졸 | 198 | 3.180 | 0.718 | | |
| | 대학원 졸 | 37 | 3.216 | 0.562 | | |
| | 전체 | 285 | 3.207 | 0.725 |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80 | 3.308 | 0.550 | 6.253 | 0.000 |
| | 10-20년 | 65 | 3.374 | 0.602 | | |
| | 20-30년 | 76 | 3.228 | 0.708 | | |
| | 30년 이상 | 65 | 2.887 | 0.930 | | |
| | 전체 | 286 | 3.206 | 0.724 | | |

① 지역구 동향, 고충, 이슈 명료화 능력

- 지방의원의 역량 중 지역구와 관련된 동향, 고충, 이슈 등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인구사회적 특성 중 거주기간에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거주기간의 경우 ‘30년 이상’ 장기간 진주시에 거주한 주민들의 응답이 가장 부정적이었고, 나머지 연령층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음.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주민의 경우 24.7%의 주민이 해당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35.4%의 응답자가 이를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표 27> 지역구 동향, 고충, 이슈 명료화 능력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6 4.1% | 23 15.8% | 66 45.2% | 40 27.4% | 11 7.5% | 146 100.0% | $\chi^2=6.031$ df=4 p=.197 |
| | 남성 | 1 0.7% | 24 17.0% | 72 51.1% | 39 27.7% | 5 3.5% | 141 100.0% | |
| | 전체 | 7 2.4% | 47 16.4% | 138 48.1% | 79 27.5% | 16 5.6% | 287 100.0% | |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연령 | 20대이하 | 0 0.0% | 11 18.6% | 27 45.8% | 18 30.5% | 3 5.1% | 59 100.0% | $\chi^2=19.127$ df=16 p=.262 |
| | 30대 | 2 3.7% | 9 16.7% | 29 53.7% | 10 18.5% | 4 7.4% | 54 100.0% | |
| | 40대 | 2 3.8% | 8 15.1% | 27 50.9% | 14 26.4% | 2 3.8% | 53 100.0% | |
| | 50대 | 1 1.8% | 15 26.8% | 25 44.6% | 14 25.0% | 1 1.8% | 56 100.0% | |
| | 60대이상 | 2 3.3% | 3 5.0% | 28 46.7% | 21 35.0% | 6 10.0% | 60 100.0% | |
| | 전체 | 7 2.5% | 46 16.3% | 136 48.2% | 77 27.3% | 16 5.7%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6 2.6% | 40 17.5% | 108 47.4% | 64 28.1% | 10 4.4% | 228 100.0% | $\chi^2=4.378$ df=4 p=.357 |
| | 읍지역 | 1 1.7% | 7 12.1% | 30 51.7% | 14 24.1% | 6 10.3% | 58 100.0% | |
| | 전체 | 7 2.4% | 47 16.4% | 138 48.3% | 78 27.3% | 16 5.6%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2 4.0% | 7 14.0% | 20 40.0% | 16 32.0% | 5 10.0% | 50 100.0% | $\chi^2=7.779$ df=8 p=.455 |
| | 대졸 | 5 2.5% | 36 18.1% | 94 47.2% | 54 27.1% | 10 5.0%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4 10.8% | 23 62.2% | 9 24.3% | 1 2.7% | 37 100.0% | |
| | 전체 | 7 2.4% | 47 16.4% | 137 47.9% | 79 27.6% | 16 5.6%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0 0.0% | 9 11.3% | 46 57.5% | 22 27.5% | 3 3.8% | 80 100.0% | $\chi^2=29.252$ df=12 p=.004 |
| | 10-20년 | 0 0.0% | 7 10.6% | 33 50.0% | 22 33.3% | 4 6.1% | 66 100.0% | |
| | 20-30년 | 1 1.3% | 14 18.4% | 33 43.4% | 23 30.3% | 5 6.6% | 76 100.0% | |
| | 30년 이상 | 6 9.2% | 17 26.2% | 26 40.0% | 12 18.5% | 4 6.2% | 65 100.0% | |
| | 전체 | 7 2.4% | 47 16.4% | 138 48.1% | 79 27.5% | 16 5.6% | 287 100.0% | |

② 지역구 내 이해관계 조정 및 통합 능력

- 선출된 지방의원은 유권자가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을 대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함. 각기 다른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조정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지역구 내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음.

- 그 결과 거주지와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거주지의 경우 읍·면지역 주민의 응답결과에서는 해당 능력을 높이 평가한 주민이 55.2%였으나 동지역 주민의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33.5%에 거뒀음. 그러므로 읍·면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거주기간에 따른 해당 능력에 대한 인식차이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은 주민일수록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 및 통합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음.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24.6%였으나 ‘10-20년’ 거주자의 응답에서는 49.2%의 응답자가 진주시의원의 해당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표 28> 지역구 내 이해관계 조정 및 통합 능력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7 4.8% | 24 16.4% | 60 41.1% | 50 34.2% | 5 3.4% | 146 100.0% | $\chi^2=7.134$ df=4 p=.129 |
| | 남성 | 0 0.0% | 24 17.1% | 63 45.0% | 47 33.6% | 6 4.3% | 140 100.0% | |
| | 전체 | 7 2.4% | 48 16.8% | 123 43.0% | 97 33.9% | 11 3.8% | 286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1 1.7% | 9 15.3% | 26 44.1% | 23 39.0% | 0 0.0% | 59 100.0% | $\chi^2=24.160$ df=16 p=.086 |
| | 30대 | 1 1.9% | 11 20.4% | 29 53.7% | 11 20.4% | 2 3.7% | 54 100.0% | |
| | 40대 | 2 3.8% | 6 11.3% | 26 49.1% | 18 34.0% | 1 1.9% | 53 100.0% | |
| | 50대 | 2 3.6% | 15 26.8% | 21 37.5% | 17 30.4% | 1 1.8% | 56 100.0% | |
| | 60대이상 | 1 1.7% | 7 11.9% | 21 35.6% | 24 40.7% | 6 10.2% | 59 100.0% | |
| | 전체 | 7 2.5% | 48 17.1% | 123 43.8% | 93 33.1% | 10 3.6% | 281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6 2.6% | 43 18.9% | 102 44.9% | 69 30.4% | 7 3.1% | 227 100.0% | $\chi^2=10.339$ df=4 p=.035 |
| | 읍지역 | 1 1.7% | 5 8.6% | 20 34.5% | 28 48.3% | 4 6.9% | 58 100.0% | |
| | 전체 | 7 2.5% | 48 16.8% | 122 42.8% | 97 34.0% | 11 3.9% | 285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2 4.0% | 8 16.0% | 20 40.0% | 15 30.0% | 5 10.0% | 50 100.0% | $\chi^2=8.185$ df=8 p=.416 |
| | 대졸 | 4 2.0% | 36 18.2% | 85 42.9% | 68 34.3% | 5 2.5% | 198 100.0% | |
| | 대학원 졸 | 1 2.7% | 4 10.8% | 17 45.9% | 14 37.8% | 1 2.7% | 37 100.0% | |
| | 전체 | 7 2.5% | 48 16.8% | 122 42.8% | 97 34.0% | 11 3.9% | 285 100.0% | |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거주 기간 | 10년미만 | 2 2.5% | 7 8.8% | 40 50.0% | 29 36.3% | 2 2.5% | 80 100.0% | $\chi^2=25.695$ df=12 p=.012 |
| | 10-20년 | 1 1.5% | 7 10.8% | 25 38.5% | 29 44.6% | 3 4.6% | 65 100.0% | |
| | 20-30년 | 0 0.0% | 14 18.4% | 33 43.4% | 25 32.9% | 4 5.3% | 76 100.0% | |
| | 30년 이상 | 4 6.2% | 20 30.8% | 25 38.5% | 14 21.5% | 2 3.1% | 65 100.0% | |
| | 전체 | 7 2.4% | 48 16.8% | 123 43.0% | 97 33.9% | 11 3.8% | 286 100.0% | |

③ 좋은 평판 유지 능력

-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능력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을 주민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음. 인구사회적 특성 중 거주지에 따른 인식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거주지에 따른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동지역 주민의 경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주민은 30.3%였고, 읍·면지역 주민의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63.8%로 드러났음.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볼 때 읍·면지역 주민들이 동지역 주민들에 비해 시의원들의 좋은 평판 유지 능력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29> 좋은 평판 유지 능력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8 5.5% | 21 14.4% | 59 40.4% | 47 32.2% | 11 7.5% | 146 100.0% | $\chi^2=7.152$ df=4 p=.128 |
| | 남성 | 2 1.4% | 18 12.8% | 72 51.1% | 35 24.8% | 14 9.9% | 141 100.0% | |
| | 전체 | 10 3.5% | 39 13.6% | 131 45.6% | 82 28.6% | 25 8.7%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1 1.7% | 5 8.5% | 29 49.2% | 21 35.6% | 3 5.1% | 59 100.0% | $\chi^2=18.452$ df=16 p=.298 |
| | 30대 | 2 3.7% | 8 14.8% | 26 48.1% | 14 25.9% | 4 7.4% | 54 100.0% | |
| | 40대 | 1 1.9% | 10 18.9% | 24 45.3% | 15 28.3% | 3 5.7% | 53 100.0% | |
| | 50대 | 3 5.4% | 11 19.6% | 27 48.2% | 10 17.9% | 5 8.9% | 56 100.0% | |
| | 60대이상 | 3 5.0% | 3 5.0% | 24 40.0% | 21 35.0% | 9 15.0% | 60 100.0% | |
| | 전체 | 10 3.5% | 37 13.1% | 130 46.1% | 81 28.7% | 24 8.5% | 282 100.0% | |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거주지 | 동지역 | 10 4.4% | 35 15.4% | 114 50.0% | 54 23.7% | 15 6.6% | 228 100.0% | $\chi^2=23.839$ df=4 p=.000 |
| | 읍지역 | 0 0.0% | 4 6.9% | 17 29.3% | 27 46.6% | 10 17.2% | 58 100.0% | |
| | 전체 | 10 3.5% | 39 13.6% | 131 45.8% | 81 28.3% | 25 8.7%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3 6.0% | 7 14.0% | 17 34.0% | 15 30.0% | 8 16.0% | 50 100.0% | $\chi^2=11.804$ df=8 p=.160 |
| | 대졸 | 7 3.5% | 28 14.1% | 91 45.7% | 56 28.1% | 17 8.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4 10.8% | 22 59.5% | 11 29.7% | 0 0.0% | 37 100.0% | |
| | 전체 | 10 3.5% | 39 13.6% | 130 45.5% | 82 28.7% | 25 8.7%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1 1.3% | 6 7.5% | 40 50.0% | 25 31.3% | 8 10.0% | 80 100.0% | $\chi^2=20.287$ df=12 p=.062 |
| | 10-20년 | 1 1.5% | 6 9.1% | 30 45.5% | 23 34.8% | 6 9.1% | 66 100.0% | |
| | 20-30년 | 2 2.6% | 12 15.8% | 37 48.7% | 18 23.7% | 7 9.2% | 76 100.0% | |
| | 30년 이상 | 6 9.2% | 15 23.1% | 24 36.9% | 16 24.6% | 4 6.2% | 65 100.0% | |
| | 전체 | 10 3.5% | 39 13.6% | 131 45.6% | 82 28.6% | 25 8.7% | 287 100.0% | |

2) 진주시의원의 의정활동 수행도

-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선거공약 이행 정도, 주민 의견 수렴 정도, 의정활동 설명 및 보고의 충실도,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정도를 살펴보았음.
- 시의원들의 선거공약 이행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잘 이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27.9%,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22.7%로서 공약의 이행정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그렇게 긍정적이라 보기 어려움.
-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31.4%, 부정적인 응답자가 21.9%로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의정 활동에 대해 주민들에게 얼마나 잘 설명하고 보고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34.2%로서 부정적인 응답자의

23.4%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음. 그러므로 이에 대한 주민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라 할 수 있음.

- 진주시의원들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28.2%,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19.1%인 가운데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52.6%를 차지하였음. 그러므로 지역현안 사업 추진 정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긍정적이라 보기 어려움.

<표 30> 의정활동 수행도

명(%)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
| 선거공약 이행 정도 | 16 (5.6) | 49 (17.1) | 142 (49.5) | 64 (22.3) | 16 (5.6) | 287 (100.0) |
|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정도 | 19 (6.6) | 44 (15.3) | 134 (46.7) | 76 (26.5) | 14 (4.9) | 287 (100.0) |
| 의정활동 설명 및 보고의 충실도 | 24 (8.4) | 43 (15.0) | 121 (42.3) | 81 (28.3) | 17 (5.9) | 286 (100.0) |
|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정도 | 15 (5.2) | 40 (13.9) | 151 (52.6) | 67 (23.3) | 14 (4.9) | 287 (100.0) |

- 의정활동 수행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평균 3.07로서 보통의 수준으로 분석됨.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인식에서는 남성이 3.18로서 여성의 2.97에 비해 높았음. 연령별 인식에서는 ‘60대 이상’의 응답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20대 이하’가 다음으로 이를 높이 평가하였음. 거주지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이 동지역 주민들에 비해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거주기간에서는 대체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이를 높게 인식하였음. 그러므로 진주시의회는 여성, 30-50대의 연령층, 동지역 거주자, 거주기간이 긴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3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원의 의정활동 수행도

| 구분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 성별 | 여성 | 145 | 2.967 | 0.895 | -2.303 | 0.022 |
| | 남성 | 141 | 3.180 | 0.658 | | |
| | 전체 | 286 | 3.072 | 0.793 | | |

| | 구분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연령 | 20대이하 | 59 | 3.135 | 0.676 | 4.539 | 0.001 |
| | 30대 | 54 | 2.898 | 0.762 | | |
| | 40대 | 53 | 2.924 | 0.773 | | |
| | 50대 | 56 | 2.946 | 0.919 | | |
| | 60대이상 | 59 | 3.419 | 0.752 | | |
| | 전체 | 281 | 3.072 | 0.798 | | |
| 거주지 | 동지역 | 227 | 3.005 | 0.803 | -2.752 | 0.006 |
| | 읍지역 | 58 | 3.323 | 0.705 | | |
| | 전체 | 285 | 3.070 | 0.793 | | |
| 학력 | 고졸이하 | 49 | 2.994 | 0.757 | 0.354 | 0.702 |
| | 대졸 | 199 | 3.096 | 0.807 | | |
| | 대학원 졸 | 37 | 3.040 | 0.789 | | |
| | 전체 | 285 | 3.071 | 0.794 |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79 | 3.180 | 0.620 | 3.843 | 0.010 |
| | 10-20년 | 66 | 3.219 | 0.725 | | |
| | 20-30년 | 76 | 3.062 | 0.820 | | |
| | 30년 이상 | 65 | 2.803 | 0.949 | | |
| | 전체 | 286 | 3.072 | 0.793 | | |

(1) 선거 공약 이행 정도

- 의정활동 중 선거 공약의 이행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시의원들의 선거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남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자가 29.7%, 여성의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26.0%로서 거의 비슷하였으나 부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에서 남성의 경우 16.3%, 여성은 28.8%로서 남성이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 연령에 따른 선거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20대 이하'의 응답자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경우가 23.7%, '30대'에서는 13.0%, '40대'에서는 24.5%, '50대'에서는 25.0%로

점점 높아졌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응답자의 51.6%가 선거공약 이행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표 32> 선거 공약 이행 정도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9 6.2% | 33 22.6% | 66 45.2% | 27 18.5% | 11 7.5% | 146 100.0% | $\chi^2=10.581$ df=4 p=.032 |
| | 남성 | 7 5.0% | 16 11.3% | 76 53.9% | 37 26.2% | 5 3.5% | 141 100.0% | |
| | 전체 | 16 5.6% | 49 17.1% | 142 49.5% | 64 22.3% | 16 5.6%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0 0.0% | 8 13.6% | 37 62.7% | 12 20.3% | 2 3.4% | 59 100.0% | $\chi^2=36.414$ df=16 p=.003 |
| | 30대 | 3 5.6% | 11 20.4% | 33 61.1% | 5 9.3% | 2 3.7% | 54 100.0% | |
| | 40대 | 4 7.5% | 13 24.5% | 23 43.4% | 12 22.6% | 1 1.9% | 53 100.0% | |
| | 50대 | 5 8.9% | 11 19.6% | 26 46.4% | 11 19.6% | 3 5.4% | 56 100.0% | |
| | 60대이상 | 3 5.0% | 6 10.0% | 20 33.3% | 23 38.3% | 8 13.3% | 60 100.0% | |
| | 전체 | 15 5.3% | 49 17.4% | 139 49.3% | 63 22.3% | 16 5.7% | 282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14 6.1% | 43 18.9% | 115 50.4% | 47 20.6% | 9 3.9% | 228 100.0% | $\chi^2=9.865$ df=4 p=.043 |
| | 읍지역 | 2 3.4% | 6 10.3% | 26 44.8% | 17 29.3% | 7 12.1% | 58 100.0% | |
| | 전체 | 16 5.6% | 49 17.1% | 141 49.3% | 64 22.4% | 16 5.6% | 286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4 8.0% | 9 18.0% | 26 52.0% | 9 18.0% | 2 4.0% | 50 100.0% | $\chi^2=5.134$ df=8 p=.743 |
| | 대졸 | 10 5.0% | 33 16.6% | 95 47.7% | 47 23.6% | 14 7.0%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2 5.4% | 7 18.9% | 21 56.8% | 7 18.9% | 0 0.0% | 37 100.0% | |
| | 전체 | 16 5.6% | 49 17.1% | 142 49.7% | 63 22.0% | 16 5.6% | 286 100.0%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2 2.5% | 8 10.0% | 50 62.5% | 17 21.3% | 3 3.8% | 80 100.0% | $\chi^2=24.223$ df=12 p=.019 |
| | 10-20년 | 4 6.1% | 6 9.1% | 33 50.0% | 18 27.3% | 5 7.6% | 66 100.0% | |
| | 20-30년 | 4 5.3% | 15 19.7% | 37 48.7% | 17 22.4% | 3 3.9% | 76 100.0% | |
| | 30년 이상 | 6 9.2% | 20 30.8% | 22 33.8% | 12 18.5% | 5 7.7% | 65 100.0% | |
| | 전체 | 16 5.6% | 49 17.1% | 142 49.5% | 64 22.3% | 16 5.6% | 287 100.0% | |

(2)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정도

○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보고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나타남.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응답자가 34.0%였고, 여성의 응답에서는 28.8%가 해당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표 33>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정도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6 11.0% | 26 17.8% | 62 42.5% | 33 22.6% | 9 6.2% | 146 100.0% | $\chi^2=13.471$ df=4 p=.009 |
| | 남성 | 3 2.1% | 18 12.8% | 72 51.1% | 43 30.5% | 5 3.5% | 141 100.0% | |
| | 전체 | 19 6.6% | 44 15.3% | 134 46.7% | 76 26.5% | 14 4.9%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3 5.1% | 7 11.9% | 32 54.2% | 14 23.7% | 3 5.1% | 59 100.0% | $\chi^2=25.239$ df=16 p=.066 |
| | 30대 | 4 7.4% | 12 22.2% | 28 51.9% | 8 14.8% | 2 3.7% | 54 100.0% | |
| | 40대 | 6 11.3% | 6 11.3% | 28 52.8% | 11 20.8% | 2 3.8% | 53 100.0% | |
| | 50대 | 5 8.9% | 12 21.4% | 22 39.3% | 15 26.8%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1 1.7% | 6 10.0% | 22 36.7% | 26 43.3% | 5 8.3% | 60 100.0% | |
| | 전체 | 19 6.7% | 43 15.2% | 132 46.8% | 74 26.2% | 14 5.0% | 282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17 7.5% | 37 16.2% | 109 47.8% | 56 24.6% | 9 3.9% | 228 100.0% | $\chi^2=5.104$ df=4 p=.277 |
| | 읍지역 | 2 3.4% | 7 12.1% | 25 43.1% | 19 32.8% | 5 8.6% | 58 100.0% | |
| | 전체 | 19 6.6% | 44 15.4% | 134 46.9% | 75 26.2% | 14 4.9% | 286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2 4.0% | 8 16.0% | 23 46.0% | 15 30.0% | 2 4.0% | 50 100.0% | $\chi^2=3.674$ df=8 p=.885 |
| | 대졸 | 14 7.0% | 30 15.1% | 93 46.7% | 50 25.1% | 12 6.0%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3 8.1% | 6 16.2% | 17 45.9% | 11 29.7% | 0 0.0% | 37 100.0% | |
| | 전체 | 19 6.6% | 44 15.4% | 133 46.5% | 76 26.6% | 14 4.9% | 286 100.0% | |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2 2.5% | 9 11.3% | 41 51.3% | 24 30.0% | 4 5.0% | 80 100.0% | $\chi^2=19.395$ df=12 p=.079 |
| | 10-20년 | 3 4.5% | 6 9.1% | 38 57.6% | 16 24.2% | 3 4.5% | 66 100.0% | |
| | 20-30년 | 9 11.8% | 12 15.8% | 29 38.2% | 23 30.3% | 3 3.9% | 76 100.0% | |
| | 30년 이상 | 5 7.7% | 17 26.2% | 26 40.0% | 13 20.0% | 4 6.2% | 65 100.0% | |
| | 전체 | 19 6.6% | 44 15.3% | 134 46.7% | 76 26.5% | 14 4.9% | 287 100.0% | |

(3) 의정활동 설명 및 보고의 충실도

- 시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보고 및 설명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이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음. 인구사회적 특성 중 성별, 거주지,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한 인식차이가 존재하였음.
-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욱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남성 응답자의 39.0%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는 29.7%가 해당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였음.
- 거주지에 따른 차이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응답이 동지역 주민들의 응답에 비해 더욱 긍정적이었음. 읍·면지역 주민의 경우 38.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동지역 주민들은 35.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음.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의 경우 읍·면지역 주민들은 8.6%에 불과하였으나 동지역 주민들은 27.3%를 차지하였음.
- 거주기간에 따른 주민들의 해당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응답이 더욱 부정적이었음.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경우 해당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21.6%에 불과하였으나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진주시에 거주한 주민들의 응답에서는 대략 35%정도의 주민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표 34> 의정활동 설명 및 보고의 충실도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21 14.5% | 24 16.6% | 57 39.3% | 33 22.8% | 10 6.9% | 145 100.0% | $\chi^2=17.741$ df=4 p=.001 |
| | 남성 | 3 2.1% | 19 13.5% | 64 45.4% | 48 34.0% | 7 5.0% | 141 100.0% | |
| | 전체 | 24 8.4% | 43 15.0% | 121 42.3% | 81 28.3% | 17 5.9% | 286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4 6.8% | 8 13.6% | 28 47.5% | 15 25.4% | 4 6.8% | 59 100.0% | $\chi^2=16.800$ df=16 p=.399 |
| | 30대 | 8 14.8% | 8 14.8% | 22 40.7% | 13 24.1% | 3 5.6% | 54 100.0% | |
| | 40대 | 5 9.4% | 9 17.0% | 26 49.1% | 12 22.6% | 1 1.9% | 53 100.0% | |
| | 50대 | 5 8.9% | 12 21.4% | 22 39.3% | 14 25.0% | 3 5.4% | 56 100.0% | |
| | 60대이상 | 2 3.4% | 6 10.2% | 21 35.6% | 24 40.7% | 6 10.2% | 59 100.0% | |
| | 전체 | 24 8.5% | 43 15.3% | 119 42.3% | 78 27.8% | 17 6.0% | 281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22 9.7% | 40 17.6% | 90 39.6% | 61 26.9% | 14 6.2% | 227 100.0% | $\chi^2=9.603$ df=4 p=.048 |
| | 읍지역 | 2 3.4% | 3 5.2% | 31 53.4% | 19 32.8% | 3 5.2% | 58 100.0% | |
| | 전체 | 24 8.4% | 43 15.1% | 121 42.5% | 80 28.1% | 17 6.0% | 285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4 8.2% | 9 18.4% | 21 42.9% | 13 26.5% | 2 4.1% | 49 100.0% | $\chi^2=1.180$ df=8 p=.997 |
| | 대졸 | 17 8.5% | 29 14.6% | 84 42.2% | 56 28.1% | 13 6.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3 8.1% | 5 13.5% | 15 40.5% | 12 32.4% | 2 5.4% | 37 100.0% | |
| | 전체 | 24 8.4% | 43 15.1% | 120 42.1% | 81 28.4% | 17 6.0% | 285 100.0%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4 5.1% | 8 10.1% | 37 46.8% | 27 34.2% | 3 3.8% | 79 100.0% | $\chi^2=26.790$ df=12 p=.008 |
| | 10-20년 | 5 7.6% | 6 9.1% | 28 42.4% | 21 31.8% | 6 9.1% | 66 100.0% | |
| | 20-30년 | 8 10.5% | 8 10.5% | 33 43.4% | 23 30.3% | 4 5.3% | 76 100.0% | |
| | 30년 이상 | 7 10.8% | 21 32.3% | 23 35.4% | 10 15.4% | 4 6.2% | 65 100.0% | |
| | 전체 | 24 8.4% | 43 15.0% | 121 42.3% | 81 28.3% | 17 5.9% | 286 100.0% | |

(4)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정도

-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지역에 필요한 현안 사업의 추진 정도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거주기간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

○ 연령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층의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다음으로 ‘20대 이하’ 순이었음. ‘60대 이상’의 경우 응답자의 43.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20대 이하’는 30.5%, 50대는 25.0%, 40대는 24.5%, 30대는 18.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에서는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응답이 가장 부정적이었음.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자가 21.5%였으나 그 이하의 거주기간 응답자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 30% 내외를 차지하였음.

<표 35>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정도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0 6.8% | 25 17.1% | 69 47.3% | 33 22.6% | 9 6.2% | 146 100.0% | $\chi^2=6.358$ df=4 p=.174 |
| | 남성 | 5 3.5% | 15 10.6% | 82 58.2% | 34 24.1% | 5 3.5% | 141 100.0% | |
| | 전체 | 15 5.2% | 40 13.9% | 151 52.6% | 67 23.3% | 14 4.9%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1 1.7% | 8 13.6% | 32 54.2% | 16 27.1% | 2 3.4% | 59 100.0% | $\chi^2=28.446$ df=16 p=.028 |
| | 30대 | 1 1.9% | 11 20.4% | 32 59.3% | 8 14.8% | 2 3.7% | 54 100.0% | |
| | 40대 | 4 7.5% | 6 11.3% | 30 56.6% | 13 24.5% | 0 0.0% | 53 100.0% | |
| | 50대 | 5 8.9% | 12 21.4% | 25 44.6% | 9 16.1% | 5 8.9% | 56 100.0% | |
| | 60대이상 | 4 6.7% | 2 3.3% | 28 46.7% | 21 35.0% | 5 8.3% | 60 100.0% | |
| | 전체 | 15 5.3% | 39 13.8% | 147 52.1% | 67 23.8% | 14 5.0% | 282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14 6.1% | 37 16.2% | 116 50.9% | 51 22.4% | 10 4.4% | 228 100.0% | $\chi^2=7.385$ df=4 p=.117 |
| | 읍지역 | 1 1.7% | 3 5.2% | 35 60.3% | 15 25.9% | 4 6.9% | 58 100.0% | |
| | 전체 | 15 5.2% | 40 14.0% | 151 52.8% | 66 23.1% | 14 4.9% | 286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4 8.0% | 6 12.0% | 28 56.0% | 11 22.0% | 1 2.0% | 50 100.0% | $\chi^2=4.132$ df=8 p=.845 |
| | 대졸 | 10 5.0% | 27 13.6% | 105 52.8% | 47 23.6% | 10 5.0%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1 2.7% | 7 18.9% | 17 45.9% | 9 24.3% | 3 8.1% | 37 100.0% | |
| | 전체 | 15 5.2% | 40 14.0% | 150 52.4% | 67 23.4% | 14 4.9% | 286 100.0% | |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χ^2 , df, p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1 1.3% | 8 10.0% | 49 61.3% | 21 26.3% | 1 1.3% | 80 100.0% | $\chi^2=32.174$ df=12 p=.001 |
| | 10-20년 | 1 1.5% | 6 9.1% | 39 59.1% | 15 22.7% | 5 7.6% | 66 100.0% | |
| | 20-30년 | 4 5.3% | 9 11.8% | 38 50.0% | 20 26.3% | 5 6.6% | 76 100.0% | |
| | 30년 이상 | 9 13.8% | 17 26.2% | 25 38.5% | 11 16.9% | 3 4.6% | 65 100.0% | |
| | 전체 | 15 5.2% | 40 13.9% | 151 52.6% | 67 23.3% | 14 4.9% | 287 100.0% | |

3. 진주시의회의 역량 및 역할

1) 진주시의회의 역량

- 최근 지방자치권 및 분권의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에 대한 관심은 범 국가적으로 고조되어 있음. 특히 지방분권 추진 이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정책 개발 및 제안 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아울러, 지방의회 스스로도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의무인 윤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진주시의회의 역량을 살펴보고자 정책개발 및 제안 역량, 운영의 투명성 및 공개성, 윤리성, 전문성으로 구분하여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음.
-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권을 포함하여 진주시의회의 정책개발 및 제안 역량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에서는 해당 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34.6%로서 부정적인 응답자 20.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의회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35.6%로서 부정적인 응답자의 18.7%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그러나 ‘보통’이라는 응답자 역시 46.9%로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시의회의 윤리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해당 설문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29.7%,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20.6%로서 약간 높았으나 전체적으로는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49.7%에 이를 만큼 그 수준을 높게 볼 수 없음.

○ 의회의 전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서는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응답자가 32.5%로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자의 25.5%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표 36> 진주시의회의 역량

| 구분 | 명(%) | | | | | |
|--------------------|--------------|--------------|---------------|--------------|-------------|----------------|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 시의회의 정책 개발 및 제안 역량 | 19 (6.6) | 40 (14.0) | 128 (44.8) | 83 (29.0) | 16 (5.6) | 286 (100.0) |
| 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개성 | 15 (5.2) | 38 (13.3) | 134 (46.9) | 85 (29.7) | 14 (4.9) | 286 (100.0) |
| 시의회 및 시의원의 윤리성 | 14 (4.9) | 45 (15.7) | 142 (49.7) | 71 (24.8) | 14 (4.9) | 286 (100.0) |
| 시의회 및 시의원의 전문성 | 30 (10.5) | 43 (15.0) | 120 (42.0) | 70 (24.5) | 23 (8.0) | 286 (100.0) |

○ 진주시의회의 역량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은 3.11로서 보통의 수준으로 분석된 가운데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한 인식차이를 보였음. 연령에서는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의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50대에서 이를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거주지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이 동지역 주민들보다 진주시의회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고, 거주기간에서는 대체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의회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

<표 37>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회의 역량

| 구분 |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성 별 | 여성 | 146 | 3.071 | 0.849 | -0.748 | 0.455 |
| | 남성 | 140 | 3.141 | 0.710 | | |
| | 전체 | 286 | 3.105 | 0.783 | | |
| 연 령 | 20대이하 | 59 | 3.245 | 0.620 | 3.729 | 0.006 |
| | 30대 | 54 | 2.981 | 0.816 | | |
| | 40대 | 53 | 3.155 | 0.901 | | |
| | 50대 | 56 | 2.817 | 0.831 | | |
| | 60대이상 | 59 | 3.296 | 0.687 | | |
| | 전체 | 281 | 3.103 | 0.789 | | |
| 거 주 지 | 동지역 | 228 | 3.041 | 0.789 | -2.767 | 0.006 |
| | 읍지역 | 57 | 3.359 | 0.718 | | |
| | 전체 | 285 | 3.105 | 0.785 | | |

| 구분 |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학 력 | 고졸이하 | 50 | 3.030 | 0.813 | 1.598 | 0.204 |
| | 대졸 | 198 | 3.159 | 0.783 | | |
| | 대학원 졸 | 37 | 2.932 | 0.739 | | |
| | 전체 | 285 | 3.107 | 0.784 |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80 | 3.300 | 0.605 | 12.329 | 0.000 |
| | 10-20년 | 65 | 3.388 | 0.677 | | |
| | 20-30년 | 76 | 3.019 | 0.776 | | |
| | 30년 이상 | 65 | 2.684 | 0.895 | | |
| | 전체 | 286 | 3.105 | 0.783 | | |

(1) 정책 개발 및 제안 역량

○ 진주시 의회의 정책 개발 및 제안 역량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거주기간의 경우 대체적으로 장기 거주자의 응답이 더욱 부정적이었는데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응답에서 긍정적인 응답은 13.9%에 불과하였으나 부정적인 응답은 38.5%를 차지하였음.

<표 38> 정책 개발 및 제안 역량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5 10.3% | 18 12.3% | 65 44.5% | 40 27.4% | 8 5.5% | 146 100.0% | $\chi^2=6.785$ df=4 p=.148 |
| | 남성 | 4 2.9% | 22 15.7% | 63 45.0% | 43 30.7% | 8 5.7% | 140 100.0% | |
| | 전체 | 19 6.6% | 40 14.0% | 128 44.8% | 83 29.0% | 16 5.6% | 286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17 7.5% | 36 15.8% | 104 45.6% | 61 26.8% | 10 4.4% | 228 100.0% | $\chi^2=8.366$ df=4 p=.079 |
| | 읍지역 | 2 3.5% | 4 7.0% | 24 42.1% | 21 36.8% | 6 10.5% | 57 100.0% | |
| | 전체 | 19 6.7% | 40 14.0% | 128 44.9% | 82 28.8% | 16 5.6% | 285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5 10.0% | 7 14.0% | 24 48.0% | 10 20.0% | 4 8.0% | 50 100.0% | $\chi^2=14.131$ df=8 p=.078 |
| | 대졸 | 14 7.1% | 25 12.6% | 81 40.9% | 66 33.3% | 12 6.1% | 198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7 18.9% | 23 62.2% | 7 18.9% | 0 0.0% | 37 100.0% | |
| | 전체 | 19 6.7% | 39 13.7% | 128 44.9% | 83 29.1% | 16 5.6% | 285 100.0% | |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연령 | 20대이하 | 2 3.4% | 4 6.8% | 27 45.8% | 23 39.0% | 3 5.1% | 59 100.0% | $\chi^2=22.336$ df=16 p=.133 |
| | 30대 | 6 11.1% | 8 14.8% | 21 38.9% | 15 27.8% | 4 7.4% | 54 100.0% | |
| | 40대 | 7 13.2% | 6 11.3% | 24 45.3% | 13 24.5% | 3 5.7% | 53 100.0% | |
| | 50대 | 2 3.6% | 14 25.0% | 28 50.0% | 10 17.9%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2 3.4% | 8 13.6% | 24 40.7% | 21 35.6% | 4 6.8% | 59 100.0% | |
| | 전체 | 19 6.8% | 40 14.2% | 124 44.1% | 82 29.2% | 16 5.7% | 281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1 1.3% | 3 3.8% | 42 52.5% | 28 35.0% | 6 7.5% | 80 100.0% | $\chi^2=42.413$ df=12 p=.000 |
| | 10-20년 | 2 3.1% | 6 9.2% | 27 41.5% | 24 36.9% | 6 9.2% | 65 100.0% | |
| | 20-30년 | 6 7.9% | 16 21.1% | 28 36.8% | 24 31.6% | 2 2.6% | 76 100.0% | |
| | 30년 이상 | 10 15.4% | 15 23.1% | 31 47.7% | 7 10.8% | 2 3.1% | 65 100.0% | |
| | 전체 | 19 6.6% | 40 14.0% | 128 44.8% | 83 29.0% | 16 5.6% | 286 100.0% | |

(2) 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개성

○ 시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묻는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 중 거주기간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 구체적으로는 ‘3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의 반응이 가장 부정적인 것이 특징인 가운데 의회의 투명성에 대해 ‘30년 이상’ 거주 주민의 경우 21.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표 39> 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개성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9 6.2% | 21 14.4% | 63 43.2% | 47 32.2% | 6 4.1% | 146 100.0% | $\chi^2=2.613$ df=4 p=.625 |
| | 남성 | 6 4.3% | 17 12.1% | 71 50.7% | 38 27.1% | 8 5.7% | 140 100.0% | |
| | 전체 | 15 5.2% | 38 13.3% | 134 46.9% | 85 29.7% | 14 4.9% | 286 100.0% | |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연령 | 20대이하 | 0 0.0% | 8 13.6% | 29 49.2% | 19 32.2% | 3 5.1% | 59 100.0% | $\chi^2=19.071$ df=16 p=.265 |
| | 30대 | 5 9.3% | 9 16.7% | 21 38.9% | 15 27.8% | 4 7.4% | 54 100.0% | |
| | 40대 | 3 5.7% | 6 11.3% | 23 43.4% | 20 37.7% | 1 1.9% | 53 100.0% | |
| | 50대 | 6 10.7% | 9 16.1% | 29 51.8% | 10 17.9%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1 1.7% | 5 8.5% | 29 49.2% | 20 33.9% | 4 6.8% | 59 100.0% | |
| | 전체 | 15 5.3% | 37 13.2% | 131 46.6% | 84 29.9% | 14 5.0% | 281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13 5.7% | 33 14.5% | 109 47.8% | 63 27.6% | 10 4.4% | 228 100.0% | $\chi^2=4.327$ df=4 p=.364 |
| | 읍지역 | 2 3.5% | 5 8.8% | 24 42.1% | 22 38.6% | 4 7.0% | 57 100.0% | |
| | 전체 | 15 5.3% | 38 13.3% | 133 46.7% | 85 29.8% | 14 4.9% | 285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4 8.0% | 6 12.0% | 25 50.0% | 13 26.0% | 2 4.0% | 50 100.0% | $\chi^2=6.801$ df=8 p=.558 |
| | 대졸 | 9 4.5% | 28 14.1% | 85 42.9% | 65 32.8% | 11 5.6% | 198 100.0% | |
| | 대학원 졸 | 2 5.4% | 4 10.8% | 23 62.2% | 7 18.9% | 1 2.7% | 37 100.0% | |
| | 전체 | 15 5.3% | 38 13.3% | 133 46.7% | 85 29.8% | 14 4.9% | 285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0 0.0% | 9 11.3% | 43 53.8% | 22 27.5% | 6 7.5% | 80 100.0% | $\chi^2=36.014$ df=12 p=.000 |
| | 10-20년 | 1 1.5% | 6 9.2% | 27 41.5% | 25 38.5% | 6 9.2% | 65 100.0% | |
| | 20-30년 | 4 5.3% | 9 11.8% | 37 48.7% | 25 32.9% | 1 1.3% | 76 100.0% | |
| | 30년 이상 | 10 15.4% | 14 21.5% | 27 41.5% | 13 20.0% | 1 1.5% | 65 100.0% | |
| | 전체 | 15 5.2% | 38 13.3% | 134 46.9% | 85 29.7% | 14 4.9% | 286 100.0% | |

(3) 시의회 및 시의원의 윤리성

○ 시의회의 윤리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였음. 연령의 경우 '40대'에서 긍정적인 응답자가 43.3%로서 의회의 윤리성을 가장 우수하게 평가하였음. '50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37.5%로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부정적이라 할 수 있음.

- 거주기간에 따른 인식차이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긴 주민일수록 의회의 윤리성을 낮게 인식하였음. 특히, '30년 이상' 장기 거주 주민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자가 20.0%에 불과하였으나 부정적인 응답자는 38.5%를 차지하고 있음.

<표 40> 시의회 및 시의원의 윤리성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7 4.8% | 26 17.8% | 69 47.3% | 35 24.0% | 9 6.2% | 146 100.0% | $\chi^2=2.234$ df=4 p=.693 |
| | 남성 | 7 5.0% | 19 13.6% | 73 52.1% | 36 25.7% | 5 3.6% | 140 100.0% | |
| | 전체 | 14 4.9% | 45 15.7% | 142 49.7% | 71 24.8% | 14 4.9% | 286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0 0.0% | 7 11.9% | 34 57.6% | 16 27.1% | 2 3.4% | 59 100.0% | $\chi^2=29.797$ df=16 p=.019 |
| | 30대 | 4 7.4% | 10 18.5% | 27 50.0% | 12 22.2% | 1 1.9% | 54 100.0% | |
| | 40대 | 2 3.8% | 8 15.1% | 20 37.7% | 19 35.8% | 4 7.5% | 53 100.0% | |
| | 50대 | 6 10.7% | 15 26.8% | 23 41.1% | 11 19.6% | 1 1.8% | 56 100.0% | |
| | 60대이상 | 2 3.4% | 5 8.5% | 35 59.3% | 11 18.6% | 6 10.2% | 59 100.0% | |
| | 전체 | 14 5.0% | 45 16.0% | 139 49.5% | 69 24.6% | 14 5.0% | 281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12 5.3% | 39 17.1% | 117 51.3% | 50 21.9% | 10 4.4% | 228 100.0% | $\chi^2=7.031$ df=4 p=.134 |
| | 읍지역 | 2 3.5% | 6 10.5% | 24 42.1% | 21 36.8% | 4 7.0% | 57 100.0% | |
| | 전체 | 14 4.9% | 45 15.8% | 141 49.5% | 71 24.9% | 14 4.9% | 285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1 2.0% | 10 20.0% | 23 46.0% | 15 30.0% | 1 2.0% | 50 100.0% | $\chi^2=11.750$ df=8 p=.163 |
| | 대졸 | 8 4.0% | 27 13.6% | 101 51.0% | 50 25.3% | 12 6.1% | 198 100.0% | |
| | 대학원 졸 | 5 13.5% | 7 18.9% | 18 48.6% | 6 16.2% | 1 2.7% | 37 100.0% | |
| | 전체 | 14 4.9% | 44 15.4% | 142 49.8% | 71 24.9% | 14 4.9% | 285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1 1.3% | 9 11.3% | 44 55.0% | 25 31.3% | 1 1.3% | 80 100.0% | $\chi^2=34.356$ df=12 p=.001 |
| | 10-20년 | 3 4.6% | 6 9.2% | 28 43.1% | 25 38.5% | 3 4.6% | 65 100.0% | |
| | 20-30년 | 5 6.6% | 10 13.2% | 43 56.6% | 12 15.8% | 6 7.9% | 76 100.0% | |
| | 30년 이상 | 5 7.7% | 20 30.8% | 27 41.5% | 9 13.8% | 4 6.2% | 65 100.0% | |
| | 전체 | 14 4.9% | 45 15.7% | 142 49.7% | 71 24.8% | 14 4.9% | 286 100.0% | |

(4) 시의회 및 시의원의 전문성

- 진주시의회의 전문성에 대한 주민 인식은 인구사회적 변수 중 연령과 거주기간에
서 일정한 차이를 보였음. 연령의 경우 '40대'에서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45.2%로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 부정적인 응답자가 33.3%로서 타 연령층에 비
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됨.
- 거주기간에 따른 인식차이에서는 '10-20년' 거주한 주민의 49.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전문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음. 그러나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
의 반응에서는 응답자의 47.7%가 시의회의 전문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함.

<표 41> 시의회 및 시의원의 전문성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9 13.0% | 25 17.1% | 52 35.6% | 36 24.7% | 14 9.6% | 146 100.0% | $\chi^2=6.427$ df=4 p=.169 |
| | 남성 | 11 7.9% | 18 12.9% | 68 48.6% | 34 24.3% | 9 6.4% | 140 100.0% | |
| | 전체 | 30 10.5% | 43 15.0% | 120 42.0% | 70 24.5% | 23 8.0% | 286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3 5.1% | 7 11.9% | 31 52.5% | 16 27.1% | 2 3.4% | 59 100.0% | $\chi^2=32.002$ df=16 p=.010 |
| | 30대 | 6 11.1% | 12 22.2% | 25 46.3% | 5 9.3% | 6 11.1% | 54 100.0% | |
| | 40대 | 7 13.2% | 6 11.3% | 16 30.2% | 19 35.8% | 5 9.4% | 53 100.0% | |
| | 50대 | 10 17.9% | 13 23.2% | 18 32.1% | 13 23.2%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4 6.8% | 4 6.8% | 28 47.5% | 16 27.1% | 7 11.9% | 59 100.0% | |
| | 전체 | 30 10.7% | 42 14.9% | 118 42.0% | 69 24.6% | 22 7.8% | 281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26 11.4% | 37 16.2% | 98 43.0% | 49 21.5% | 18 7.9% | 228 100.0% | $\chi^2=6.646$ df=4 p=.1556 |
| | 읍지역 | 4 7.0% | 6 10.5% | 21 36.8% | 21 36.8% | 5 8.8% | 57 100.0% | |
| | 전체 | 30 10.5% | 43 15.1% | 119 41.8% | 70 24.6% | 23 8.1% | 285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8 16.0% | 7 14.0% | 19 38.0% | 12 24.0% | 4 8.0% | 50 100.0% | $\chi^2=8.150$ df=8 p=.419 |
| | 대졸 | 17 8.6% | 28 14.1% | 91 46.0% | 45 22.7% | 17 8.6% | 198 100.0% | |
| | 대학원 졸 | 5 13.5% | 8 21.6% | 10 27.0% | 12 32.4% | 2 5.4% | 37 100.0% | |
| | 전체 | 30 10.5% | 43 15.1% | 120 42.1% | 69 24.2% | 23 8.1% | 285 100.0% | |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4 5.0% | 6 7.5% | 42 52.5% | 22 27.5% | 6 7.5% | 80 100.0% | |
| | 10-20년 | 3 4.6% | 6 9.2% | 24 36.9% | 25 38.5% | 7 10.8% | 65 100.0% | |
| | 20-30년 | 10 13.2% | 13 17.1% | 32 42.1% | 17 22.4% | 4 5.3% | 76 100.0% | |
| | 30년 이상 | 13 20.0% | 18 27.7% | 22 33.8% | 6 9.2% | 6 9.2% | 65 100.0% | |
| | 전체 | 30 10.5% | 43 15.0% | 120 42.0% | 70 24.5% | 23 8.0% | 286 100.0% | |

2) 진주시의회의 역할 수행도

- 지방의회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을 포함하는 의결권, 조례제정·개정 및 폐지권, 조례안·결의안·건의안의 발의권,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주민청원 수리 및 처리권 등을 의미함. 이 같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잘 수행되었는가를 설문조사하였음.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양호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30.0%로서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의 25.1%보다 약간 높았음. 그러나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44.9%라는 것은 이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35.3%로서 부정적인 응답자의 15.7%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예산안 및 결산안 처리에 있어 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함.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36.7%, 부정적인 응답자가 20.6%로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았음. 그러므로 진주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해 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대변자로서 의회의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39.8%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20.2%의 응답자가 그 역할 수

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그러므로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의회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임.

- 지역의 갈등 중재 및 조정자로서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35.4%의 응답자가 그 역할 수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15.5%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즉, 진주시의회는 지역의 현안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음.

<표 42> 진주시의회의 역할 수행도

명(%)

| 구분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15 (5.2) | 57 (19.9) | 129 (44.9) | 66 (23.0) | 20 (7.0) | 287 (100.0) |
|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 | 3 (1.0) | 42 (14.7) | 140 (49.0) | 79 (27.6) | 22 (7.7) | 286 (100.0) |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 16 (5.6) | 43 (15.0) | 122 (42.7) | 85 (29.7) | 20 (7.0) | 286 (100.0) |
| 시정질의 | 9 (3.2) | 41 (14.4) | 128 (44.9) | 89 (31.2) | 18 (6.3) | 285 (100.0) |
|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대변 | 15 (5.2) | 43 (15.0) | 115 (40.1) | 90 (31.4) | 24 (8.4) | 287 (100.0) |
| 지역의 갈등 중재 및 조정 | 7 (2.5) | 37 (13.0) | 140 (49.1) | 67 (23.5) | 34 (11.9) | 285 (100.0) |

- 진주시의회의 역할 수행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평균 3.21로서 다소 긍정적인 가운데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에 따라 인식차이를 보였음.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의 응답층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50대와 40대의 응답이 다소 낮았음. 거주지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이 동지역 주민들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거주기간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의회의 역할 수행도를 높이 평가하였음.

<표 4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진주시의회의 역할 수행정도

| 구분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성 별 | 여성 | 143 | 3.177 | -0.855 | 0.393 |
| | 남성 | 138 | 3.246 | | |
| | 전체 | 281 | 3.211 | | |

| | 구분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T, F | 유의확률 |
|------|--------|-----|-------|-------|--------|-------|
| 연령 | 20대이하 | 58 | 3.209 | 0.562 | 2.855 | 0.024 |
| | 30대 | 50 | 3.233 | 0.739 | | |
| | 40대 | 53 | 3.116 | 0.712 | | |
| | 50대 | 55 | 3.036 | 0.751 | | |
| | 60대이상 | 60 | 3.436 | 0.612 | | |
| | 전체 | 276 | 3.210 | 0.685 | | |
| 거주지 | 동지역 | 224 | 3.154 | 0.690 | -2.907 | 0.004 |
| | 읍지역 | 56 | 3.446 | 0.599 | | |
| | 전체 | 280 | 3.212 | 0.682 | | |
| 학력 | 고졸이하 | 50 | 3.260 | 0.671 | 0.242 | 0.785 |
| | 대졸 | 194 | 3.207 | 0.708 | | |
| | 대학원 졸 | 36 | 3.157 | 0.550 | | |
| | 전체 | 280 | 3.210 | 0.682 |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78 | 3.352 | 0.554 | 6.42 | 0.000 |
| | 10-20년 | 64 | 3.385 | 0.587 | | |
| | 20-30년 | 75 | 3.144 | 0.719 | | |
| | 30년 이상 | 64 | 2.942 | 0.774 | | |
| | 전체 | 281 | 3.211 | 0.681 | | |

(1)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및 역할 가운데 하나인 자치입법권인 조례의 제·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 인식을 조사하였음. 분석결과 주민의 인구사회적 특성 중 성별과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한 인식차이를 보였음.
-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여성의 인식이 남성의 인식에 비해 다소 긍정적이었음. 거주기간에 따른 응답결과에서는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응답이 타 거주기간에 비해 더욱 부정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경우 응답자의 43.1%가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 의회의 입법권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표 44>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13 8.9% | 24 16.4% | 62 42.5% | 36 24.7% | 11 7.5% | 146 100.0% | $\chi^2=10.343$ df=4 p=.035 |
| | 남성 | 2 1.4% | 33 23.4% | 67 47.5% | 30 21.3% | 9 6.4% | 141 100.0% | |
| | 전체 | 15 5.2% | 57 19.9% | 129 44.9% | 66 23.0% | 20 7.0% | 287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2 3.4% | 10 16.9% | 32 54.2% | 11 18.6% | 4 6.8% | 59 100.0% | $\chi^2=17.455$ df=16 p=.357 |
| | 30대 | 4 7.4% | 6 11.1% | 26 48.1% | 13 24.1% | 5 9.3% | 54 100.0% | |
| | 40대 | 6 11.3% | 9 17.0% | 24 45.3% | 12 22.6% | 2 3.8% | 53 100.0% | |
| | 50대 | 1 1.8% | 17 30.4% | 23 41.1% | 12 21.4% | 3 5.4% | 56 100.0% | |
| | 60대이상 | 2 3.3% | 12 20.0% | 23 38.3% | 17 28.3% | 6 10.0% | 60 100.0% | |
| | 전체 | 15 5.3% | 54 19.1% | 128 45.4% | 65 23.0% | 20 7.1%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15 6.6% | 50 21.9% | 97 42.5% | 52 22.8% | 14 6.1% | 228 100.0% | $\chi^2=8.504$ df=4 p=.075 |
| | 읍지역 | 0 0.0% | 7 12.1% | 31 53.4% | 14 24.1% | 6 10.3% | 58 100.0% | |
| | 전체 | 15 5.2% | 57 19.9% | 128 44.8% | 66 23.1% | 20 7.0%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2 4.0% | 13 26.0% | 19 38.0% | 11 22.0% | 5 10.0% | 50 100.0% | $\chi^2=7.102$ df=8 p=.526 |
| | 대졸 | 12 6.0% | 36 18.1% | 88 44.2% | 50 25.1% | 13 6.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1 2.7% | 7 18.9% | 22 59.5% | 5 13.5% | 2 5.4% | 37 100.0% | |
| | 전체 | 15 5.2% | 56 19.6% | 129 45.1% | 66 23.1% | 20 7.0%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2 2.5% | 13 16.3% | 38 47.5% | 17 21.3% | 10 12.5% | 80 100.0% | $\chi^2=23.324$ df=12 p=.025 |
| | 10-20년 | 4 6.1% | 8 12.1% | 32 48.5% | 17 25.8% | 5 7.6% | 66 100.0% | |
| | 20-30년 | 5 6.6% | 12 15.8% | 36 47.4% | 19 25.0% | 4 5.3% | 76 100.0% | |
| | 30년 이상 | 4 6.2% | 24 36.9% | 23 35.4% | 13 20.0% | 1 1.5% | 65 100.0% | |
| | 전체 | 15 5.2% | 57 19.9% | 129 44.9% | 66 23.0% | 20 7.0% | 287 100.0% | |

(2)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

-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기구로서 예산심의권을 발휘하여 그 역할을 수행함.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거주지에 따른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음.
- 거주지의 경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동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비해 긍정적이었는데 긍정적 응답자의 비율이 40.3%와 34.2%로서 읍·면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음.

<표 45>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2 1.4% | 26 17.8% | 63 43.2% | 43 29.5% | 12 8.2% | 146 100.0% | $\chi^2=4.793$ df=4 p=.309 |
| | 남성 | 1 0.7% | 16 11.4% | 77 55.0% | 36 25.7% | 10 7.1% | 140 100.0% | |
| | 전체 | 3 1.0% | 42 14.7% | 140 49.0% | 79 27.6% | 22 7.7% | 286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0 0.0% | 7 11.9% | 34 57.6% | 15 25.4% | 3 5.1% | 59 100.0% | $\chi^2=21.932$ df=16 p=.145 |
| | 30대 | 0 0.0% | 12 22.2% | 21 38.9% | 16 29.6% | 5 9.3% | 54 100.0% | |
| | 40대 | 0 0.0% | 8 15.1% | 28 52.8% | 15 28.3% | 2 3.8% | 53 100.0% | |
| | 50대 | 3 5.5% | 7 12.7% | 26 47.3% | 15 27.3% | 4 7.3% | 55 100.0% | |
| | 60대이상 | 0 0.0% | 7 11.7% | 28 46.7% | 17 28.3% | 8 13.3% | 60 100.0% | |
| | 전체 | 3 1.1% | 41 14.6% | 137 48.8% | 78 27.8% | 22 7.8% | 281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3 1.3% | 37 16.2% | 110 48.2% | 66 28.9% | 12 5.3% | 228 100.0% | $\chi^2=12.064$ df=4 p=.017 |
| | 읍지역 | 0 0.0% | 5 8.8% | 29 50.9% | 13 22.8% | 10 17.5% | 57 100.0% | |
| | 전체 | 3 1.1% | 42 14.7% | 139 48.8% | 79 27.7% | 22 7.7% | 285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0 0.0% | 7 14.0% | 22 44.0% | 16 32.0% | 5 10.0% | 50 100.0% | $\chi^2=8.891$ df=8 p=.352 |
| | 대졸 | 2 1.0% | 31 15.7% | 92 46.5% | 57 28.8% | 16 8.1% | 198 100.0% | |
| | 대학원 졸 | 1 2.7% | 4 10.8% | 25 67.6% | 6 16.2% | 1 2.7% | 37 100.0% | |
| | 전체 | 3 1.1% | 42 14.7% | 139 48.8% | 79 27.7% | 22 7.7% | 285 100.0% | |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거주 기간 | 10년미만 | 0 0.0% | 7 8.8% | 40 50.0% | 25 31.3% | 8 10.0% | 80 100.0% | $\chi^2=12.880$ df=12 p=.378 |
| | 10-20년 | 1 1.5% | 9 13.6% | 34 51.5% | 16 24.2% | 6 9.1% | 66 100.0% | |
| | 20-30년 | 0 0.0% | 12 15.8% | 41 53.9% | 19 25.0% | 4 5.3% | 76 100.0% | |
| | 30년 이상 | 2 3.1% | 14 21.9% | 25 39.1% | 19 29.7% | 4 6.3% | 64 100.0% | |
| | 전체 | 3 1.0% | 42 14.7% | 140 49.0% | 79 27.6% | 22 7.7% | 286 100.0% | |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가운데 인구사회적 변수 중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음.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의 응답자 층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34.0%로서 타 학력 소지자들의 부정적 응답자 20%내외에 비해 다소 높았음.

<표 4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1 7.6% | 19 13.1% | 62 42.8% | 43 29.7% | 10 6.9% | 145 100.0% | $\chi^2=2.821$ df=4 p=.588 |
| | 남성 | 5 3.5% | 24 17.0% | 60 42.6% | 42 29.8% | 10 7.1% | 141 100.0% | |
| | 전체 | 16 5.6% | 43 15.0% | 122 42.7% | 85 29.7% | 20 7.0% | 286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1 1.7% | 8 13.6% | 28 47.5% | 20 33.9% | 2 3.4% | 59 100.0% | $\chi^2=20.488$ df=16 p=.199 |
| | 30대 | 3 5.7% | 9 17.0% | 24 45.3% | 12 22.6% | 5 9.4% | 53 100.0% | |
| | 40대 | 5 9.4% | 5 9.4% | 23 43.4% | 18 34.0% | 2 3.8% | 53 100.0% | |
| | 50대 | 4 7.1% | 14 25.0% | 21 37.5% | 15 26.8%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3 5.0% | 6 10.0% | 24 40.0% | 18 30.0% | 9 15.0% | 60 100.0% | |
| | 전체 | 16 5.7% | 42 14.9% | 120 42.7% | 83 29.5% | 20 7.1% | 281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15 6.6% | 34 15.0% | 102 44.9% | 63 27.8% | 13 5.7% | 227 100.0% | $\chi^2=7.438$ df=4 p=.114 |
| | 읍지역 | 1 1.7% | 8 13.8% | 20 34.5% | 22 37.9% | 7 12.1% | 58 100.0% | |
| | 전체 | 16 5.6% | 42 14.7% | 122 42.8% | 85 29.8% | 20 7.0% | 285 100.0% | |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학 력 | 고졸이하 | 2 4.0% | 15 30.0% | 13 26.0% | 15 30.0% | 5 10.0% | 50 100.0% | $\chi^2=21.095$ df=8 p=.007 |
| | 대졸 | 14 7.1% | 21 10.6% | 87 43.9% | 62 31.3% | 14 7.1% | 198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7 18.9% | 21 56.8% | 8 21.6% | 1 2.7% | 37 100.0% | |
| | 전체 | 16 5.6% | 43 15.1% | 121 42.5% | 85 29.8% | 20 7.0% | 285 100.0%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1 1.3% | 11 13.8% | 40 50.0% | 22 27.5% | 6 7.5% | 80 100.0% | $\chi^2=20.938$ df=12 p=.051 |
| | 10-20년 | 1 1.5% | 6 9.2% | 31 47.7% | 23 35.4% | 4 6.2% | 65 100.0% | |
| | 20-30년 | 6 7.9% | 11 14.5% | 27 35.5% | 25 32.9% | 7 9.2% | 76 100.0% | |
| | 30년 이상 | 8 12.3% | 15 23.1% | 24 36.9% | 15 23.1% | 3 4.6% | 65 100.0% | |
| | 전체 | 16 5.6% | 43 15.0% | 122 42.7% | 85 29.7% | 20 7.0% | 286 100.0% | |

(4) 시정질의

○ 진주시의회에서의 시정질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서는 인구사회적 변수 중 거주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인식차이를 보였음.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운데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자가 26.2%로서 평균의 37.5%보다 다소 낮았음.

<표 47> 시정질의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7 4.8% | 23 15.8% | 58 39.7% | 49 33.6% | 9 6.2% | 146 100.0% | $\chi^2=5.254$ df=4 p=.262 |
| | 남성 | 2 1.4% | 18 12.9% | 70 50.4% | 40 28.8% | 9 6.5% | 139 100.0% | |
| | 전체 | 9 3.2% | 41 14.4% | 128 44.9% | 89 31.2% | 18 6.3% | 285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2 3.4% | 8 13.6% | 28 47.5% | 18 30.5% | 3 5.1% | 59 100.0% | $\chi^2=14.325$ df=16 p=.575 |
| | 30대 | 1 1.9% | 8 15.4% | 27 51.9% | 13 25.0% | 3 5.8% | 52 100.0% | |
| | 40대 | 3 5.7% | 6 11.3% | 21 39.6% | 20 37.7% | 3 5.7% | 53 100.0% | |
| | 50대 | 2 3.6% | 12 21.4% | 28 50.0% | 12 21.4%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1 1.7% | 7 11.7% | 21 35.0% | 25 41.7% | 6 10.0% | 60 100.0% | |
| | 전체 | 9 3.2% | 41 14.6% | 125 44.6% | 88 31.4% | 17 6.1% | 280 100.0% | |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거주지 | 동지역 | 8 3.5% | 37 16.3% | 102 44.9% | 65 28.6% | 15 6.6% | 227 100.0% | $\chi^2=5.949$ df=4 p=.203 |
| | 읍지역 | 1 1.8% | 4 7.0% | 25 43.9% | 24 42.1% | 3 5.3% | 57 100.0% | |
| | 전체 | 9 3.2% | 41 14.4% | 127 44.7% | 89 31.3% | 18 6.3% | 284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1 2.0% | 6 12.0% | 23 46.0% | 15 30.0% | 5 10.0% | 50 100.0% | $\chi^2=4.299$ df=8 p=.829 |
| | 대졸 | 8 4.0% | 29 14.6% | 88 44.4% | 61 30.8% | 12 6.1% | 198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6 16.7% | 16 44.4% | 13 36.1% | 1 2.8% | 36 100.0% | |
| | 전체 | 9 3.2% | 41 14.4% | 127 44.7% | 89 31.3% | 18 6.3% | 284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1 1.3% | 8 10.3% | 33 42.3% | 33 42.3% | 3 3.8% | 78 100.0% | $\chi^2=21.164$ df=12 p=.048 |
| | 10-20년 | 1 1.5% | 5 7.6% | 33 50.0% | 21 31.8% | 6 9.1% | 66 100.0% | |
| | 20-30년 | 5 6.6% | 12 15.8% | 32 42.1% | 23 30.3% | 4 5.3% | 76 100.0% | |
| | 30년 이상 | 2 3.1% | 16 24.6% | 30 46.2% | 12 18.5% | 5 7.7% | 65 100.0% | |
| | 전체 | 9 3.2% | 41 14.4% | 128 44.9% | 89 31.2% | 18 6.3% | 285 100.0% | |

(5)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대변

○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민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잘 수렴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음. 그러므로 주민들은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거주기간에 관련 없이 진주시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대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 48>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대변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10 6.8% | 24 16.4% | 55 37.7% | 46 31.5% | 11 7.5% | 146 100.0% | $\chi^2=2.590$ df=4 p=.629 |
| | 남성 | 5 3.5% | 19 13.5% | 60 42.6% | 44 31.2% | 13 9.2% | 141 100.0% | |
| | 전체 | 15 5.2% | 43 15.0% | 115 40.1% | 90 31.4% | 24 8.4% | 287 100.0% | |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연령 | 20대이하 | 2 3.4% | 9 15.3% | 27 45.8% | 20 33.9% | 1 1.7% | 59 100.0% | $\chi^2=13.695$ df=16 p=.621 |
| | 30대 | 4 7.4% | 7 13.0% | 20 37.0% | 16 29.6% | 7 13.0% | 54 100.0% | |
| | 40대 | 4 7.5% | 8 15.1% | 22 41.5% | 16 30.2% | 3 5.7% | 53 100.0% | |
| | 50대 | 3 5.4% | 13 23.2% | 20 35.7% | 16 28.6% | 4 7.1% | 56 100.0% | |
| | 60대이상 | 2 3.3% | 6 10.0% | 24 40.0% | 20 33.3% | 8 13.3% | 60 100.0% | |
| | 전체 | 15 5.3% | 43 15.2% | 113 40.1% | 88 31.2% | 23 8.2%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14 6.1% | 38 16.7% | 86 37.7% | 72 31.6% | 18 7.9% | 228 100.0% | $\chi^2=5.338$ df=4 p=.254 |
| | 읍지역 | 1 1.7% | 5 8.6% | 28 48.3% | 18 31.0% | 6 10.3% | 58 100.0% | |
| | 전체 | 15 5.2% | 43 15.0% | 114 39.9% | 90 31.5% | 24 8.4%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5 10.0% | 7 14.0% | 14 28.0% | 19 38.0% | 5 10.0% | 50 100.0% | $\chi^2=8.768$ df=8 p=.362 |
| | 대졸 | 10 5.0% | 28 14.1% | 86 43.2% | 60 30.2% | 15 7.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8 21.6% | 15 40.5% | 11 29.7% | 3 8.1% | 37 100.0% | |
| | 전체 | 15 5.2% | 43 15.0% | 115 40.2% | 90 31.5% | 23 8.0%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2 2.5% | 7 8.8% | 37 46.3% | 29 36.3% | 5 6.3% | 80 100.0% | $\chi^2=19.119$ df=12 p=.086 |
| | 10-20년 | 1 1.5% | 9 13.6% | 25 37.9% | 21 31.8% | 10 15.2% | 66 100.0% | |
| | 20-30년 | 5 6.6% | 13 17.1% | 28 36.8% | 25 32.9% | 5 6.6% | 76 100.0% | |
| | 30년 이상 | 7 10.8% | 14 21.5% | 25 38.5% | 15 23.1% | 4 6.2% | 65 100.0% | |
| | 전체 | 15 5.2% | 43 15.0% | 115 40.1% | 90 31.4% | 24 8.4% | 287 100.0% | |

(6) 지역의 갈등 중재 및 조정

- 지역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진주시의회가 어느 정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러므로 갈등 조정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진주시민의 특성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49> 지역의 갈등 중재 및 조정

| 구분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5 3.5% | 20 13.9% | 72 50.0% | 33 22.9% | 14 9.7% | 144 100.0% | $\chi^2=2.686$ df=4 p=.612 |
| | 남성 | 2 1.4% | 17 12.1% | 68 48.2% | 34 24.1% | 20 14.2% | 141 100.0% | |
| | 전체 | 7 2.5% | 37 13.0% | 140 49.1% | 67 23.5% | 34 11.9% | 285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0 0.0% | 9 15.5% | 29 50.0% | 15 25.9% | 5 8.6% | 58 100.0% | $\chi^2=26.051$ df=16 p=.053 |
| | 30대 | 1 1.9% | 6 11.3% | 26 49.1% | 11 20.8% | 9 17.0% | 53 100.0% | |
| | 40대 | 2 3.8% | 9 17.0% | 27 50.9% | 13 24.5% | 2 3.8% | 53 100.0% | |
| | 50대 | 4 7.1% | 11 19.6% | 26 46.4% | 9 16.1% | 6 10.7% | 56 100.0% | |
| | 60대이상 | 0 0.0% | 2 3.3% | 28 46.7% | 18 30.0% | 12 20.0% | 60 100.0% | |
| | 전체 | 7 2.5% | 37 13.2% | 136 48.6% | 66 23.6% | 34 12.1% | 280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6 2.7% | 31 13.7% | 115 50.9% | 51 22.6% | 23 10.2% | 226 100.0% | $\chi^2=4.888$ df=4 p=.299 |
| | 읍지역 | 1 1.7% | 6 10.3% | 24 41.4% | 16 27.6% | 11 19.0% | 58 100.0% | |
| | 전체 | 7 2.5% | 37 13.0% | 139 48.9% | 67 23.6% | 34 12.0% | 284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2 4.0% | 3 6.0% | 23 46.0% | 17 34.0% | 5 10.0% | 50 100.0% | $\chi^2=7.580$ df=8 p=.476 |
| | 대졸 | 5 2.5% | 28 14.2% | 97 49.2% | 44 22.3% | 23 11.7% | 197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6 16.2% | 20 54.1% | 6 16.2% | 5 13.5% | 37 100.0% | |
| | 전체 | 7 2.5% | 37 13.0% | 140 49.3% | 67 23.6% | 33 11.6% | 284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0 0.0% | 7 8.8% | 43 53.8% | 18 22.5% | 12 15.0% | 80 100.0% | $\chi^2=20.290$ df=12 p=.062 |
| | 10-20년 | 0 0.0% | 6 9.2% | 28 43.1% | 19 29.2% | 12 18.5% | 65 100.0% | |
| | 20-30년 | 3 4.0% | 11 14.7% | 38 50.7% | 17 22.7% | 6 8.0% | 75 100.0% | |
| | 30년 이상 | 4 6.2% | 13 20.0% | 31 47.7% | 13 20.0% | 4 6.2% | 65 100.0% | |
| | 전체 | 7 2.5% | 37 13.0% | 140 49.1% | 67 23.5% | 34 11.9% | 285 100.0% | |

3) 진주시의회의 정책 기여도

- 진주시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해 진주시 의회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보았음. 정책분야는 경제정책, 주민 복

지정책, 공간정책, 인프라 정책, 문화정책, 안전 관련 정책, 균형발전 정책으로 구분하였음.

-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에 대한 진주시 의회의 기여도에서는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33.4%로서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응답자의 19.8%보다 높았음. 그러나 이는 타 정책 분야의 기여도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임.
- 저소득층 등 주민 복지 정책 관련 기여도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40.8%로서 의회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15.5%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주택·도시계획·공원 등 공간 정책에 대한 시의회의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54.0%로서 ‘기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자 9.4%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이는 설문조사 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
- 도로·교통·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에 대한 기여도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46.7%, 부정적인 응답자가 9.4%로서 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기여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임.
- 예술 공연 등 문화정책에 대한 진주시 의회의 기여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47.0%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부정적인 응답자는 11.8%로 조사됨.
- 안전·방범·방재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진주시의회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40.5%의 주민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16.8%의 주민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이는 최근 중시되는 안전 관련 정책의 점검과 확인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기여에 대해 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함.
- 농촌 및 낙후지역 지원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의회의 기여도에서는 응답자의 37.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19.1%의 응답자는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자가 많았으나 타 정책 기여도와 비교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

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0> 진주시의회의 정책기여도

명(%)

| 구분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한다 | 매우 기여한다 | 전체 |
|------------------------------|------------------|--------------|---------------|---------------|--------------|----------------|
|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정책 | 7 (2.4) | 50 (17.4) | 134 (46.7) | 73 (25.4) | 23 (8.0) | 287 (100.0) |
| 저소득층 등 주민 복지정 책 | 2 (0.7) | 34 (11.8) | 134 (46.7) | 93 (32.4) | 24 (8.4) | 287 (100.0) |
| 주택·도시계획·공원 등 공 간정책 | 5 (1.7) | 22 (7.7) | 105 (36.6) | 138 (48.1) | 17 (5.9) | 287 (100.0) |
| 도로·교통·통신망 등 인프 라 정책 | 6 (2.1) | 21 (7.3) | 126 (43.9) | 111 (38.7) | 23 (8.0) | 287 (100.0) |
| 예술 공연 등 문화정책 | 7 (2.4) | 27 (9.4) | 118 (41.1) | 96 (33.4) | 39 (13.6) | 287 (100.0) |
| 안전 방범 방재 정책 | 6 (2.1) | 42 (14.7) | 122 (42.7) | 89 (31.1) | 27 (9.4) | 286 (100.0) |
| 농촌 및 낙후지역 지원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 | 5 (1.7) | 50 (17.4) | 124 (43.2) | 84 (29.3) | 24 (8.4) | 287 (100.0) |

- 진주시의회의 정책기여도를 종합하면 평균 3.36으로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인식에서는 '60대 이상'의 경우 3.58로서 50대의 평균 3.17보다 더욱 높았음. 거주기간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응답이 평균 3.04로서 낮은 것이 특징임.

(1) 경제정책에 대한 기여도

- 정책 전반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기여도 중 경제정책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거주지와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한 인식차이를 보였음.
- 거주지역의 경우 읍면지역 주민들이 인식하는 진주시의회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여도가 동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비해 긍정적이었음. 구체적으로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자가 8.6%에 불과하였으나 동지역 주민들의 응답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가 22.8%를 차지하였음.
- 진주시 거주기간에 따른 이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경제정책에 대한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기여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3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의 경우 20.1%의 응답자만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표 51> 경제정책에 대한 기여도

| 구분 |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 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 한다 | 매우 기여 한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3 2.1% | 30 20.5% | 67 45.9% | 36 24.7% | 10 6.8% | 146 100.0% | $\chi^2=3.641$ df=4 p=.652 |
| | 남성 | 4 2.8% | 20 14.2% | 67 47.5% | 37 26.2% | 13 9.2% | 141 100.0% | |
| | 전체 | 7 2.4% | 50 17.4% | 134 46.7% | 73 25.4% | 23 8.0% | 287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1 1.7% | 8 13.6% | 27 45.8% | 20 33.9% | 3 5.1% | 59 100.0% | $\chi^2=21.488$ df=16 p=.161 |
| | 30대 | 0 0.0% | 9 16.7% | 26 48.1% | 16 29.6% | 3 5.6% | 54 100.0% | |
| | 40대 | 3 5.7% | 11 20.8% | 29 54.7% | 8 15.1% | 2 3.8% | 53 100.0% | |
| | 50대 | 2 3.6% | 15 26.8% | 20 35.7% | 14 25.0% | 5 8.9% | 56 100.0% | |
| | 60대이상 | 1 1.7% | 7 11.7% | 29 48.3% | 14 23.3% | 9 15.0% | 60 100.0% | |
| | 전체 | 7 2.5% | 50 17.7% | 131 46.5% | 72 25.5% | 22 7.8%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7 3.1% | 45 19.7% | 101 44.3% | 54 23.7% | 21 9.2% | 228 100.0% | $\chi^2=9.625$ df=4 p=.047 |
| | 읍지역 | 0 0.0% | 5 8.6% | 32 55.2% | 19 32.8% | 2 3.4% | 58 100.0% | |
| | 전체 | 7 2.4% | 50 17.5% | 133 46.5% | 73 25.5% | 23 8.0%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3 6.0% | 4 8.0% | 34 68.0% | 6 12.0% | 3 6.0% | 50 100.0% | $\chi^2=20.091$ df=8 p=.010 |
| | 대졸 | 4 2.0% | 36 18.1% | 86 43.2% | 55 27.6% | 18 9.0%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10 27.0% | 13 35.1% | 12 32.4% | 2 5.4% | 37 100.0% | |
| | 전체 | 7 2.4% | 50 17.5% | 133 46.5% | 73 25.5% | 23 8.0%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1 1.3% | 5 6.3% | 49 61.3% | 21 26.3% | 4 5.0% | 80 100.0% | $\chi^2=40.269$ df=12 p=.000 |
| | 10-20년 | 1 1.5% | 6 9.1% | 31 47.0% | 24 36.4% | 4 6.1% | 66 100.0% | |
| | 20-30년 | 2 2.6% | 16 21.1% | 28 36.8% | 21 27.6% | 9 11.8% | 76 100.0% | |
| | 30년 이상 | 3 4.6% | 23 35.4% | 26 40.0% | 7 10.8% | 6 9.2% | 65 100.0% | |
| | 전체 | 7 2.4% | 50 17.4% | 134 46.7% | 73 25.4% | 23 8.0% | 287 100.0% | |

(2) 주민 복지 정책에 대한 기여도

- 지방자치의 본연의 의무라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 관련 정책에 진주시 의회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에 따른 인식차이가 존재함.
- 거주기간의 경우 '20-30년' 거주한 주민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자가 15.8%로 그 이하의 기간 동안 거주한 주민들의 인식에 비해 다소 부정적이었음. 전체적으로는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인 응답자(30.8%)와 부정적인 응답자(26.2%)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일 만큼 거주기간이 짧은 응답자들에 비해 진주시의회의 주민 복지 정책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임.

<표 52> 주민복지 정책에 대한 기여도

| 구분 |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 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 한다 | 매우 기여 한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1 0.7% | 20 13.7% | 65 44.5% | 47 32.2% | 13 8.9% | 146 100.0% | $\chi^2=1.269$ df=4 p=.867 |
| | 남성 | 1 0.7% | 14 9.9% | 69 48.9% | 46 32.6% | 11 7.8% | 141 100.0% | |
| | 전체 | 2 0.7% | 34 11.8% | 134 46.7% | 93 32.4% | 24 8.4% | 287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0 0.0% | 6 10.2% | 26 44.1% | 24 40.7% | 3 5.1% | 59 100.0% | $\chi^2=24.889$ df=16 p=.072 |
| | 30대 | 0 0.0% | 7 13.0% | 28 51.9% | 15 27.8% | 4 7.4% | 54 100.0% | |
| | 40대 | 1 1.9% | 9 17.0% | 24 45.3% | 16 30.2% | 3 5.7% | 53 100.0% | |
| | 50대 | 1 1.8% | 11 19.6% | 19 33.9% | 20 35.7% | 5 8.9% | 56 100.0% | |
| | 60대이상 | 0 0.0% | 1 1.7% | 36 60.0% | 14 23.3% | 9 15.0% | 60 100.0% | |
| | 전체 | 2 0.7% | 34 12.1% | 133 47.2% | 89 31.6% | 24 8.5%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2 0.9% | 27 11.8% | 107 46.9% | 70 30.7% | 22 9.6% | 228 100.0% | $\chi^2=3.382$ df=4 p=.496 |
| | 읍지역 | 0 0.0% | 7 12.1% | 27 46.6% | 22 37.9% | 2 3.4% | 58 100.0% | |
| | 전체 | 2 0.7% | 34 11.9% | 134 46.9% | 92 32.2% | 24 8.4%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0 0.0% | 4 8.0% | 27 54.0% | 15 30.0% | 4 8.0% | 50 100.0% | $\chi^2=3.960$ df=8 p=.861 |
| | 대졸 | 2 1.0% | 25 12.6% | 91 45.7% | 63 31.7% | 18 9.0%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5 13.5% | 15 40.5% | 15 40.5% | 2 5.4% | 37 100.0% | |
| | 전체 | 2 0.7% | 34 11.9% | 133 46.5% | 93 32.5% | 24 8.4% | 286 100.0% | |

| 구분 |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 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 한다 | 매우 기여 한다 | 전체 | χ^2 , df, p |
|----------|--------|------------------|-----------------|--------------|-------------|----------------|---------------|------------------------------------|
| 거주 기간 | 10년미만 | 0 0.0% | 5 6.3% | 38 47.5% | 31 38.8% | 6 7.5% | 80 100.0% | $\chi^2=25.763$ df=12 p=.012 |
| | 10-20년 | 0 0.0% | 2 3.0% | 36 54.5% | 22 33.3% | 6 9.1% | 66 100.0% | |
| | 20-30년 | 0 0.0% | 12 15.8% | 32 42.1% | 24 31.6% | 8 10.5% | 76 100.0% | |
| | 30년 이상 | 2 3.1% | 15 23.1% | 28 43.1% | 16 24.6% | 4 6.2% | 65 100.0% | |
| | 전체 | 2 0.7% | 34 11.8% | 134 46.7% | 93 32.4% | 24 8.4% | 287 100.0% | |

(3) 도시 공간 정책에 대한 기여도

- 도시계획등 공간 정책에 대한 시의회의 기여도에서는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드러남. 연령에 따른 해당 정책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임. ‘60대 이상’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자가 71.6%로서 타 연령층의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54.2%)에 비해 매우 높음.
- 거주기간에 따른 진주시의 공간 정책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10-20년’ 거주한 주민들의 인식이 가장 긍정적인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음.

<표 53> 도시 공간 정책에 대한 기여도

| 구분 |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 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 한다 | 매우 기여 한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5 3.4% | 12 8.2% | 52 35.6% | 70 47.9% | 7 4.8% | 146 100.0% | $\chi^2=5.664$ df=4 p=.226 |
| | 남성 | 0 0.0% | 10 7.1% | 53 37.6% | 68 48.2% | 10 7.1% | 141 100.0% | |
| | 전체 | 5 1.7% | 22 7.7% | 105 36.6% | 138 48.1% | 17 5.9%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0 0.0% | 3 5.1% | 24 40.7% | 25 42.4% | 7 11.9% | 59 100.0% | $\chi^2=31.040$ df=16 p=.013 |
| | 30대 | 1 1.9% | 7 13.0% | 17 31.5% | 24 44.4% | 5 9.3% | 54 100.0% | |
| | 40대 | 2 3.8% | 1 1.9% | 26 49.1% | 22 41.5% | 2 3.8% | 53 100.0% | |
| | 50대 | 2 3.6% | 7 12.5% | 22 39.3% | 24 42.9% | 1 1.8% | 56 100.0% | |
| | 60대이상 | 0 0.0% | 3 5.0% | 14 23.3% | 41 68.3% | 2 3.3% | 60 100.0% | |
| | 전체 | 5 1.8% | 21 7.4% | 103 36.5% | 136 48.2% | 17 6.0% | 282 100.0% | |

| 구분 |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 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 한다 | 매우 기여 한다 | 전체 | χ^2 , df, p |
|------|--------|------------------|-----------------|--------------|--------------|----------------|---------------|------------------------------------|
| 거주지 | 동지역 | 5 2.2% | 20 8.8% | 84 36.8% | 106 46.5% | 13 5.7% | 228 100.0% | $\chi^2=3.559$ df=4 p=.469 |
| | 읍지역 | 0 0.0% | 2 3.4% | 21 36.2% | 31 53.4% | 4 6.9% | 58 100.0% | |
| | 전체 | 5 1.7% | 22 7.7% | 105 36.7% | 137 47.9% | 17 5.9%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0 0.0% | 4 8.0% | 18 36.0% | 26 52.0% | 2 4.0% | 50 100.0% | $\chi^2=3.644$ df=8 p=.888 |
| | 대졸 | 4 2.0% | 14 7.0% | 71 35.7% | 96 48.2% | 14 7.0%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1 2.7% | 4 10.8% | 15 40.5% | 16 43.2% | 1 2.7% | 37 100.0% | |
| | 전체 | 5 1.7% | 22 7.7% | 104 36.4% | 138 48.3% | 17 5.9%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0 0.0% | 2 2.5% | 38 47.5% | 36 45.0% | 4 5.0% | 80 100.0% | $\chi^2=28.784$ df=12 p=.004 |
| | 10-20년 | 0 0.0% | 5 7.6% | 18 27.3% | 39 59.1% | 4 6.1% | 66 100.0% | |
| | 20-30년 | 3 3.9% | 3 3.9% | 26 34.2% | 37 48.7% | 7 9.2% | 76 100.0% | |
| | 30년 이상 | 2 3.1% | 12 18.5% | 23 35.4% | 26 40.0% | 2 3.1% | 65 100.0% | |
| | 전체 | 5 1.7% | 22 7.7% | 105 36.6% | 138 48.1% | 17 5.9% | 287 100.0% | |

(4) 도로 교통 통신망 등 인프라 정책에 대한 기여도

○ 진주시 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기여도를 대체적으로 높
이 인식하는 가운데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의 통계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음.

<표 54> 도시 교통 통신망 등 인프라 정책에 대한 기여도

| 구분 |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 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 한다 | 매우 기여 한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6 4.1% | 13 8.9% | 59 40.4% | 56 38.4% | 12 8.2% | 146 100.0% | $\chi^2=7.666$ df=4 p=.105 |
| | 남성 | 0 0.0% | 8 5.7% | 67 47.5% | 55 39.0% | 11 7.8% | 141 100.0% | |
| | 전체 | 6 2.1% | 21 7.3% | 126 43.9% | 111 38.7% | 23 8.0% | 287 100.0% | |

| 구분 |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 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 한다 | 매우 기여 한다 | 전체 | χ^2 , df, p |
|------|--------|------------------|-----------------|--------------|--------------|----------------|---------------|------------------------------------|
| 연령 | 20대이하 | 1 1.7% | 5 8.5% | 28 47.5% | 20 33.9% | 5 8.5% | 59 100.0% | $\chi^2=23.488$ df=16 p=.101 |
| | 30대 | 1 1.9% | 2 3.7% | 26 48.1% | 21 38.9% | 4 7.4% | 54 100.0% | |
| | 40대 | 1 1.9% | 4 7.5% | 29 54.7% | 14 26.4% | 5 9.4% | 53 100.0% | |
| | 50대 | 2 3.6% | 8 14.3% | 23 41.1% | 19 33.9% | 4 7.1% | 56 100.0% | |
| | 60대이상 | 1 1.7% | 1 1.7% | 17 28.3% | 36 60.0% | 5 8.3% | 60 100.0% | |
| | 전체 | 6 2.1% | 20 7.1% | 123 43.6% | 110 39.0% | 23 8.2%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6 2.6% | 18 7.9% | 98 43.0% | 89 39.0% | 17 7.5% | 228 100.0% | $\chi^2=2.863$ df=4 p=.581 |
| | 읍지역 | 0 0.0% | 3 5.2% | 28 48.3% | 21 36.2% | 6 10.3% | 58 100.0% | |
| | 전체 | 6 2.1% | 21 7.3% | 126 44.1% | 110 38.5% | 23 8.0%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1 2.0% | 4 8.0% | 16 32.0% | 26 52.0% | 3 6.0% | 50 100.0% | $\chi^2=5.105$ df=8 p=.746 |
| | 대졸 | 4 2.0% | 14 7.0% | 92 46.2% | 72 36.2% | 17 8.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1 2.7% | 3 8.1% | 17 45.9% | 13 35.1% | 3 8.1% | 37 100.0% | |
| | 전체 | 6 2.1% | 21 7.3% | 125 43.7% | 111 38.8% | 23 8.0%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0 0.0% | 3 3.8% | 40 50.0% | 32 40.0% | 5 6.3% | 80 100.0% | $\chi^2=15.212$ df=12 p=.230 |
| | 10-20년 | 1 1.5% | 4 6.1% | 29 43.9% | 27 40.9% | 5 7.6% | 66 100.0% | |
| | 20-30년 | 2 2.6% | 4 5.3% | 31 40.8% | 30 39.5% | 9 11.8% | 76 100.0% | |
| | 30년 이상 | 3 4.6% | 10 15.4% | 26 40.0% | 22 33.8% | 4 6.2% | 65 100.0% | |
| | 전체 | 6 2.1% | 21 7.3% | 126 43.9% | 111 38.7% | 23 8.0% | 287 100.0% | |

(5) 문화 정책에 대한 기여도

- 문화 예술 등 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시의회의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성별과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
- 성별에서는 남성의 인식이 여성의 인식에 비해 긍정적이었는데 남성의 경우 문화 정책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는 응답자가 48.2%로서 여성 응답자의 긍정적인 응답자 45.9%와 거의 비슷하였으나 부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음.

<표 55> 문화정책에 대한 기여도

| 구분 |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 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 한다 | 매우 기여 한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5 3.4% | 19 13.0% | 55 37.7% | 42 28.8% | 25 17.1% | 146 100.0% | $\chi^2=10.828$ df=4 p=.029 |
| | 남성 | 2 1.4% | 8 5.7% | 63 44.7% | 54 38.3% | 14 9.9% | 141 100.0% | |
| | 전체 | 7 2.4% | 27 9.4% | 118 41.1% | 96 33.4% | 39 13.6% | 287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1 1.7% | 5 8.5% | 24 40.7% | 15 25.4% | 14 23.7% | 59 100.0% | $\chi^2=18.623$ df=16 p=.289 |
| | 30대 | 1 1.9% | 5 9.3% | 25 46.3% | 17 31.5% | 6 11.1% | 54 100.0% | |
| | 40대 | 2 3.8% | 3 5.7% | 21 39.6% | 19 35.8% | 8 15.1% | 53 100.0% | |
| | 50대 | 3 5.4% | 10 17.9% | 21 37.5% | 18 32.1% | 4 7.1% | 56 100.0% | |
| | 60대이상 | 0 0.0% | 4 6.7% | 25 41.7% | 24 40.0% | 7 11.7% | 60 100.0% | |
| | 전체 | 7 2.5% | 27 9.6% | 116 41.1% | 93 33.0% | 39 13.8%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5 2.2% | 25 11.0% | 95 41.7% | 73 32.0% | 30 13.2% | 228 100.0% | $\chi^2=3.786$ df=4 p=.436 |
| | 읍지역 | 2 3.4% | 2 3.4% | 23 39.7% | 22 37.9% | 9 15.5% | 58 100.0% | |
| | 전체 | 7 2.4% | 27 9.4% | 118 41.3% | 95 33.2% | 39 13.6%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1 2.0% | 3 6.0% | 23 46.0% | 16 32.0% | 7 14.0% | 50 100.0% | $\chi^2=5.226$ df=8 p=.733 |
| | 대졸 | 5 2.5% | 17 8.5% | 81 40.7% | 68 34.2% | 28 14.1%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1 2.7% | 7 18.9% | 14 37.8% | 11 29.7% | 4 10.8% | 37 100.0% | |
| | 전체 | 7 2.4% | 27 9.4% | 118 41.3% | 95 33.2% | 39 13.6%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1 1.3% | 4 5.0% | 37 46.3% | 28 35.0% | 10 12.5% | 80 100.0% | $\chi^2=25.632$ df=12 p=.012 |
| | 10-20년 | 1 1.5% | 3 4.5% | 27 40.9% | 25 37.9% | 10 15.2% | 66 100.0% | |
| | 20-30년 | 2 2.6% | 5 6.6% | 31 40.8% | 23 30.3% | 15 19.7% | 76 100.0% | |
| | 30년 이상 | 3 4.6% | 15 23.1% | 23 35.4% | 20 30.8% | 4 6.2% | 65 100.0% | |
| | 전체 | 7 2.4% | 27 9.4% | 118 41.1% | 96 33.4% | 39 13.6% | 287 100.0% | |

(6) 안전 방법 방재 정책에 대한 기여도

- 주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시의회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실시한 통계분석 결과 거주지와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임. 거주지에서는 읍·면지역 거주 응답자들이 동지역 거주 응답자들의 인식에 비해 더욱 긍정적이었음. 읍·지역 주민들의 경우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주민이 62.0%로서 동지역 주민의 긍정적인 응답자 35.3%에 비해 더욱 높은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 정책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기여도에서는 ‘30년 이상’ 진주시에 거주한 주민들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임.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응답에서 긍정적인 응답자가 30.8%로서 전체 평균 40.5%에 비해 낮았음.

<표 56> 안전방법방재 정책에 대한 기여도

| 구분 |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 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 한다 | 매우 기여 한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6 4.1% | 21 14.5% | 60 41.4% | 43 29.7% | 15 10.3% | 145 100.0% | $\chi^2=6.413$ df=4 p=.170 |
| | 남성 | 0 0.0% | 21 14.9% | 62 44.0% | 46 32.6% | 12 8.5% | 141 100.0% | |
| | 전체 | 6 2.1% | 42 14.7% | 122 42.7% | 89 31.1% | 27 9.4% | 286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0 0.0% | 8 13.6% | 28 47.5% | 17 28.8% | 6 10.2% | 59 100.0% | $\chi^2=19.014$ df=16 p=.268 |
| | 30대 | 2 3.8% | 10 18.9% | 24 45.3% | 13 24.5% | 4 7.5% | 53 100.0% | |
| | 40대 | 2 3.8% | 6 11.3% | 21 39.6% | 19 35.8% | 5 9.4% | 53 100.0% | |
| | 50대 | 2 3.6% | 13 23.2% | 22 39.3% | 17 30.4%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0 0.0% | 4 6.7% | 24 40.0% | 22 36.7% | 10 16.7% | 60 100.0% | |
| | 전체 | 6 2.1% | 41 14.6% | 119 42.3% | 88 31.3% | 27 9.6% | 281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6 2.6% | 34 15.0% | 107 47.1% | 63 27.8% | 17 7.5% | 227 100.0% | $\chi^2=16.283$ df=4 p=.003 |
| | 읍지역 | 0 0.0% | 8 13.8% | 14 24.1% | 26 44.8% | 10 17.2% | 58 100.0% | |
| | 전체 | 6 2.1% | 42 14.7% | 121 42.5% | 89 31.2% | 27 9.5% | 285 100.0% | |

| 구분 |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 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 한다 | 매우 기여 한다 | 전체 | χ^2 , df, p |
|------------------|--------|------------------|-----------------|--------------|-------------|----------------|---------------|------------------------------------|
| 학 력 | 고졸이하 | 0 0.0% | 6 12.2% | 23 46.9% | 14 28.6% | 6 12.2% | 49 100.0% | $\chi^2=3.613$ df=8 p=.890 |
| | 대졸 | 5 2.5% | 29 14.6% | 82 41.2% | 65 32.7% | 18 9.0%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1 2.7% | 7 18.9% | 17 45.9% | 9 24.3% | 3 8.1% | 37 100.0% | |
| | 전체 | 6 2.1% | 42 14.7% | 122 42.8% | 88 30.9% | 27 9.5% | 285 100.0%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0 0.0% | 8 10.0% | 37 46.3% | 24 30.0% | 11 13.8% | 80 100.0% | $\chi^2=21.829$ df=12 p=.039 |
| | 10-20년 | 0 0.0% | 10 15.2% | 27 40.9% | 23 34.8% | 6 9.1% | 66 100.0% | |
| | 20-30년 | 2 2.7% | 7 9.3% | 34 45.3% | 25 33.3% | 7 9.3% | 75 100.0% | |
| | 30년 이상 | 4 6.2% | 17 26.2% | 24 36.9% | 17 26.2% | 3 4.6% | 65 100.0% | |
| | 전체 | 6 2.1% | 42 14.7% | 122 42.7% | 89 31.1% | 27 9.4% | 286 100.0% | |

(7)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기여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 균형 발전에 기반한 지방자치 및 분권의 강화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정책적 처방임. 이 같은 의미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진주시 의회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 중 거주기간에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음.

○ 거주기간에서는 30년미만의 기간 동안 진주시에 거주한 주민들은 거의 비슷한 응답 결과를 보였으나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응답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50.0%로서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 23.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표 57>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기여도

| 구분 |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 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 한다 | 매우 기여 한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4 2.7% | 30 20.5% | 60 41.1% | 40 27.4% | 12 8.2% | 146 100.0% | $\chi^2=4.034$ df=4 p=.401 |
| | 남성 | 1 0.7% | 20 14.2% | 64 45.4% | 44 31.2% | 12 8.5% | 141 100.0% | |
| | 전체 | 5 1.7% | 50 17.4% | 124 43.2% | 84 29.3% | 24 8.4% | 287 100.0% | |

| 구분 |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 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 한다 | 매우 기여 한다 | 전체 | χ^2 , df, p |
|------|--------|------------------|-----------------|--------------|-------------|----------------|---------------|------------------------------------|
| 연령 | 20대이하 | 0 0.0% | 11 18.6% | 26 44.1% | 18 30.5% | 4 6.8% | 59 100.0% | $\chi^2=23.557$ df=16 p=.100 |
| | 30대 | 1 1.9% | 10 18.5% | 26 48.1% | 14 25.9% | 3 5.6% | 54 100.0% | |
| | 40대 | 0 0.0% | 11 20.8% | 21 39.6% | 19 35.8% | 2 3.8% | 53 100.0% | |
| | 50대 | 3 5.4% | 14 25.0% | 22 39.3% | 12 21.4% | 5 8.9% | 56 100.0% | |
| | 60대이상 | 1 1.7% | 3 5.0% | 27 45.0% | 19 31.7% | 10 16.7% | 60 100.0% | |
| | 전체 | 5 1.8% | 49 17.4% | 122 43.3% | 82 29.1% | 24 8.5%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3 1.3% | 45 19.7% | 100 43.9% | 64 28.1% | 16 7.0% | 228 100.0% | $\chi^2=7.838$ df=4 p=.098 |
| | 읍지역 | 2 3.4% | 5 8.6% | 23 39.7% | 20 34.5% | 8 13.8% | 58 100.0% | |
| | 전체 | 5 1.7% | 50 17.5% | 123 43.0% | 84 29.4% | 24 8.4%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1 2.0% | 7 14.0% | 20 40.0% | 16 32.0% | 6 12.0% | 50 100.0% | $\chi^2=11.270$ df=8 p=.187 |
| | 대졸 | 2 1.0% | 33 16.6% | 93 46.7% | 58 29.1% | 13 6.5%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2 5.4% | 10 27.0% | 11 29.7% | 9 24.3% | 5 13.5% | 37 100.0% | |
| | 전체 | 5 1.7% | 50 17.5% | 124 43.4% | 83 29.0% | 24 8.4%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2 2.5% | 8 10.0% | 41 51.3% | 23 28.8% | 6 7.5% | 80 100.0% | $\chi^2=32.224$ df=12 p=.001 |
| | 10-20년 | 0 0.0% | 9 13.6% | 26 39.4% | 27 40.9% | 4 6.1% | 66 100.0% | |
| | 20-30년 | 1 1.3% | 9 11.8% | 33 43.4% | 23 30.3% | 10 13.2% | 76 100.0% | |
| | 30년 이상 | 2 3.1% | 24 36.9% | 24 36.9% | 11 16.9% | 4 6.2% | 65 100.0% | |
| | 전체 | 5 1.7% | 50 17.4% | 124 43.2% | 84 29.3% | 24 8.4% | 287 100.0% | |

4. 진주시의회의 역량 및 역할 강화 방안

1) 진주시의회 역량 및 역할 강화의 장애 요인

- 진주시 의회의 역할 수행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시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39.9%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예산부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20.3%로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 부족(14.6%)’, ‘주민의 관심 부족(7.5%)’, ‘의회의 지원인력 부족(6.8%)’, ‘정당 간 경쟁 부재(6.4%)’, ‘강력한 이해 집단의 존재(4.6%)’

순으로 응답하였음.

- 한편, 2순위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주민의 관심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2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력한 이해 집단의 존재’가 17.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 부족(13.8%)’, ‘의원의 전문성 부족(13.5%)’, ‘예산부족(10.5%)’, ‘정당 간 경쟁 부재(9.8%)’, ‘의회 지원인력 부족(9.1%)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주민들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등 의회 내부의 내생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즉, 진주시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개별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의원의 자질 향상과 함께 의회의 권한 강화 및 의정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음.
- 2순위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1순위 장애요인에 대한 결과와는 달리 주로 지방의회의 외생적 요인을 선택한 것이 특징적임.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주체로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함. 특히, 주민의 관심 부족과 지역내의 강력한 이해 집단의 존재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

<표 58> 진주시의회 역량 및 역할 강화의 장애 요인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
| | 빈도(명) | 순위 | 빈도(명) | 순위 |
| 예산 부족 | 57 (20.3%) | 2 | 29 (10.5%) | 5 |
| 지방의회의 권한 부족 | 41 (14.6%) | 3 | 38 (13.8%) | 3 |
| 의원의 전문성 부족 | 112 (39.9%) | 1 | 37 (13.5%) | 4 |
| 의회 지원인력 부족 | 19 (6.8%) | 5 | 25 (9.1%) | 7 |
| 정당 간 경쟁 부재 | 18 (6.4%) | 6 | 27 (9.8%) | 6 |
| 주민의 관심 부족 | 21 (7.5%) | 4 | 67 (24.4%) | 1 |
| 강력한 이해 집단의 존재 | 13 (4.6%) | 7 | 49 (17.8%) | 2 |
| 기타 | 0 (0.0%) | 8 | 3 (1.1%) | 8 |
| 전체 | 281 (100.0%) | | 275 (100.0%) | |

(1) 의회 역량 강화 장애 요인(1순위)

-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는 요인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 중 연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연령의 경우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의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 '50대'의 연령층에서는 무려 57.1%가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40대'의 연령층에서는 응답자 42.3%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였음. 나머지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과 관련 없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형성하고 있음.

<표 59> 진주시의회 역량·역할 강화의 장애 요인(1순위)

| 구분 | | 예산 부족 | 지방의회의 권한 부족 | 의원의 전문성 부족 | 의회 지원인력 부족 | 정당 간 경쟁 부재 | 주민의 관심 부족 | 강력한 이해 집단의 존재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27 19.1% | 16 11.3% | 60 42.6% | 8 5.7% | 9 6.4% | 11 7.8% | 10 7.1% | 141 100.0% | $\chi^2=6.992$ df=6 p=.322 |
| | 남성 | 30 21.4% | 25 17.9% | 52 37.1% | 11 7.9% | 9 6.4% | 10 7.1% | 3 2.1% | 140 100.0% | |
| | 전체 | 57 20.3% | 41 14.6% | 112 39.9% | 19 6.8% | 18 6.4% | 21 7.5% | 13 4.6% | 281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16 28.1% | 9 15.8% | 16 28.1% | 4 7.0% | 3 5.3% | 7 12.3% | 2 3.5% | 57 100.0% | $\chi^2=37.393$ df=24 p=.040 |
| | 30대 | 10 19.6% | 10 19.6% | 19 37.3% | 2 3.9% | 2 3.9% | 4 7.8% | 4 7.8% | 51 100.0% | |
| | 40대 | 10 19.2% | 8 15.4% | 22 42.3% | 0 0.0% | 4 7.7% | 4 7.7% | 4 7.7% | 52 100.0% | |
| | 50대 | 8 14.3% | 7 12.5% | 32 57.1% | 2 3.6% | 3 5.4% | 2 3.6% | 2 3.6% | 56 100.0% | |
| | 60대이상 | 12 20.0% | 6 10.0% | 22 36.7% | 11 18.3% | 5 8.3% | 4 6.7% | 0 0.0% | 60 100.0% | |
| | 전체 | 56 20.3% | 40 14.5% | 111 40.2% | 19 6.9% | 17 6.2% | 21 7.6% | 12 4.3% | 276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39 17.4% | 30 13.4% | 95 42.4% | 15 6.7% | 14 6.3% | 19 8.5% | 12 5.4% | 224 100.0% | $\chi^2=10.876$ df=6 p=.092 |
| | 읍지역 | 18 32.1% | 11 19.6% | 16 28.6% | 4 7.1% | 4 7.1% | 2 3.6% | 1 1.8% | 56 100.0% | |
| | 전체 | 57 20.4% | 41 14.6% | 111 39.6% | 19 6.8% | 18 6.4% | 21 7.5% | 13 4.6% | 280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9 18.0% | 12 24.0% | 19 38.0% | 4 8.0% | 4 8.0% | 2 4.0% | 0 0.0% | 50 100.0% | $\chi^2=16.956$ df=12 p=.151 |
| | 대졸 | 41 21.2% | 26 13.5% | 74 38.3% | 12 6.2% | 14 7.3% | 17 8.8% | 9 4.7% | 193 100.0% | |
| | 대학원졸 | 7 18.9% | 2 5.4% | 19 51.4% | 3 8.1% | 0 0.0% | 2 5.4% | 4 10.8% | 37 100.0% | |
| | 전체 | 57 20.4% | 40 14.3% | 112 40.0% | 19 6.8% | 18 6.4% | 21 7.5% | 13 4.6% | 280 100.0% | |

| 구분 | 예산 부족 | 지방의회의 권한 부족 | 의원의 전문성 부족 | 의회 지원인력 부족 | 정당 간 경쟁 부재 | 주민의 관심 부족 | 강력한 이해 집단의 존재 | 전체 | χ^2 , df, p |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21 26.3% | 9 11.3% | 24 30.0% | 4 5.0% | 6 7.5% | 9 11.3% | 7 8.8% | 80 100.0% | $\chi^2=25.400$ df=18 p=.114 |
| | 10-20년 | 17 26.2% | 13 20.0% | 23 35.4% | 4 6.2% | 3 4.6% | 4 6.2% | 1 1.5% | 65 100.0% | |
| | 20-30년 | 9 12.2% | 14 18.9% | 31 41.9% | 7 9.5% | 6 8.1% | 5 6.8% | 2 2.7% | 74 100.0% | |
| | 30년이상 | 10 16.1% | 5 8.1% | 34 54.8% | 4 6.5% | 3 4.8% | 3 4.8% | 3 4.8% | 62 100.0% | |
| | 전체 | 57 20.3% | 41 14.6% | 112 39.9% | 19 6.8% | 18 6.4% | 21 7.5% | 13 4.6% | 281 100.0% | |

(2) 의회 역량 강화 장애 요인(2순위)

- 의회 역량 강화의 걸림돌이 되는 2순위 장애 요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인구사회적 특성 중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 ‘20대 이하’의 응답자에서는 ‘주민의 관심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강력한 이해 집단의 존재’와 ‘지방의회의 권한 부족’이 높게 나타남. ‘30대’의 연령에서는 ‘주민의 관심부족’, ‘의회의 전문성 부족’, ‘강력한 이해 집단의 존재’ 순으로 조사됨. ‘40대’의 응답결과에서는 ‘주민의 관심 부족’과 ‘강력한 이해 집단의 존재’가 같은 비율로 높게 나타남. ‘50대’의 반응에서는 ‘강력한 이해 집단의 존재’와 ‘주민의 관심부족’, ‘지방의회의 권한 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예산부족’과 ‘지방의회의 권한 부족’을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60> 의회 역량 강화 장애 요인(2순위)

| 구분 | 예산 부족 | 지방의회의 권한 부족 | 의원의 전문성 부족 | 의회 지원인력 부족 | 정당 간 경쟁 부재 | 주민의 관심 부족 | 강력한 이해 집단의 존재 | 기타 | 전체 | χ^2 , df, p | |
|----|-------|-------------|-------------|-------------|-------------|-------------|---------------|-------------|-----------|------------------|----------------------------------|
| 성별 | 여성 | 13 9.4% | 21 15.2% | 18 13.0% | 9 6.5% | 11 8.0% | 39 28.3% | 26 18.8% | 1 0.7% | 138 100.0% | $\chi^2=5.964$ df=7 p=.544 |
| | 남성 | 16 11.7% | 17 12.4% | 19 13.9% | 16 11.7% | 16 11.7% | 28 20.4% | 23 16.8% | 2 1.5% | 137 100.0% | |
| | 전체 | 29 10.5% | 38 13.8% | 37 13.5% | 25 9.1% | 27 9.8% | 67 24.4% | 49 17.8% | 3 1.1% | 275 100.0% | |

| 구분 | 예산 부족 | 지방의회의 권한 부족 | 의원의 전문성 부족 | 의회 지원인력 부족 | 정당 간 경쟁 부재 | 주민의 관심 부족 | 강력한 이해 집단의 존재 | 기타 | 전체 | χ^2 , df, p |
|------|--------|-------------|-------------|-------------|-------------|-------------|---------------|-------------|-------------|--|
| 연령 | 20대이하 | 4 6.9% | 8 13.8% | 7 12.1% | 5 8.6% | 5 8.6% | 21 36.2% | 8 13.8% | 0 100.0% | $\chi^2=45.01$ 1 df=28 p=.022 |
| | 30대 | 3 5.9% | 2 3.9% | 12 23.5% | 2 3.9% | 6 11.8% | 15 29.4% | 9 17.6% | 2 3.9% | |
| | 40대 | 5 10.2% | 6 12.2% | 8 16.3% | 4 8.2% | 4 8.2% | 11 22.4% | 11 22.4% | 0 100.0% | |
| | 50대 | 4 7.7% | 9 17.3% | 3 5.8% | 5 9.6% | 8 15.4% | 11 21.2% | 12 23.1% | 0 100.0% | |
| | 60대이상 | 13 21.7% | 12 20.0% | 5 8.3% | 9 15.0% | 3 5.0% | 8 13.3% | 9 15.0% | 1 1.7% | |
| | 전체 | 29 10.7% | 37 13.7% | 35 13.0% | 25 9.3% | 26 9.6% | 66 24.4% | 49 18.1% | 3 1.1% | |
| 거주지 | 동지역 | 22 10.0% | 27 12.3% | 29 13.2% | 15 6.8% | 23 10.5% | 59 26.9% | 42 19.2% | 2 0.9% | $\chi^2=11.34$ 1 df=7 p=.124 |
| | 읍지역 | 7 12.7% | 11 20.0% | 8 14.5% | 9 16.4% | 4 7.3% | 8 14.5% | 7 12.7% | 1 1.8% | |
| | 전체 | 29 10.6% | 38 13.9% | 37 13.5% | 24 8.8% | 27 9.9% | 67 24.5% | 49 17.9% | 3 1.1% | |
| 학력 | 고졸이하 | 6 12.0% | 10 20.0% | 5 10.0% | 4 8.0% | 5 10.0% | 14 28.0% | 6 12.0% | 0 0.0% | $\chi^2=15.58$ 5 df=14 p=.339 |
| | 대졸 | 21 11.2% | 22 11.7% | 28 14.9% | 17 9.0% | 16 8.5% | 40 21.3% | 41 21.8% | 3 1.6% | |
| | 대학원졸 | 2 5.6% | 6 16.7% | 4 11.1% | 4 11.1% | 6 16.7% | 12 33.3% | 2 5.6% | 0 0.0% | |
| | 전체 | 29 10.6% | 38 13.9% | 37 13.5% | 25 9.1% | 27 9.9% | 66 24.1% | 49 17.9% | 3 1.1%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8 10.0% | 12 15.0% | 12 15.0% | 6 7.5% | 9 11.3% | 22 27.5% | 10 12.5% | 1 1.3% | $\chi^2=18.82$ 6 df=21 p=.596 |
| | 10-20년 | 10 15.2% | 8 12.1% | 12 18.2% | 5 7.6% | 4 6.1% | 14 21.2% | 13 19.7% | 0 0.0% | |
| | 20-30년 | 8 11.0% | 11 15.1% | 8 11.0% | 10 13.7% | 5 6.8% | 17 23.3% | 12 16.4% | 2 2.7% | |
| | 30년이상 | 3 5.4% | 7 12.5% | 5 8.9% | 4 7.1% | 9 16.1% | 14 25.0% | 14 25.0% | 0 0.0% | |
| | 전체 | 29 10.5% | 38 13.8% | 37 13.5% | 25 9.1% | 27 9.8% | 67 24.4% | 49 17.8% | 3 1.1% | |

2) 진주시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의 중요도

○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시의원의 도덕성 강화, 시의원의 전문성 강화 등 시의원의 역량 강화 방안, 둘째, 집행부 견제 및 비판, 독자적 정책 대안의 제시와 실현, 타 지역 지방의회와의 교류 강화, 중앙정부 협조 끌어내기 등 정책적 역량 제고 방안, 셋째, 주민참여 확대 노력, 시의원간 토론 심화 노력, 주민 소통 확대 등 민주적 역량 제고 방안 등을 고려하였음.

○ 이 같은 지방의회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였음. 시의원의 도덕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정도에서는 그 중요

성에 동의하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61.0%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시의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이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 응답자가 75.6%로 본 조사에서 설정한 전체 요소 중 가장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음.
- 집행부 견제 및 비판에 대한 인식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66.2%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응답자는 4.5%로 조사됨.
- 시의회의 독자적 정책대안의 제시와 실현에 대한 의견에서는 그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61.2%로 나타난 가운데 부정적인 응답자는 4.8%로 드러남.
- 타지역 지방의회와의 교류 강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를 중요한 요소로 꼽은 응답자가 53.7%로 조사되었고,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는 39.4%를 차지함.
- 중앙 정부 협조 끌어내기 등 중앙 정부와의 유대관계 강화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74.5%로서 부정적인 응답자의 5.2%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주민참여의 확대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74.2%로 전문성 강화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정적인 응답자는 2.1%에 불과함.
- 시의원 간의 토의 심화 노력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응답이 66.1%를 차지하였음.
- 온라인, 대면접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 소통의 확대에 대한 반응에서는 67.2%의 응답자가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이 같은 응답결과는 앞서 살펴본 진주시의회의 역할 및 역량 강화의 장애요인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됨. 즉, 진주시 주민들은 진주시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의원의 전문성 제고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주민들은 다양한 매체 및 참여 기회를 통해 진주시의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진주시의회회의 견인자 또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진주시의회회의 역량강화는 진주시의원의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라는 개별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참여공간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노력을 전개할 때 가능함. 그러므로 입법보좌관 제도, 연구모임의 활성화 등 진주시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더욱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의회회의 다양한 활동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분권형 지방의회회의 형태로 나아가야 함.

<표 61> 진주시의회 역량 강화 방안의 중요도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평균 |
|------------------------------|-----------------|-------------|---------------|---------------|---------------|----------------|------|
| 시의원의 도덕성 강화 | 4 (1.4) | 6 (2.1) | 102 (35.5) | 89 (31.0) | 86 (30.0) | 287 (100.0) | 3.86 |
| 시의원의 전문성 강화 | 2 (0.7) | 8 (2.8) | 60 (20.9) | 114 (39.7) | 103 (35.9) | 287 (100.0) | 4.07 |
| 집행부(진주시) 견제 및 비판 | 2 (0.7) | 11 (3.8) | 84 (29.3) | 140 (48.8) | 50 (17.4) | 287 (100.0) | 3.78 |
| 독자적 정책대안의 제시와 실현 | 3 (1.0) | 11 (3.8) | 97 (33.9) | 137 (47.9) | 38 (13.3) | 286 (100.0) | 3.69 |
| 타지역 지방의회와의 교류 강화 | 3 (1.0) | 17 (5.9) | 113 (39.4) | 115 (40.1) | 39 (13.6) | 287 (100.0) | 3.59 |
| 중앙정부 협조 끌어내기 | 2 (0.7) | 13 (4.5) | 58 (20.3) | 128 (44.8) | 85 (29.7) | 286 (100.0) | 3.98 |
| 주민참여 확대 노력 | 0 (0.0) | 6 (2.1) | 68 (23.7) | 117 (40.8) | 96 (33.4) | 287 (100.0) | 4.06 |
| 시의원 간 토의 심화 노력 | 1 (0.3) | 9 (3.1) | 87 (30.4) | 114 (39.9) | 75 (26.2) | 286 (100.0) | 3.88 |
| 온라인, 대면접촉 등을 통한 주민 소통의 확대 | 0 (0.0) | 16 (5.6) | 78 (27.2) | 108 (37.6) | 85 (29.6) | 287 (100.0) | 3.91 |

(1) 시의원의 도덕성 강화

- 진주시 의회의 역량 강화에 있어 시의원의 도덕성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유되는 가운데 성별과 연령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음. 성별 응답 결과에

서는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여성의 경우 38.4%를 차지하였으나 남성 응답자에서는 21.3%로 조사되었음.

○ 연령별 차이에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특징적임.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응답자의 38.3%만이 시의원의 도덕성 강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전체 평균의 61.4%에 비해 매우 낮음.

<표 62> 시의원의 도덕성 강화의 중요도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 0.7% | 5 3.4% | 40 27.4% | 44 30.1% | 56 38.4% | 146 100.0% | $\chi^2=16.201$ df=4 p=.003 |
| | 남성 | 3 2.1% | 1 0.7% | 62 44.0% | 45 31.9% | 30 21.3% | 141 100.0% | |
| | 전체 | 4 1.4% | 6 2.1% | 102 35.5% | 89 31.0% | 86 30.0%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0 0.0% | 2 3.4% | 18 30.5% | 23 39.0% | 16 27.1% | 59 100.0% | $\chi^2=33.185$ df=16 p=.007 |
| | 30대 | 0 0.0% | 2 3.7% | 18 33.3% | 14 25.9% | 20 37.0% | 54 100.0% | |
| | 40대 | 1 1.9% | 0 0.0% | 12 22.6% | 24 45.3% | 16 30.2% | 53 100.0% | |
| | 50대 | 1 1.8% | 1 1.8% | 17 30.4% | 13 23.2% | 24 42.9% | 56 100.0% | |
| | 60대이상 | 2 3.3% | 1 1.7% | 34 56.7% | 15 25.0% | 8 13.3% | 60 100.0% | |
| | 전체 | 4 1.4% | 6 2.1% | 99 35.1% | 89 31.6% | 84 29.8% | 282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3 1.3% | 4 1.8% | 72 31.6% | 74 32.5% | 75 32.9% | 228 100.0% | $\chi^2=8.760$ df=4 p=.067 |
| | 읍지역 | 1 1.7% | 2 3.4% | 29 50.0% | 15 25.9% | 11 19.0% | 58 100.0% | |
| | 전체 | 4 1.4% | 6 2.1% | 101 35.3% | 89 31.1% | 86 30.1% | 286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2 4.0% | 1 2.0% | 24 48.0% | 10 20.0% | 13 26.0% | 50 100.0% | $\chi^2=10.998$ df=8 p=.202 |
| | 대졸 | 2 1.0% | 5 2.5% | 62 31.2% | 69 34.7% | 61 30.7%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0 0.0% | 15 40.5% | 10 27.0% | 12 32.4% | 37 100.0% | |
| | 전체 | 4 1.4% | 6 2.1% | 101 35.3% | 89 31.1% | 86 30.1% | 286 100.0% | |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0 0.0% | 2 2.5% | 34 42.5% | 25 31.3% | 19 23.8% | 80 100.0% | $\chi^2=13.810$ df=12 p=.313 |
| | 10-20년 | 0 0.0% | 0 0.0% | 27 40.9% | 19 28.8% | 20 30.3% | 66 100.0% | |
| | 20-30년 | 2 2.6% | 2 2.6% | 24 31.6% | 27 35.5% | 21 27.6% | 76 100.0% | |
| | 30년 이상 | 2 3.1% | 2 3.1% | 17 26.2% | 18 27.7% | 26 40.0% | 65 100.0% | |
| | 전체 | 4 1.4% | 6 2.1% | 102 35.5% | 89 31.0% | 86 30.0% | 287 100.0% | |

(2) 시의원의 전문성 강화

○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있어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설문조사 한 결과, 성별과 거주지에 따라 일정한 응답 차이를 보였음. 성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적극 동의자의 비율에서 여성의 경우 45.2%로서 남성의 26.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하다’는 전문성 강화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주민 비율에서 동지역 주민의 경우 77.0%로서 읍면지역 주민의 응답자 비율 70.7%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63> 시의원 전문성 강화의 중요도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0 0.0% | 5 3.4% | 24 16.4% | 51 34.9% | 66 45.2% | 146 100.0% | $\chi^2=14.245$ df=4 p=.007 |
| | 남성 | 2 1.4% | 3 2.1% | 36 25.5% | 63 44.7% | 37 26.2% | 141 100.0% | |
| | 전체 | 2 0.7% | 8 2.8% | 60 20.9% | 114 39.7% | 103 35.9% | 287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0 0.0% | 4 8.0% | 15 30.0% | 17 34.0% | 14 28.0% | 50 100.0% | $\chi^2=11.423$ df=8 p=.179 |
| | 대졸 | 2 1.0% | 4 2.0% | 37 18.6% | 81 40.7% | 75 37.7%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0 0.0% | 7 18.9% | 16 43.2% | 14 37.8% | 37 100.0% | |
| | 전체 | 2 0.7% | 8 2.8% | 59 20.6% | 114 39.9% | 103 36.0% | 286 100.0% | |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연령 | 20대이하 | 0 0.0% | 1 1.7% | 12 20.3% | 23 39.0% | 23 39.0% | 59 100.0% | $\chi^2=25.437$ df=16 p=.062 |
| | 30대 | 0 0.0% | 0 0.0% | 10 18.5% | 22 40.7% | 22 40.7% | 54 100.0% | |
| | 40대 | 0 0.0% | 1 1.9% | 9 17.0% | 25 47.2% | 18 34.0% | 53 100.0% | |
| | 50대 | 1 1.8% | 2 3.6% | 6 10.7% | 20 35.7% | 27 48.2% | 56 100.0% | |
| | 60대이상 | 1 1.7% | 4 6.7% | 21 35.0% | 22 36.7% | 12 20.0% | 60 100.0% | |
| | 전체 | 2 0.7% | 8 2.8% | 58 20.6% | 112 39.7% | 102 36.2%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2 0.9% | 4 1.8% | 47 20.6% | 85 37.3% | 90 39.5% | 228 100.0% | $\chi^2=11.402$ df=4 p=.022 |
| | 읍지역 | 0 0.0% | 4 6.9% | 13 22.4% | 29 50.0% | 12 20.7% | 58 100.0% | |
| | 전체 | 2 0.7% | 8 2.8% | 60 21.0% | 114 39.9% | 102 35.7%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0 0.0% | 1 1.3% | 16 20.0% | 41 51.3% | 22 27.5% | 80 100.0% | $\chi^2=16.708$ df=12 p=.161 |
| | 10-20년 | 0 0.0% | 2 3.0% | 16 24.2% | 27 40.9% | 21 31.8% | 66 100.0% | |
| | 20-30년 | 1 1.3% | 1 1.3% | 17 22.4% | 28 36.8% | 29 38.2% | 76 100.0% | |
| | 30년 이상 | 1 1.5% | 4 6.2% | 11 16.9% | 18 27.7% | 31 47.7% | 65 100.0% | |
| | 전체 | 2 0.7% | 8 2.8% | 60 20.9% | 114 39.7% | 103 35.9% | 287 100.0% | |

(3) 집행부 견제 및 비판

- 기관대립형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집행부의 견제 및 비판의 강화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주민 인식을 조사하였음. 그 결과 성별과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인식 차이를 보였음.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의 응답에서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1.3%로서 남성의 긍정적인 응답자 61.0%보다 다소 높은 것이 특징적임.
- 학력에 따른 집행부 견제 및 비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이를 중요시하였음.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응답자의 79.4%가 이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표 64> 집행부 견제 및 비판의 중요도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하 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 0.7% | 6 4.1% | 35 24.0% | 69 47.3% | 35 24.0% | 146 100.0% | $\chi^2=10.369$ df=4 p=.035 |
| | 남성 | 1 0.7% | 5 3.5% | 49 34.8% | 71 50.4% | 15 10.6% | 141 100.0% | |
| | 전체 | 2 0.7% | 11 3.8% | 84 29.3% | 140 48.8% | 50 17.4%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0 0.0% | 3 5.1% | 20 33.9% | 27 45.8% | 9 15.3% | 59 100.0% | $\chi^2=17.151$ df=16 p=.376 |
| | 30대 | 0 0.0% | 1 1.9% | 19 35.2% | 22 40.7% | 12 22.2% | 54 100.0% | |
| | 40대 | 0 0.0% | 0 0.0% | 11 20.8% | 32 60.4% | 10 18.9% | 53 100.0% | |
| | 50대 | 1 1.8% | 5 8.9% | 13 23.2% | 30 53.6% | 7 12.5% | 56 100.0% | |
| | 60대이상 | 1 1.7% | 2 3.3% | 18 30.0% | 27 45.0% | 12 20.0% | 60 100.0% | |
| | 전체 | 2 0.7% | 11 3.9% | 81 28.7% | 138 48.9% | 50 17.7% | 282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2 0.9% | 8 3.5% | 65 28.5% | 111 48.7% | 42 18.4% | 228 100.0% | $\chi^2=2.231$ df=4 p=.693 |
| | 읍지역 | 0 0.0% | 3 5.2% | 19 32.8% | 29 50.0% | 7 12.1% | 58 100.0% | |
| | 전체 | 2 0.7% | 11 3.8% | 84 29.4% | 140 49.0% | 49 17.1% | 286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2 4.0% | 1 2.0% | 19 38.0% | 23 46.0% | 5 10.0% | 50 100.0% | $\chi^2=19.083$ df=8 p=.014 |
| | 대졸 | 0 0.0% | 10 5.0% | 56 28.1% | 93 46.7% | 40 20.1%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0 0.0% | 8 21.6% | 24 64.9% | 5 13.5% | 37 100.0% | |
| | 전체 | 2 0.7% | 11 3.8% | 83 29.0% | 140 49.0% | 50 17.5% | 286 100.0%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0 0.0% | 3 3.8% | 30 37.5% | 41 51.3% | 6 7.5% | 80 100.0% | $\chi^2=19.396$ df=12 p=.079 |
| | 10-20년 | 0 0.0% | 3 4.5% | 20 30.3% | 33 50.0% | 10 15.2% | 66 100.0% | |
| | 20-30년 | 0 0.0% | 3 3.9% | 19 25.0% | 34 44.7% | 20 26.3% | 76 100.0% | |
| | 30년 이상 | 2 3.1% | 2 3.1% | 15 23.1% | 32 49.2% | 14 21.5% | 65 100.0% | |
| | 전체 | 2 0.7% | 11 3.8% | 84 29.3% | 140 48.8% | 50 17.4% | 287 100.0% | |

(4) 독자적 정책대안의 제시와 실현

-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본 조사에서 설정한 모든 인구사

회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인식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65> 독자적 정책대안의 제시와 실현의 중요도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1 0.7% | 6 4.1% | 54 37.2% | 61 42.1% | 23 15.9% | 145 100.0% | $\chi^2=4.943$ df=4 p=.293 |
| | 남성 | 2 1.4% | 5 3.5% | 43 30.5% | 76 53.9% | 15 10.6% | 141 100.0% | |
| | 전체 | 3 1.0% | 11 3.8% | 97 33.9% | 137 47.9% | 38 13.3% | 286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0 0.0% | 4 6.8% | 24 40.7% | 21 35.6% | 10 16.9% | 59 100.0% | $\chi^2=15.061$ df=16 p=.520 |
| | 30대 | 0 0.0% | 3 5.6% | 19 35.2% | 25 46.3% | 7 13.0% | 54 100.0% | |
| | 40대 | 1 1.9% | 0 0.0% | 15 28.3% | 29 54.7% | 8 15.1% | 53 100.0% | |
| | 50대 | 1 1.8% | 0 0.0% | 18 32.1% | 32 57.1% | 5 8.9% | 56 100.0% | |
| | 60대이상 | 1 1.7% | 3 5.1% | 18 30.5% | 29 49.2% | 8 13.6% | 59 100.0% | |
| | 전체 | 3 1.1% | 10 3.6% | 94 33.5% | 136 48.4% | 38 13.5% | 281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2 0.9% | 10 4.4% | 76 33.5% | 106 46.7% | 33 14.5% | 227 100.0% | $\chi^2=3.789$ df=4 p=.435 |
| | 읍지역 | 1 1.7% | 1 1.7% | 21 36.2% | 31 53.4% | 4 6.9% | 58 100.0% | |
| | 전체 | 3 1.1% | 11 3.9% | 97 34.0% | 137 48.1% | 37 13.0% | 285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2 4.0% | 3 6.0% | 20 40.0% | 21 42.0% | 4 8.0% | 50 100.0% | $\chi^2=9.217$ df=8 p=.324 |
| | 대졸 | 1 0.5% | 7 3.5% | 67 33.8% | 94 47.5% | 29 14.6% | 198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1 2.7% | 10 27.0% | 21 56.8% | 5 13.5% | 37 100.0% | |
| | 전체 | 3 1.1% | 11 3.9% | 97 34.0% | 136 47.7% | 38 13.3% | 285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0 0.0% | 3 3.8% | 29 36.3% | 41 51.3% | 7 8.8% | 80 100.0% | $\chi^2=9.288$ df=12 p=.678 |
| | 10-20년 | 0 0.0% | 2 3.0% | 23 34.8% | 32 48.5% | 9 13.6% | 66 100.0% | |
| | 20-30년 | 1 1.3% | 5 6.7% | 24 32.0% | 33 44.0% | 12 16.0% | 75 100.0% | |
| | 30년 이상 | 2 3.1% | 1 1.5% | 21 32.3% | 31 47.7% | 10 15.4% | 65 100.0% | |
| | 전체 | 3 1.0% | 11 3.8% | 97 33.9% | 137 47.9% | 38 13.3% | 286 100.0% | |

(5) 타지역 지방의회와의 교류 강화

○ 다른 지역 지방의회의 협력 관계 형성 및 유지가 지방의회의 발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성별에 있어서 여성 응답자의 경우 이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55.5%로서 남성 응답자의 비율 50.7%보다 약간 높음.

<표 66> 타지역 지방의회와 교류 강화의 중요도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1 0.7% | 14 9.6% | 50 34.2% | 56 38.4% | 25 17.1% | 146 100.0% | $\chi^2=12.044$ df=4 p=.017 |
| | 남성 | 2 1.4% | 3 2.1% | 63 44.7% | 59 41.8% | 14 9.9% | 141 100.0% | |
| | 전체 | 3 1.0% | 17 5.9% | 113 39.4% | 115 40.1% | 39 13.6%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1 1.7% | 3 5.1% | 25 42.4% | 24 40.7% | 6 10.2% | 59 100.0% | $\chi^2=20.065$ df=16 p=.217 |
| | 30대 | 0 0.0% | 5 9.3% | 20 37.0% | 19 35.2% | 10 18.5% | 54 100.0% | |
| | 40대 | 0 0.0% | 3 5.7% | 16 30.2% | 23 43.4% | 11 20.8% | 53 100.0% | |
| | 50대 | 1 1.8% | 2 3.6% | 31 55.4% | 15 26.8% | 7 12.5% | 56 100.0% | |
| | 60대이상 | 1 1.7% | 4 6.7% | 18 30.0% | 32 53.3% | 5 8.3% | 60 100.0% | |
| | 전체 | 3 1.1% | 17 6.0% | 110 39.0% | 113 40.1% | 39 13.8% | 282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2 0.9% | 15 6.6% | 88 38.6% | 92 40.4% | 31 13.6% | 228 100.0% | $\chi^2=1.177$ df=4 p=.882 |
| | 읍지역 | 1 1.7% | 2 3.4% | 24 41.4% | 23 39.7% | 8 13.8% | 58 100.0% | |
| | 전체 | 3 1.0% | 17 5.9% | 112 39.2% | 115 40.2% | 39 13.6% | 286 100.0% | |
| 학 력 | 고졸이하 | 2 4.0% | 5 10.0% | 19 38.0% | 17 34.0% | 7 14.0% | 50 100.0% | $\chi^2=8.250$ df=8 p=.409 |
| | 대졸 | 1 0.5% | 11 5.5% | 77 38.7% | 82 41.2% | 28 14.1%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1 2.7% | 16 43.2% | 16 43.2% | 4 10.8% | 37 100.0% | |
| | 전체 | 3 1.0% | 17 5.9% | 112 39.2% | 115 40.2% | 39 13.6% | 286 100.0% | |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거주 기간 | 10년미만 | 1 1.3% | 3 3.8% | 31 38.8% | 37 46.3% | 8 10.0% | 80 100.0% | $\chi^2=9.030$ df=12 p=.700 |
| | 10-20년 | 0 0.0% | 4 6.1% | 31 47.0% | 22 33.3% | 9 13.6% | 66 100.0% | |
| | 20-30년 | 1 1.3% | 6 7.9% | 32 42.1% | 27 35.5% | 10 13.2% | 76 100.0% | |
| | 30년 이상 | 1 1.5% | 4 6.2% | 19 29.2% | 29 44.6% | 12 18.5% | 65 100.0% | |
| | 전체 | 3 1.0% | 17 5.9% | 113 39.4% | 115 40.1% | 39 13.6% | 287 100.0% | |

(6) 중앙정부 협조 끌어내기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식에서는 성별과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성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형성하고 있음. 연령별 차이에서는 40대에서 이에 대해 동의하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90.6%로 매우 높았으나 ‘60대 이상’의 응답자에서는 58.4%가 중앙정부의 협조 끌어내기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 응답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낮음.

<표 67> 중앙정부 협조 끌어내기의 중요도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2 1.4% | 10 6.8% | 27 18.5% | 54 37.0% | 53 36.3% | 146 100.0% | $\chi^2=14.239$ df=4 p=.007 |
| | 남성 | 0 0.0% | 3 2.1% | 31 22.1% | 74 52.9% | 32 22.9% | 140 100.0% | |
| | 전체 | 2 0.7% | 13 4.5% | 58 20.3% | 128 44.8% | 85 29.7%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0 0.0% | 3 6.1% | 11 22.4% | 20 40.8% | 15 30.6% | 49 100.0% | $\chi^2=3.462$ df=8 p=.902 |
| | 대졸 | 1 0.5% | 9 4.5% | 40 20.1% | 90 45.2% | 59 29.6%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1 2.7% | 1 2.7% | 7 18.9% | 17 45.9% | 11 29.7% | 37 100.0% | |
| | 전체 | 2 0.7% | 13 4.6% | 58 20.4% | 127 44.6% | 85 29.8% | 285 100.0% | |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연령 | 20대이하 | 1 1.7% | 7 11.9% | 10 16.9% | 23 39.0% | 18 30.5% | 59 100.0% | $\chi^2=36.802$ df=16 p=.002 |
| | 30대 | 0 0.0% | 2 3.7% | 9 16.7% | 23 42.6% | 20 37.0% | 54 100.0% | |
| | 40대 | 0 0.0% | 0 0.0% | 5 9.4% | 31 58.5% | 17 32.1% | 53 100.0% | |
| | 50대 | 1 1.8% | 2 3.6% | 8 14.5% | 27 49.1% | 17 30.9% | 55 100.0% | |
| | 60대이상 | 0 0.0% | 1 1.7% | 24 40.0% | 22 36.7% | 13 21.7% | 60 100.0% | |
| | 전체 | 2 0.7% | 12 4.3% | 56 19.9% | 126 44.8% | 85 30.2% | 281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1 0.4% | 9 4.0% | 47 20.7% | 98 43.2% | 72 31.7% | 227 100.0% | $\chi^2=4.325$ df=4 p=.364 |
| | 읍지역 | 1 1.7% | 4 6.9% | 10 17.2% | 30 51.7% | 13 22.4% | 58 100.0% | |
| | 전체 | 2 0.7% | 13 4.6% | 57 20.0% | 128 44.9% | 85 29.8% | 285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2 2.5% | 8 10.0% | 21 26.3% | 30 37.5% | 19 23.8% | 80 100.0% | $\chi^2=18.046$ df=12 p=.114 |
| | 10-20년 | 0 0.0% | 2 3.0% | 11 16.7% | 32 48.5% | 21 31.8% | 66 100.0% | |
| | 20-30년 | 0 0.0% | 2 2.6% | 15 19.7% | 37 48.7% | 22 28.9% | 76 100.0% | |
| | 30년 이상 | 0 0.0% | 1 1.6% | 11 17.2% | 29 45.3% | 23 35.9% | 64 100.0% | |
| | 전체 | 2 0.7% | 13 4.5% | 58 20.3% | 128 44.8% | 85 29.7% | 286 100.0% | |

(7) 주민참여 확대 노력

○ 주민참여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조사한 결과에서 많은 주민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그리고 이 같은 인식은 주민의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거주기간 등 인구사회적 특성과 큰 관련 없이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68> 주민참여 확대 노력의 중요도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0 0.0% | 3 2.1% | 31 21.2% | 58 39.7% | 54 37.0% | 146 100.0% | $\chi^2=1.951$ df=3 p=.583 |
| | 남성 | 0 0.0% | 3 2.1% | 37 26.2% | 59 41.8% | 42 29.8% | 141 100.0% | |
| | 전체 | 0 0.0% | 6 2.1% | 68 23.7% | 117 40.8% | 96 33.4% | 287 100.0% | |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연령 | 20대이하 | 0 0.0% | 2 3.4% | 17 28.8% | 18 30.5% | 22 37.3% | 59 100.0% | $\chi^2=20.819$ df=12 p=.053 |
| | 30대 | 0 0.0% | 1 1.9% | 10 18.5% | 23 42.6% | 20 37.0% | 54 100.0% | |
| | 40대 | 0 0.0% | 0 0.0% | 8 15.1% | 30 56.6% | 15 28.3% | 53 100.0% | |
| | 50대 | 0 0.0% | 2 3.6% | 8 14.3% | 24 42.9% | 22 39.3% | 56 100.0% | |
| | 60대이상 | 0 0.0% | 1 1.7% | 23 38.3% | 21 35.0% | 15 25.0% | 60 100.0% | |
| | 전체 | 0 0.0% | 6 2.1% | 66 23.4% | 116 41.1% | 94 33.3% | 282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0 0.0% | 3 1.3% | 48 21.1% | 96 42.1% | 81 35.5% | 228 100.0% | $\chi^2=6.390$ df=3 p=.094 |
| | 읍지역 | 0 0.0% | 2 3.4% | 20 34.5% | 21 36.2% | 15 25.9% | 58 100.0% | |
| | 전체 | 0 00.0% | 5 1.7% | 68 23.8% | 117 40.9% | 96 33.6% | 286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0 0.0% | 0 0.0% | 15 30.0% | 20 40.0% | 15 30.0% | 50 100.0% | $\chi^2=2.629$ df=6 p=.854 |
| | 대졸 | 0 0.0% | 5 2.5% | 45 22.6% | 80 40.2% | 69 34.7%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1 2.7% | 8 21.6% | 16 43.2% | 12 32.4% | 37 100.0% | |
| | 전체 | 0 0.0% | 6 2.1% | 68 23.8% | 116 40.6% | 96 33.6% | 286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0 0.0% | 2 2.5% | 24 30.0% | 29 36.3% | 25 31.3% | 80 100.0% | $\chi^2=7.456$ df=9 p=.590 |
| | 10-20년 | 0 0.0% | 2 3.0% | 12 18.2% | 29 43.9% | 23 34.8% | 66 100.0% | |
| | 20-30년 | 0 0.0% | 2 2.6% | 21 27.6% | 30 39.5% | 23 30.3% | 76 100.0% | |
| | 30년 이상 | 0 0.0% | 0 0.0% | 11 16.9% | 29 44.6% | 25 38.5% | 65 100.0% | |
| | 전체 | 0 0.0% | 6 2.1% | 68 23.7% | 117 40.8% | 96 33.4% | 287 100.0% | |

(8) 지방의원 간 토의심화 노력

○ 최근 많은 지방의회는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모임 활성화 등 지방의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토의를 심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이 같은 노력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있어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큰 관련 없이 거의 비슷하게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69> 지방의원간 토의심화 노력의 중요도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성별 | 여성 | 1 0.7% | 5 3.4% | 39 26.7% | 57 39.0% | 44 30.1% | 146 100.0% | $\chi^2=4.171$ df=4 p=.383 |
| | 남성 | 0 0.0% | 4 2.9% | 48 34.3% | 57 40.7% | 31 22.1% | 140 100.0% | |
| | 전체 | 1 0.3% | 9 3.1% | 87 30.4% | 114 39.9% | 75 26.2% | 286 100.0% | |
| 연령 | 20대이하 | 1 1.7% | 2 3.4% | 14 23.7% | 28 47.5% | 14 23.7% | 59 100.0% | $\chi^2=23.105$ df=16 p=.111 |
| | 30대 | 0 0.0% | 2 3.7% | 18 33.3% | 18 33.3% | 16 29.6% | 54 100.0% | |
| | 40대 | 0 0.0% | 1 1.9% | 9 17.0% | 24 45.3% | 19 35.8% | 53 100.0% | |
| | 50대 | 0 0.0% | 0 0.0% | 17 30.4% | 22 39.3% | 17 30.4% | 56 100.0% | |
| | 60대이상 | 0 0.0% | 3 5.1% | 27 45.8% | 20 33.9% | 9 15.3% | 59 100.0% | |
| | 전체 | 1 0.4% | 8 2.8% | 85 30.2% | 112 39.9% | 75 26.7% | 281 100.0% | |
| 거주지 | 동지역 | 1 0.4% | 7 3.1% | 65 28.6% | 87 38.3% | 67 29.5% | 227 100.0% | $\chi^2=6.274$ df=4 p=.180 |
| | 읍지역 | 0 0.0% | 2 3.4% | 21 36.2% | 27 46.6% | 8 13.8% | 58 100.0% | |
| | 전체 | 1 0.4% | 9 3.2% | 86 30.2% | 114 40.0% | 75 26.3% | 285 100.0% | |
| 학력 | 고졸이하 | 0 0.0% | 2 4.0% | 15 30.0% | 24 48.0% | 9 18.0% | 50 100.0% | $\chi^2=6.092$ df=8 p=.637 |
| | 대졸 | 1 0.5% | 6 3.0% | 57 28.8% | 77 38.9% | 57 28.8% | 198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0 0.0% | 15 40.5% | 13 35.1% | 9 24.3% | 37 100.0% | |
| | 전체 | 1 0.4% | 8 2.8% | 87 30.5% | 114 40.0% | 75 26.3% | 285 100.0% | |
| 거주기간 | 10년미만 | 1 1.3% | 3 3.8% | 27 33.8% | 32 40.0% | 17 21.3% | 80 100.0% | $\chi^2=11.309$ df=12 p=.503 |
| | 10-20년 | 0 0.0% | 2 3.0% | 20 30.3% | 26 39.4% | 18 27.3% | 66 100.0% | |
| | 20-30년 | 0 0.0% | 4 5.3% | 24 32.0% | 31 41.3% | 16 21.3% | 75 100.0% | |
| | 30년 이상 | 0 0.0% | 0 0.0% | 16 24.6% | 25 38.5% | 24 36.9% | 65 100.0% | |
| | 전체 | 1 0.3% | 9 3.1% | 87 30.4% | 114 39.9% | 75 26.2% | 286 100.0% | |

(9) 주민 소통 확대

○ 지방의회의 주민 소통 확대가 의회의 역량 강화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주민소통 확대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였음. 이 같은

응답결과가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유의미한 인식차이를 보였음.

- 연령의 경우는 '60대 이상'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자가 60.0%인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13.3%에 불과하였음. 또한 '20대 이하' 주민 소통 확대를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54.2%였음. 그러나 50대의 연령층에서는 주민 소통 확대를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무려 83.9%를 차지하여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와 많은 인식 차이를 보였음.
- 거주지에 따른 주민 소통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읍지역 주민의 경우 72.4%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동지역 주민의 경우는 65.8%가 이를 중요한 요소로 응답하였음.

<표 70> 주민소통 확대의 중요도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성 별 | 여성 | 0 0.0% | 11 7.5% | 40 27.4% | 47 32.2% | 48 32.9% | 146 100.0% | $\chi^2=5.454$ df=3 p=.141 |
| | 남성 | 0 0.0% | 5 3.5% | 38 27.0% | 61 43.3% | 37 26.2% | 141 100.0% | |
| | 전체 | 0 0.0% | 16 5.6% | 78 27.2% | 108 37.6% | 85 29.6% | 287 100.0% | |
| 연 령 | 20대이하 | 0 0.0% | 8 13.6% | 19 32.2% | 14 23.7% | 18 30.5% | 59 100.0% | $\chi^2=31.244$ df=12 p=.002 |
| | 30대 | 0 0.0% | 4 7.4% | 12 22.2% | 20 37.0% | 18 33.3% | 54 100.0% | |
| | 40대 | 0 0.0% | 1 1.9% | 14 26.4% | 19 35.8% | 19 35.8% | 53 100.0% | |
| | 50대 | 0 0.0% | 0 0.0% | 9 16.1% | 25 44.6% | 22 39.3% | 56 100.0% | |
| | 60대이상 | 0 0.0% | 2 3.3% | 22 36.7% | 28 46.7% | 8 13.3% | 60 100.0% | |
| | 전체 | 0 0.0% | 15 5.3% | 76 27.0% | 106 37.6% | 85 30.1% | 282 100.0% | |
| 거 주 지 | 동지역 | 0 0.0% | 15 6.6% | 63 27.6% | 77 33.8% | 73 32.0% | 228 100.0% | $\chi^2=7.980$ df=3 p=0.46 |
| | 읍지역 | 0 0.0% | 1 1.7% | 15 25.9% | 30 51.7% | 12 20.7% | 58 100.0% | |
| | 전체 | 0 0.0% | 16 5.6% | 78 27.3% | 107 37.4% | 85 29.7% | 286 100.0% | |

| 구분 |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전체 | χ^2 , df, p |
|------------------|--------|-----------------|----------------|-------------|--------------|----------------|---------------|-----------------------------------|
| 학 력 | 고졸이하 | 0 0.0% | 3 6.0% | 16 32.0% | 20 40.0% | 11 22.0% | 50 100.0% | $\chi^2=6.944$ df=6 p=.326 |
| | 대졸 | 0 0.0% | 12 6.0% | 54 27.1% | 69 34.7% | 64 32.2% | 199 100.0% | |
| | 대학원 졸 | 0 0.0% | 0 0.0% | 8 21.6% | 19 51.4% | 10 27.0% | 37 100.0% | |
| | 전체 | 0 0.0% | 15 5.2% | 78 27.3% | 108 37.8% | 85 29.7% | 286 100.0% | |
| 거 주 기 간 | 10년미만 | 0 0.0% | 6 7.5% | 22 27.5% | 32 40.0% | 20 25.0% | 80 100.0% | $\chi^2=14.305$ df=9 p=.112 |
| | 10-20년 | 0 0.0% | 6 9.1% | 19 28.8% | 21 31.8% | 20 30.3% | 66 100.0% | |
| | 20-30년 | 0 0.0% | 4 5.3% | 24 31.6% | 31 40.8% | 17 22.4% | 76 100.0% | |
| | 30년 이상 | 0 0.0% | 0 0.0% | 13 20.0% | 24 36.9% | 28 43.1% | 65 100.0% | |
| | 전체 | 0 0.0% | 16 5.6% | 78 27.2% | 108 37.6% | 85 29.6% | 287 100.0% | |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적 사무를 위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장의 활동을 감시 및 통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임.
- 지방의회의 활동으로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지역의 정체성 함양과 향토애 증진,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대응성 제고, 주민의 권리의 신장, 중앙에 대한 지역의 의견 제시 및 전달, 정치인의 충원을 위한 중요한 통로의 역할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최봉기, 2011).
- 그러나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임. 지방의원의 경우,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보다는 이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평가, 어느 정도 재력은 있으나 적절한 지위가 없는 사람들의 신분전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평가, 지방의원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임.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책무를 안고 있음. 또한 지방의회를 기반으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합리적이고 대응성 있게 수행하게 되면 주민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고 집행부의 독단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음. 이렇듯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의 보강과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년 1월부터 효력일 발생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량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이를 위해 경상남도 진주시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음.
- 연구내용은 첫째,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관심도, 주민인지도, 주민신뢰도, 주민만족도를 통해 진주시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실태를 분석하였음. 둘째, 진주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진주시의원의 역량과 의정활동 수행도를 살펴보았음. 셋째, 진

주시의회의 역량, 역할 수행도, 정책기여도를 분석하였음. 넷째, 진주시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을 모색하였음.

- 본 연구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5일간 진주시 거주 주민 30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87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음.
- 진주시의회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자 실시한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관심도는 평균 3.17로서 높지 않았음.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60대 이상'이 3.42로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와 40대가 가장 낮았음.
- 주민인지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가운데 특히, 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민인지도가 높음.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가장 인지도가 높은 가운데 '20대 이하'의 인지도가 매우 낮음.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강화가 요구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의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신뢰도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25.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2.8%로서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도는 다소 낮은 편임. 주민의 성별, 연령, 거주기간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가운데 연령에서는 30-50대의 신뢰도가 낮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신뢰도가 높음.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긴 주민일수록 진주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낮음.
- 진주시의회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25.4%,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28.3%, '보통'을 표시한 응답자가 46.3%로서 주민 만족도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음. 대체적으로 진주시에 장기간 거주한 주민일수록 진주시의회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은 낮음.
- 진주시의원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별 역량을 소신과 품격을 갖춘 정치인, 지행의 공정한 감시자,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으로 구분하였음.

- 소신과 품격을 갖춘 정치인으로서 진주시의원의 역량은 평균 3.03으로서 보통의 수준임. 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를 더욱 우수하게 평가 하였고,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임. 거주지역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동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비해 높음. 거주기간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
- 집행의 공정한 감시자로서의 역량의 경우 주민인식은 평균 3.11로서 보통 수준임. 연령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3.43으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2.85로 낮게 평가하였음. 거주지역에서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인식이 3.39로서 동지역 거주자의 인식 3.03 보다 높음. 거주기간에 따른 응답에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해당 역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특히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경우 평균이 2.79에 불과하였음.
-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으로서 진주시의원의 역량은 평균 3.21로서 개별 역량 가운데는 가장 높았으나 그 수준은 보통임. 연령의 경우 '60대 이상'의 응답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50대의 응답이 가장 부정적임. 거주지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이 이를 동지역 주민들에 비해 더욱 높이 평가하였음. 거주기간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진주시의원의 시민 대변인으로서의 역량을 낮게 인식하였음.
- 진주시의원의 의정활동 수행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평균 3.07로서 보통의 수준임. 성별에 따른 인식에서는 남성이 3.18로서 여성의 2.97에 비해 높음. 연령별 인식에서는 '60대 이상'의 응답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20대 이하'가 다음으로 이를 높이 평가하였음. 거주지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이 동지역 주민들에 비해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거주기간에서는 대체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이를 높게 인식하였음. 여성, 30-50대의 연령층, 동지역 거주자, 거주기간이 긴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진주시의회 전체적인 역량을 살펴보기 위해 진주시의회역량, 진주시의회역할 수행도, 진주시의회정책기여도를 분석하였음. 진주시의회역량에 대한 전체 평균은 3.11로서 보통의 수준으로 분석된 가운데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임. 연령에서는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의 인식이 가장 긍

정적이었고 50대에서 이를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거주지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이 동지역 주민들보다 진주시의회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음. 거주기간에서는 대체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의회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

- 진주시의회의 역할 수행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평균 3.21로서 다소 긍정적임.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의 응답층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50대와 40대의 응답이 다소 낮았음. 거주지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이 동지역 주민들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거주기간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의회의 역할 수행도를 높이 평가하였음.
- 진주시의회의 정책기여도를 종합하면 평균 3.36으로서 다소 높은 수준임.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인식에서는 ‘60대 이상’의 경우 3.58로서 50대의 평균 3.17보다 더욱 높음. 거주기간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응답이 평균 3.04로서 낮음.
- 진주시의회의 역할 및 역량 강화의 장애요인 1순위로 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등 의회 내부의 내생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진주시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개별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의원의 자질 향상과 함께 의회의 권한 강화 및 의정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순위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주로 지방의회의 외생적 요인을 선택한 것이 특징임.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주체로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함. 특히, 주민의 관심 부족과 지역내의 강력한 이해 집단의 존재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
- 진주시의회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주민들은 진주시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의원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아울러 주민들은 다양한 매체 및 참여 기회를 통해 진주시의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진주시의회의 견인자 또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진주시의회의 역량강화는 진주시의원의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라는 개별적 노력만

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다양한 주민참여 공간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노력을 전개할 때 가능함. 입법보좌관 제도, 연구모임의 활성화 등 진주시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더욱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원 연구단체의 적극 지원을 통해 진주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브라운백 등을 활용하여 정책 연구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의원들의 학습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초의회 또는 광역의회와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조직 진단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함.
- 우수한 정책지원관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등 관련 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해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신규인력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및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분상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 제도의 정치를 정비해야 함.
-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정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거공약과 의정활동 등을 정보화 할 수 있는 의정활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의정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 여론 동향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함. 예를 들어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서포터즈제와 서울시의회 등에서 시행 중인 의회 모니터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사무국에는 홍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홍보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도 있음.
- 지방의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시점임.
- 주민참여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주민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

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다양한 활동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분권형 지방의회의 형태로 나아가야 함.

-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협력체계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함.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율성 제고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함. 지식을 공동으로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진주시 의회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진주시의회의 의뢰로 진주시 의회의 역할 및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설문의 응답에 대한 결과는 본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적인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의 응답은 향후 진주시의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선생님께서 평소 생각하신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 10.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병익

1. 다음에 제시된 진주시 의회의 역할이 현재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 구분 | 설문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
| 1-1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시정질의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대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지역의 갈등 중재 및 조정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다음의 항목에 대해 진주시 의회는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 구분 | 설문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대체로 양호 | 매우 양호 |
|-----|--------------------|-------|----|----|--------|-------|
| 2-1 | 시의회의 정책 개발 및 제안 역량 |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 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개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 | 시의회 및 시의원의 윤리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2-4 | 시의회 및 시의원의 전문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의 정책에 대해 진주시 의회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 구분 | 설문 | 전혀 기여치 못한다 | 기여 하지 못한다 | 보통 | 기여 한다. | 매우 기여 한다 |
|-----|---------------------------|------------------|-----------------|----|-----------|----------------|
| 3-1 |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 ① | ② | ③ | ④ | ⑤ |
| 3-2 | 저소득층 등 주민 복지정책 | ① | ② | ③ | ④ | ⑤ |
| 3-3 | 주택·도시계획·공원 등 공간정책 | ① | ② | ③ | ④ | ⑤ |
| 3-4 | 도로·교통·통신망 등 인프라 정책 | ① | ② | ③ | ④ | ⑤ |
| 3-5 | 예술 공연 등 문화정책 | ① | ② | ③ | ④ | ⑤ |
| 3-6 | 안전 방법 방재 정책 | ① | ② | ③ | ④ | ⑤ |
| 3-7 | 농촌 및 낙후지역 지원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 | ① | ② | ③ | ④ | ⑤ |

4. 다음은 진주시 의원의 자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주시 의원들은 각각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 구분 | 설문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3-1 | 확고한 정치적 소신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2 | 진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3 |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4 | 품성과 인격 면에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으며 솔선수범하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5 | 사실과 정보의 논리적 분석을 통해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6 |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7 |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8 | 지역구와 관련한 동향, 고충, 이슈를 명료화하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9 | 지역구 내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0 |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 진주시의회 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음 사항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 구분 | 설문 | 전혀 중요치 않다 |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 매우 중요 하다 |
|-----|---------------------------|-----------------|----------------|----|----------|----------------|
| 8-1 | 시의원의 도덕성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8-2 | 시의원의 전문성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8-3 | 집행부(진주시) 견제 및 비판 | ① | ② | ③ | ④ | ⑤ |
| 8-4 | 독자적 정책대안의 제시와 실현 | ① | ② | ③ | ④ | ⑤ |
| 8-5 | 타지역 지방의회와의 교류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8-6 | 중앙정부 협조 끌어내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8-7 | 주민참여 확대 노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 8-8 | 시의원 간 토의심화 노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 8-9 | 온라인, 대면접촉 등을 통한 주민 소통의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귀하께서는 진주시의회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신뢰하지 않는다 ③ 보통 ④ 신뢰한다 ⑤ 매우 신뢰한다

10. 귀하께서는 진주시의회 의 전반적인 역할 수행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나. 귀하의 나이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다. 귀하의 거주지는? ① 동지역 ② 읍면지역

라. 귀하의 학력은?

① 고등학교 이하 ② 전문대 및 대학 재학 및 졸업 ③ 대학원 재학 및 졸업

마. 귀하의 진주시 거주기간은?

① 5년 이하 ② 5-10년 ③ 10-20년 ④ 20-30년 ⑤ 30년 이상

참고문헌

- 길종백·하정봉. (2023). 자치분권 2.0사대의 광역지바오이회 역할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전라남도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7(2).
- 류춘호. (2022).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임기제 공무원 인사 관리전략. 「2022년도 (사)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노수. (2018). 지방의회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검토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분석. 지방자치법연구, 18(3).
- 은종환·박기관·이훈래. (2002). 지방의회 전문성에 관한 이해관계자 인식유형 분석. 「지방정부연구」, 26(1).
- 최봉기. (2011). 한국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3(2).
- 최용환. (2020).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충북연구원.
- 하민지. (202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개편 방향」. 경남연구원.
- 한국행정학회.(2019).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시의회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